

뜸들이기:

수능 개념 (독서&문학)

조은우 지음



이 책을 집필하신 선생님

조은우 선생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도와주신 분들

김동환 가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백주연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설원석 연세대학교 약학과

최형규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박지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표지 그림 : 정채은

블로그 QR 코드



한방국어 블로그에서
본 교재의 교재 정오표와
학습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QR 코드



한방국어 유튜브에서 본 교재의
해설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머리말



제 수업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가장 실전에 적합한 수업”

저는 국어교육과 출신도 아니고 국어국문학과 출신도 아닙니다.
아마도 제 전문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국어라는 과목을 ‘학문’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험’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국어로 한방에 대학 갑시다!

“가장 재미있는 수업”

저는 국어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사용합니다.
제 수업은 화려한 아이돌보다, 혹은 유튜버들보다 재미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수업 듣는 내내 몰입감 높은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수업”

제가 말한 ‘인간적’이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DNA에 깊이 내장된 인간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학습의 중추인 뇌에 대해서 다른 강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학습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1 강의 목표

학생들이 강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만약 강의 전, 후에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시간 낭비한 것이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반드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2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1) 한번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감상'이 아닌 '공부'를 하도록 한다.

2) '예습'과 '복습'은 필수!

예습은 한번 내용을 훑어보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상적인 소요시간은 10분~20분 사이이다.

복습은 당일 날 수업 들은 내용을 자기 전까지 한번 더 훑어보는 것과 다음 날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것 까지를 의미한다.

3 워크북과 병행한다

1) 약속한 기한에 약속한 양만큼 해낸다.

2) 문제는 두 번 푼다.

2-1. 첫번째에는 반드시 검은펜으로 풀어오고, 두번째에는 반드시 파란펜으로 필기한다.

2-2. 문제풀 때마다 반드시 시간을 재서 적어둔다.

2-3. 채점 후에는 반드시 개념책을 참고하여 오답노트를 쓴다.

3) 오답노트를 쓰면서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질문한다.

생각해볼 거리

1

IQ에 관하여

‘웍슬러 지능검사’에 대해 검색

- 1) IQ와 성적간의 상관관계
- 2) IQ의 평균과 표준편차

2

1등급과 9등급의 차이점

3

1등급은 가능한 성적인가?

이 책의 차례

Part 1. 독서

Chapter 1.

지문 읽는 방법

01 언어의 본질	12
02 글의 종류	14
03 지문 vs 문제	15
04 지문 : 독서의 3요소	16
05 단원의 마무리	29

Chapter 2.

문제 푸는 방법

01 문제 : 문제 풀이 방법	31
02 선지 분석 방법	35
03 실전 연습	38
04 단원의 마무리	92

Part 2. 문학

Chapter 1.

문학으로의 첫걸음

01 문학의 본질	95
02 문학의 3관점	98
03 단원의 마무리	100

Chapter 2.

시문학

01 문제 유형 분석	102
02 시의 논리와 해석	105
03 개념어 공부	124
04 단원의 마무리	208

Chapter 3.

소설문학

01 문제 유형 분석	210
02 소설의 논리와 해석	214
03 개념어 공부	250
04 단원의 마무리	282

Chapter 4.

수필, 희곡, 시나리오

01 수필	288
02 희곡	289
03 시나리오	290
04 실전 연습	291



Part 1.

독서

Chapter 1.

지문 읽는 방법

- 01 언어의 본질
- 02 글의 종류
- 03 지문 vs 문제
- 04 지문 : 독서의 3요소
- 05 단원의 마무리



01 언어의 본질



A 내 입맛에는 김치찌개보다 짬뽕이 더 맛있는 것 같아.



B 이 발언이 불쾌한 건, 저 뿐인가요?
지금 짬뽕이 우리 고유의 발효음식인 김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겁니까?



C 김치찌개를 싫어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취향존중 좀 합시다.



A 김치찌개를 싫어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짬뽕이 더 맛있다고요.



D 중국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짬뽕에 비유한 저의가 대체 뭡니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생기는 일”



- 언어 = 소통 → 의도 → 맥락
- 언어의 목적?
-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독서론 : 의도

24학년도 수능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 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①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②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③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④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⑤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⑥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02 글의 종류

1 인문

39 P

2 사회

46 P

3 예술

53 P

4 논리

61 P

5 법률

69 P

6 경제

76 P

7 과학

83 P

8 기술

88 P

03 지문 vs 문제

지문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키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사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선거 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수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수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문제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 ②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 ③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 ④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 한다.
- 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운다.

독서 괴물을 무찌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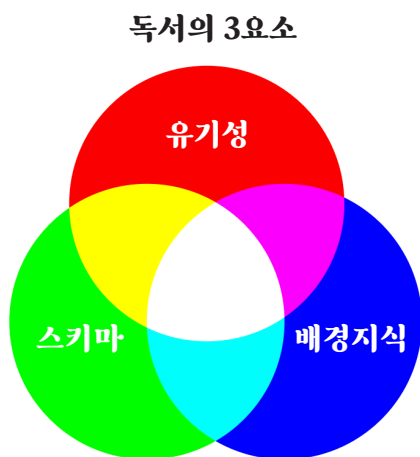


VS



독서괴물

04 지문 : 독서의 3요소



1. 첫번째 법칙 : 유기성이란?

부분 - 전체

부분과 전체 간의 상관관계

(즉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고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의미)

- 한 문장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
- 다음 문장과의 관계를 읽어내는 것

2. 두번째 법칙 : 스키마란?

글을 구조화 하는 것

- 개념어들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같은 말, 반대말 도형)
-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3. 세번째 법칙 : 배경지식이란?

내가 생물 지문을 잘 읽을까 VS 여러분들이 생물 지문을 잘 읽을까?

1. 유기성이란?

유기성이란?

23학년도 9월

글을 읽을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이다.

눈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았고,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았다.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 한다.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되어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아는 단어, 배경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1. 유기성이란?

1단계 Keyword 찾기

- 'oo'
- 반복
- 나열)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 대비
- 부정어
- 수식어
- 예시문
- 비례, 반비례
- 조건문

2단계 Keyword에 대한 설명과 연결 짓기

3단계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찾기

순접	앞의 내용이 뒤에도 이어짐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때문에
역접	앞의 내용과 반대 내용이 뒤에 나옴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
병렬	단어/문장 등을 나열	그리고, 및
진행형	다른 설명을 덧붙임	또한, 게다가, 그리고
정리	앞의 내용을 쉬운 표현으로 정리	즉
예시	앞의 내용에 대한 예시를 들	예를 들면
선택	여러 단어/문장들 중에 하나를 선택	또는, 아니면
기타	화제를 전환	그나저나

유기성 예시 지문 ①

07학년도 수능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에 이미지가 되었던 ‘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던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 $2+3=5$ ’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 $2+3=5$ ’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유기성 예시 지문 ②

20학년도 9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스키마란?

스키마란?

23학년도 9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 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지문을 찾아가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 같은 말 반대 말 도형치기 ex)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 □ △ ○ ☆
2. 문단 별 내용 정리
3. 문단과 문단과의 관계 정리

스키마 예시 지문 ①

16학년도 6월 A, B형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스키마 예시 지문 ②

15학년도 9월 A형

우리는 컴퓨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번갈아 실행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인 CPU(중앙 처리 장치) 스케줄링 때문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실행 대기 프로그램의 목록인 '작업큐'에 등록한다. 운영 체제는 실행할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업큐에서 선택하여 CPU에서 실행하고 실행이 종료되면 작업큐에서 지운다.

한 개의 CPU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A와 B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그램은 실행을 요청한 순서대로 작업큐에 등록되고 이 순서에 따라 A와 B는 차례로 실행된다. 이때 A의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B가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므로 동시에 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A와 B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번갈아 실행하면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서 CPU의 실행 시간을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각각의 구간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다. 여기서 한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구간 실행'이라 하며, 각각의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을 '구간 시간'이라고 하는데 구간 시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정한다. A와 B의 구간 실행은 원칙적으로 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번갈아 반복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먼저 종료되면 나머지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된다.

한편, 어떤 프로그램의 구간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은 작업큐에서 대기한다. A의 구간 실행이 끝나면 A의 실행이 정지되고 다음번 구간 시간 동안 실행할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이때 A가 정지한 후 B의 실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교체 시간'이라고 하는데 교체 시간은 구간 시간에 비해 매우 짧다. 교체 시간에는 그때까지 실행된 A의 상태를 저장하고 B를 실행하기 위해 B의 이전 상태를 가져온다. 그 뿐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서 실행되더라도 운영 체제가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판단해야 하므로 구간 실행 사이에는 반드시 교체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업큐에 등록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총처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순수하게 프로그램의 실행에만 소요된 시간인 '총실행 시간'에 '교체 시간'과 작업큐에서 실행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다.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구간 실행 횟수가 많아져서 교체 시간의 총합은 늘어난다. 그러나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짧거나 같은 프로그램은 한 번의 구간 시간 내에 종료되고 곧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제 프로그램 A, B, C가 실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

가 실행되고 있고 B가 작업큐에서 대기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C를 실행할 경우, C는 B 다음에 등록되므로 A와 B의 구간 실행이 끝난 후 C가 실행된다. A와 B가 종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구간 실행이 필요하면 작업큐에서 C의 뒤로 다시 등록되므로 C, A, B의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세 프로그램은 등록되는 순서대로 반복해서 실행된다.

이처럼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지면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따라서 작업큐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를 제한해 대기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3. 배경지식이란?

배경지식이란?

23학년도 6월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 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가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모든 과목, 모든 교과서를 다 공부해야 하나요?

Nope!



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때 공부를...

안했다!

뜸들이기
워크북
여러번 반복

강의 들으면서 배경지식을
하나 하나씩 쌓아가기

그래도 어느정도 했다

감기약

배경지식 예시 지문 ①

08학년도 9월

은행의 핵심 업무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일이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며, 국민 경제 차원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고객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 역할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고객의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늘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은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 나아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금융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의 대상이자,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 관념이 희박하고 소득 창출 능력 또한 떨어지므로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배제층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면서도 은행을 무색케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는 사례도 있다. 빈곤층의 자활을 지향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가 그것이다.

세계적인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용자를 희망하는 최저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섯 명이 자발적으로 짝을 지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먼저 두 명에게 창업 자금을 제공한 후 이들이 매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분할 상환 약속을 지키면 그 다음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들이 모두 상환에 성공하면 마지막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이 소액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다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 이런 방법으로 ‘그라민은행’은 99%의 높은 상환율을 달성할 수 있었고, 장기 용자 대상자 중 42%가 빈곤선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자기 사업을 벌일 인적·물적 자본의 확보가 자활의 핵심 요건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사회연대은행’이 대출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영상의 조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들 단체의 실험은 금융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과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임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배경지식 예시 지문 ②

18학년도 6월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 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배경지식 예시 지문 ③

18학년도 수능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및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 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배경지식 예시 지문 ④

20학년도 6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배경지식 예시 지문 ⑤

22학년도 수능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하였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05 단원의 마무리

01. 언어의 본질

언어는 (1)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으로, (2)을 잘하기 위해서는 (3)를 파악해야 하고, (4)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5)을 파악해야 한다.

02. 글의 종류

글의 종류는 총 8가지로 (1)가 있다.
앞서 문과 과목의 글인 (2)는 (3)(4)를 해야하고, 이과 과목의 글인 (5)는 (6)중심으로 (7)(8)등을 읽어내야 한다.
(9)는 그 문과 글과 이과 글의 중간 성격을 띤다.

03. 지문 VS 문제

지문 잘 읽는 법과, 문제 잘푸는 방법은 다르다.
하지만 (1)을 잘 읽으면 (2)를 잘 풀 가능성이 높아진다.

04 지문 : 독서의 3요소

유기성이란?

(1)과 (2)간의 (3)을 파악하는 것으로, 3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1단계는 keyword 찾기로 (4)가 키워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단계는 (5)이고, 3단계는 (6)이다.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는 (7)가 있다.

스키마란? (1)위해서 하는 것으로, (2)하는 것이다.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3) 2단계는 (4) 3단계는 (5)이다.

배경지식이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
- | | |
|------------------|--|
| 01. 언어의 본질 | 1.소통 / 2.소통 / 3.의도 / 4.의도 / 5.맥락 |
| 02. 글의 종류 | 1.인문, 사회, 예술, 논리, 법률, 경제, 과학, 기술 / 2.인문, 사회, 예술 / 3.편가르기 / 4.도형치기 / 5.법률, 경제, 과학, 기술 / 6.전문용어 / 7.선후 / 8.인과 / 9.논리 |
| 03. 언어의 본질 | 1.지문 / 2.문제 |
| 04. 지문 : 독서의 3요소 | 유기성이란?
1.부분 / 2.전체 / 3.관계 / 4.반복, 나열, 대비, 부정어, 수식어, 예시문, 비례, 반비례, 조건문 / 5.keyword에 대한 설명과 연결 짓기 / 6.순접, 역접, 병렬, 진행형, 정리, 예시, 선택, 기타 스키마란?
1.지문을 찾아가기 용이하기 / 2.구조화 / 3.같은 말 반대 말 도형치기 / 4.문단 별 내용 정리 / 5.문단과 문단과의 관계 정리 |

Chapter 2.

문제 푸는 방법

- 01 문제 : 문제 풀이 방법
- 02 선지 분석 방법
- 03 실전 연습
- 04 단원의 마무리



01 문제 : 문제 풀이 방법

1. 내 주제 파악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기준 : 시간 / 난이도 / 유형

2. 문제 유형 판단

- 사실 판단 : '내용 일치' 문제로, 지문과 일대일 대응해서 푼다.
- 적절성 판단 : '추론', '보기', '조건' 문제로, 적절한지 생각해서 풀어야 한다.

3. 읽을 범위 설정

내가 어디까지 읽을 것인가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글을 읽어내야 한다.

- 기준 : 독자의 배경지식 / 지문의 정보의 양 / 지문의 길이 / 범위형 문제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수능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답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물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

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 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 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 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했다.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 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 ②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다.

2.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②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 ④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 ⑤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② ㉠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③ ㉠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④ ㉠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⑤ ㉠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4. (나)의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만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ㄴ.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 ㄷ.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 ㄹ.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 ① 왕안석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왕안석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③ 왕안석은 ㄷ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오징은 ㄱ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오징은 ㄴ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5.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①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 (O/X)
- ②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안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O/X)
- ③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O/X)
- ④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 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O/X)
- ⑤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O/X)

6. ㉓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과일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다.
- ② 상자에 탁구공이 가득 담겨 있다.
- ③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이 담겨 있다.
- ④ 화폭에 봄 경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
- ⑤ 매실이 설탕물에 한 달째 담겨 있다.

02 선지 분석 방법

1. 선지는 반드시 끊어 읽기

한 선지에는 한 개의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ex. 나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직업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재미있고, 노래도 잘하고, 농구도 잘해. (O/X)

2. '선지' 푸는 방법

• Paraphrasing (말바꾸기)된 선지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하지 않은 선지' 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

- ① 없는 내용
- ② 잘못된 내용
- ③ 주체 바꾸기
- ④ 내용 뒤섞기
- ⑤ 선후, 인과관계

3. <보기> 있는 문제 푸는 방법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에 대응해야 한다.

2. '선지' 푸는 방법

18학년도 수능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뒤르켐은 오스트 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 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 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 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 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 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 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서 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 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 기 시 기 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 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 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 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 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1. '집합 의례'에 대해 ㉠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 살린다. (O/X)
- ②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O/X)
- ③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O/X)
- ④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O/X)
- ⑤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 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O/X)

2.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O/X)
- ②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O/X)
- ③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O/X)
- ④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O/X)
- ⑤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보기> 있는 문제 푸는 방법

예시)

18학년도 9월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미장센(mise en scène):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

<보기>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갔다.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 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03

실전 연습

1 인문

2023학년도 수능 [1~6] - 인문 (상)

(가)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O/X)
- ㉡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O/X)
- ㉢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O/X)
- ㉣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O/X)
- ㉤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O/X)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O/X)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O/X)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O/X)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O/X)

3.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O/X)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O/X)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O/X)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O/X)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O/X)

4.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5.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O/X)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O/X)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O/X)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O/X)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O/X)

6.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은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O/X)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O/X)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X)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O/X)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5학년도 수능 B형 [1~4] - 인문 (중)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 본위에서 자신을 ㉡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 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 밑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O/X)
-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O/X)
-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O/X)
-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O/X)
-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O/X)

2. 밑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O/X)
-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O/X)
-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O/X)
-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O/X)
-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O/X)
-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향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O/X)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O/X)
-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O/X)
-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O/X)

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O/X)
- ② ㉡: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O/X)
- ③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O/X)
- ④ ㉣: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O/X)
- ⑤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0학년도 6월 [1~4] - 인문 (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체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밑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O/X)
- ②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O/X)
- ③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O/X)
- ④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O/X)
- 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O/X)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과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O/X)
-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O/X)
-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O/X)
-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O/X)
- ⑤ ㉠과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ㄴ (O/X) ② ㄱ, ㄹ (O/X) ③ ㄷ, ㄹ (O/X)
 ④ ㄱ, ㄴ, ㄷ (O/X) ⑤ ㄴ, ㄷ, ㄹ (O/X)

4.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O/X)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O/X)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O/X)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O/X)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사회

2023학년도 수능 [1~6] - 사회 (상)

(가)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類書)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다.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다. ㉡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자학의 지식을 ㉢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나)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類書)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익,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7세기의 이수광은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설」을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심성 수양에 절실하지 않을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18세기의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 바꾸어 수용하였다.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19세기의 이규경도 ㉨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성호사설」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 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O/X)
- ㉡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였고, (나)는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다. (O/X)
- ㉢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O/X)
- ㉣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O/X)
- ㉤ (가)는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였고, (나)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O/X)
- ②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O/X)
- ③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 (O/X)
- ④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었다. (O/X)
- ⑤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 (O/X)

3.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식의 제공이라는 ㉡의 편찬 의도는, ㉠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 (O/X)
- ②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의 방식은, ㉠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O/X)
- ③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의 성격은, ㉢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O/X)
- ④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 과학에 대해 드러낸 ㉡의 관심은, ㉢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난다. (O/X)
- 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과 ㉢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나타난다. (O/X)

4.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 의거(依據)하여 (O/X)
- ② ㉡: 계몽(啓蒙)하는 (O/X)
- ③ ㉢: 용이(容易)하게 (O/X)
- ④ ㉣: 혼재(混在)되어 (O/X)
- ⑤ ㉤: 변경(變更)하여 (O/X)

5. ㉣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익혀야 할 것이다. (O/X)
- ② 유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헤치는 길이 될 것이다. (O/X)
- ③ 주자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날로 번성하게 되니,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O/X)
- ④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앎의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O/X)
- ⑤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으니, 심성을 수양하는 것은 그다음의 일이다. (O/X)

6. (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임원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주자학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안설을 부기했으며,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①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이 확인되었군. (O/X)
- ②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었군. (O/X)
- ③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봉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겠군. (O/X)
- ④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호사설」에 비해 향촌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겠군. (O/X)
- ⑤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달리 중화 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2학년도 6월 [1~4] - 사회 (중)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권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된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미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 밑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O/X)
- ②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O/X)
- ③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O/X)
- ④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O/X)
- 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O/X)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X)
- ②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X)
- ③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O/X)
- ④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O/X)
- ⑤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O/X)

3. 밑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O/X)
- ②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X)
- ③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O/X)
- ④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O/X)
- ⑤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 : 향유(享有)하기로 (O/X)
- ② ㉡ : 단절(斷絶)하는 (O/X)
- ③ ㉢ : 둔감(鈍感)해져 (O/X)
- ④ ㉣ : 지대(至大)한 (O/X)
- ⑤ ㉤ : 수립(樹立)하였다는 (O/X)

2024학년도 수능 [1~4] - 사회 (하)

㉠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키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 「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 다수의 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 소수의 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O/X)
- ②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O/X)
- ③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O/X)
- ④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O/X)
- 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운다. (O/X)

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O/X)
- ②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O/X)
- 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O/X)
- ④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O/X)
- 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㉔과 관련하여 ㉑와 ㉒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㉑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O/X)

②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㉑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O/X)

③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㉒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O/X)

④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㉒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O/X)

⑤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㉒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O/X)

4. ㉑~㉒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은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8.8%P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조사 결과	A 후보	42%	38%	39%
	B 후보	32%	37%	38%
	C 후보	18%	17%	17%

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㉑와 ㉒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O/X)

②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㉑에 위배되지 않, ㉒에 위배되지 않겠군. (O/X)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㉑와 ㉒에 모두 위배되겠군. (O/X)

④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㉑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㉒에 위배되겠군. (O/X)

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㉑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㉑에 위배되겠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예술

2023학년도 9월 [1~6] - 예술 (상)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①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⑤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의 의

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④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①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②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④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③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1.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함.....㉡	
서술 방식의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함.....㉣
서술된 내용의 관계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O/X)
- ②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O/X)
- ③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O/X)
-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O/X)
-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O/X)

3.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O/X)
-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O/X)
-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O/X)
-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O/X)
-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O/X)

4.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O/X)
-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O/X)
-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O/X)
-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O/X)
-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O/X)

5.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 ① A: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O/X)
- ② A: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뎠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O/X)
- ③ A: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X)
- ④ B: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O/X)
- ⑤ B: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O/X)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 맞바꾸는 (O/X)
- ② ㉡: 동떨어진 (O/X)
- ③ ㉢: 바라보는 (O/X)
- ④ ㉣: 빼앗는다 (O/X)
- ⑤ ㉤: 찾아내는 (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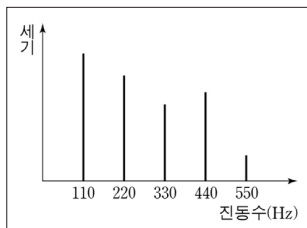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7학년도 6월 [1~6] - 예술 (중)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악기가 ㉠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그림>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5/4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이다. 그러므로 장3도는 완전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가령, 음정이 2/1인 옥타브, 3/2인 완전5도, 5/4인 장3도, 6/5인 단3도의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 등이 있다.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한다. 예컨대 조성 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쉼표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성의 음계 음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 조성 음악 : 으뜸음 ‘도’가 다른 모든 음계 음들을 지배하는 음악으로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양 음악이 이에 해당한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O/X)
- ②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O/X)
- ③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O/X)
- ④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O/X)
- ⑤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O/X)

2.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질서를 가진 음표나 쉼표의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O/X)
- ② 가락은 서로 다른 음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요소이다. (O/X)
- ③ 화성은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으로,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O/X)
- ④ 셈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음악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O/X)
- ⑤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으로, 음악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O/X)

3. **음악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 중, ㉠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① 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O/X)
- ②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O/X)
-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O/X)
-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O/X)
- ⑤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서 들어갈 때 우 강한 시끄러움이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O/X)

4. **윗글의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은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다. (O/X)
- ②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 Hz로 인식된다. (O/X)
- ③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O/X)
- ④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O/X)
- ⑤ <그림>에서 220 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5.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 발생하는 네 음 P, Q, R, S의 기본음의 진동수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았다.

음	P	Q	R	S
기본음의 진동수 (Hz)	440	550	660	880

- ① P와 Q 사이의 음정은 장3도이다. (O/X)
- ②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O/X)
-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O/X)
- ④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있다. (O/X)
-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O/X)

6.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기>

윗글의 ㉠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O/X)
-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O/X)
-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줘라. (O/X)
-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O/X)
-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8학년도 9월 [1~4] - 사회 (하)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롬프뢰유*의 흐름을 ㉤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의 작품 ㉥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 높였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 트롬프뢰유(trompe-l'oeil) :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 오브제(objet) :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1. ㉠과 ㉡을 중심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O/X)
-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O/X)
-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롬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O/X)
-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O/X)
-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파에 해당한다. (O/X)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O/X)
-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발라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O/X)
-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재 그대로 제시하였다. (O/X)
-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O/X)
-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윗글의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쿠넬리스, 「무제」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O/X)
- ② 헨슨이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O/X)
- ③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O/X)
-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O/X)
-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O/X)

4.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O/X)
- ② ㉡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O/X)
- ③ ㉢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O/X)
- ④ ㉣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O/X)
- ⑤ ㉤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4 논리

2018학년도 9월 [1~6] - 논리 (상)

고전 역학에 ㉔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㉕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㉖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㉗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㉘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㉙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

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㉚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 LP :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1.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O/X)
-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O/X)
-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O/X)
-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O/X)
-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O/X)

2.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O/X)
- ②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O/X)
- ③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O/X)
- ④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O/X)
- ⑤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O/X)

3.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 : 의거(依據)하면 (O/X)
- ② ㉡ : 인지(認知)하게 (O/X)
- ③ ㉢ : 소지(所持)하게 (O/X)
- ④ ㉣ : 제기(提起)한다 (O/X)
- ⑤ ㉤ : 부합(符合)한다 (O/X)

4.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 비트(bit) :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O/X)
- ②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O/X)
- ③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O/X)
- ④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O/X)
-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5. 윗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은 ‘거짓’이다. (O/X)
- ② LP에서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O/X)
- ③ LP에서 ㉠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O/X)
- ④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O/X)
- ⑤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O/X)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와 B는 아래의 (ㄱ)~(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 (ㄱ)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 (ㄴ)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다.
- (ㄷ) 반지름 5 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 (ㄹ) 반지름 5 cm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단, (ㄱ)과 (ㄴ)의 전자 e는 동일한 전자이고 (ㄷ)과 (ㄹ)의 팽이는 동일한 팽이이다.)

- ① A는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O/X)
- ② B는 (ㄱ)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ㄷ)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O/X)
- ③ A와 B는 모두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O/X)
- ④ A는 B와 달리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O/X)
- ⑤ B는 A와 달리 (ㄹ)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6학년도 수능 A형 [1~5] - 논리 (중)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먼저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은 것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가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

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 밑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O/X)
-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O/X)
-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O/X)
-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O/X)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X)

2.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O/X)
-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O/X)
-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O/X)
- ④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O/X)
-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O/X)
- ②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O/X)
- ③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O/X)
- ④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O/X)
- 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 (O/X)

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 (ㄴ)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C로 해마다 10°C씩 높아졌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하였다.

(ㄱ)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150°C일 것이다.

(ㄴ)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200°C일 것이다.

◦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①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ㄱ)과 (ㄴ)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 (O/X)
- ② A는 (ㄱ)과 (ㄴ)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O/X)
- ③ A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C이기 1년 전에 90°C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겠군. (O/X)
- ④ B는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ㄴ)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O/X)
- ⑤ B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C이기 1년 전에 60°C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ㄴ)을 (ㄱ)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O/X)

5.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혼란에 빠진 적군은 지휘 계통이 무너졌다. (O/X)
- ② 그의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기운이 빠졌다. (O/X)
- ③ 그는 무릎 위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쳐 왔다. (O/X)
- ④ 그의 강연에 자신의 주장이 빠져 모두 아쉬워했다. (O/X)
- ⑤ 우리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것이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6학년도 9월 B형 [1~4] - 논리 (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왔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험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지만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험펠과 달리 셸먼은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개념에 주목했다.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셸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1. 밑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의의 (O/X)
- ②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 (O/X)
- ③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의 설명과 논증의 관계 (O/X)
- ④ 셸먼의 설명 이론이 험펠 이론에 비해 지니는 장점 (O/X)
- ⑤ 셸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 (O/X)

2. 밑글에 따른 때, 험펠의 설명 이론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다. (O/X)
- ② 일상적 직관에서 설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설명은 아니다. (O/X)
- ③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들은 반드시 참이다. (O/X)
- ④ 피설명항은 특정한 맥락에서 보편 법칙에 따라 발생한 개별 사례이다. (O/X)
- ⑤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O/X)

3. 밑글로 미루어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명 개념이 인과 개념보다 불명료하다는 문제 (O/X)
- ② 원인과 결과의 시공간적 연결은 불필요하다는 문제 (O/X)
- ③ 인과 개념이 설명의 형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 (O/X)
- ④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O/X)
- ⑤ 피설명항에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4. <보기>의 [물음]에 대해 험펠의 이론에 따라 [설명]을 한다고 할 때, (가) ~ (다)에 들어갈 [명제]를 바르게 고른 것은? [3점]

<보기>

[물음]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일까?

[설명]

설명항 { 보편 법칙: _____ (가)
 선행 조건: _____ (나)
 피설명항 : _____ (다)

[명제]

- ㄱ.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
- ㄴ.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이다.
- ㄷ.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
- ㄹ.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

- | | (가) | (나) | (다) |
|---|------|------|-----|
| ① | ㄱ, ㄴ | ㄷ | ㄹ |
| ② | ㄱ, ㄹ | ㄴ | ㄷ |
| ③ | ㄴ, ㄷ | ㄱ | ㄹ |
| ④ | ㄹ | ㄱ, ㄴ | ㄷ |
| ⑤ | ㄹ | ㄱ, ㄷ | ㄴ |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5 법률

2023학년도 9월 [1~4] - 법률 (상)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 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 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O/X)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O/X)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O/X)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X)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O/X)

2.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O/X)
-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O/X)
-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O/X)
-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려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O/X)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O/X)

3.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O/X)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O/X)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O/X)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O/X)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O/X)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7지분이다. (O/X)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O/X)
-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지분이다. (O/X)
-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O/X)



각 선지가 적절함/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4학년도 9월 [1~4] - 법률 (중)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태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 데이터 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 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 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 물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다. (O/X)
- ② 교통 이용 내역이 집적·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O/X)
- ③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O/X)
- ④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O/X)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O/X)

2. [A], [B]의 입장에서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입장에서, ㉦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O/X)
- ② [A]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라면, ㉧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O/X)
- ③ [B]의 입장에서, ㉣가 ㉤와의 거래에 실패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에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겠군. (O/X)
- ④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에서 ㉤로 이동하여 집적·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겠군. (O/X)
- ⑤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는 ㉦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 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자산 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 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갑은 B 은행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뒤, A 은행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 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 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 ①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 카드 사용 내역'을 B 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O/X)
- ② A 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이므로 강화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행사이다. (O/X)
- ③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갑이 A 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O/X)
- ④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O/X)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O/X)

4. 문맥상 ㉠,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 | ㉠ | ㉡ |
|---|----------|----------|
| ① | 용이(容易)해져 | 근거(根據)하여 |
| ② | 유력(有力)해져 | 근거(根據)하여 |
| ③ | 용이(容易)해져 | 의탁(依託)하여 |
| ④ | 원활(圓滑)해져 | 의탁(依託)하여 |
| ⑤ | 유력(有力)해져 | 기초(基礎)하여 |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1학년도 6월 [1~5] - 법률 (하)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1. 밑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O/X)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O/X)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O/X)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O/X)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O/X)

2.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O/X)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O/X)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O/X)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O/X)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㉔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과제 : '㉔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㉔ 고 할 수 있으므로 ㉔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O/X)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O/X)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O/X)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O/X)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O/X)

4.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O/X)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O/X)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O/X)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O/X)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O/X)

5. 문맥상 ㉔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O/X)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O/X)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O/X)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O/X)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O/X)

⑥ 경제

2020학년도 수능 [1~6] - 경제 (상)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 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확립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㉓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비율이 **㉔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 후순위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㉕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㉖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㉗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㉘ 딱딱하게 응고** 될지 모른다.

1.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O/X)
- ㉒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O/X)
- ㉓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O/X)
- ㉔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O/X)
- ㉕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O/X)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O/X)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O/X)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O/X)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O/X)

3.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O/X)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O/X)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O/X)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O/X)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O/X)

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O/X)
- ② ㉡: 8%가 넘도록 (O/X)
-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O/X)
-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O/X)
-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O/X)

5.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 억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O/X)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O/X)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O/X)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O/X)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O/X)

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O/X)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O/X)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O/X)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O/X)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8학년도 6월 [1~4] - 경제 (중)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 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 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 밑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O/X)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O/X)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O/X)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O/X)
-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O/X)

2.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O/X)
- ② ㉢ :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O/X)
- ③ ㉣ :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O/X)
- ④ ㉤ :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O/X)
- ⑤ ㉠ :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 ~ 3/31	4/1 ~ 6/30	7/1 ~ 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O/X)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O/X)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O/X)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O/X)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O/X)

4.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O/X)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O/X)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O/X)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O/X)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6학년도 9월 A형 [1~5] - 경제 (하)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1.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O/X)
- ㉡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O/X)
- ㉢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O/X)
- ㉣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O/X)
- ㉤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O/X)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O/X)
- ㉡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O/X)
- ㉢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O/X)
- ㉣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O/X)
- ㉤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 다. (O/X)
- ② ㉡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O/X)
- ③ ㉢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O/X)
- ④ ㉣은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O/X)
- ⑤ ㉣은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O/X)

4. <보기>의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 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 ㄷ.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 당국은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ㄹ.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 당국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① ㄱ, ㄴ (O/X) ② ㄱ, ㄹ (O/X) ③ ㄷ, ㄹ (O/X)
- ④ ㄱ, ㄴ, ㄷ (O/X) ⑤ ㄴ, ㄷ, ㄹ (O/X)

5.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 : 이바지하는 (O/X) ② ㉡ : 내리는 (O/X)
- ③ ㉢ : 늘리더라도 (O/X) ④ ㉣ : 밀려난 (O/X)
- ⑤ ㉣ : 세울 (O/X)



각 선지가 적절함/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7 과학

2023학년도 6월 [1~4] - 과학 (상)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노가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①비타민 K₁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②비타민 K₂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₁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₁과 K₂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₁은 간세포에서, K₂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₁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₂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₁과 K₂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₂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1.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O/X)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O/X)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O/X)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O/X)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O/X)

2. <칼슘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₁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O/X)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O/X)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O/X)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O/X)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O/X)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O/X)
-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O/X)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O/X)
-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O/X)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O/X)

4. <보기>의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다) 헤파린 :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O/X)
-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O/X)
-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O/X)
-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O/X)
-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4학년도 9월 [1~4] - 과학 (중)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잴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압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 수정 진동자이다.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압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 주파수 : 진동이 1초 동안 반복하는 횟수 또는 전압의 (+)와 (-) 극이 1초 동안, 서로 바뀌고 다시 원래대로 되는 횟수.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압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O/X)
- ②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압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O/X)
- ③ 압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압전체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O/X)
- ④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O/X)
- ⑤ 압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O/X)

2.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정 이외에도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O/X)
- ②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O/X)
- ③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O/X)
- ④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O/X)
- ⑤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O/X)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O/X)
- ② ㉠에서는 전압에 의해 압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O/X)
- ③ ㉠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O/X)
- ④ ㉠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O/X)
- ⑤ ㉠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4.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단,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 없음.)

- ① A의 진동자에 있는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겠군. (O/X)
- ②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O/X)
- ③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O/X)
- ④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O/X)
- 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6학년도 수능 A형 [1~3] - 과학 (하)

지레는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지레에서 힘을 주는 곳을 힘점, 지렛대를 받치는 곳을 받침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곳을 작용점이라 한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힘점에 작은 힘을 주어 작용점에서 물체에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레의 원리에는 돌림힘의 개념이 숨어있다.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한다.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해 주느냐에 따라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 거리로 잇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가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N.m(뉴턴미터)이다.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되고 그 방향은 두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 돌고 있는 팽이에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J(줄)이다.

가령, 마찰이 없는 여닫이문이 정지해 있다고 하자. 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300 N의 힘으로 밀고,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 회전축에서 2m만큼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200 N의 힘으로 미는 상태에서 문이 90° 즉, 0.5π 라디안을 돌면, 알짜 돌림힘이 문에 해 준 일은 50π J이다.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O/X)
- ②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 (O/X)
- ③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한다. (O/X)
- ④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O/X)
- 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에너지는 2배가 된다. (O/X)

2. [가]에서 문이 90° 회전하는 동안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O/X)
- ②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O/X)
- ③ 문에는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O/X)
- ④ 알짜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은 방향이 같다. (O/X)
- ⑤ 갑의 돌림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크다. (O/X)

3.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원판'의 회전 운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돌고 있는 원판 위의 두 점 A, B는 그 원판의 중심 O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에서 각각 0.5R, 1R만큼 떨어져 O, A, B의 순서로 한 직선 위에 있다. A, B에는 각각 OA, OB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준다. 현재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단,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다.

- ①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O/X)
- ② A, B에 가해 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 (O/X)
- ③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O/X)
- ④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O/X)
- ⑤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8 기술

2023학년도 9월 [1~4] - 기술 (상)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 준다.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뉜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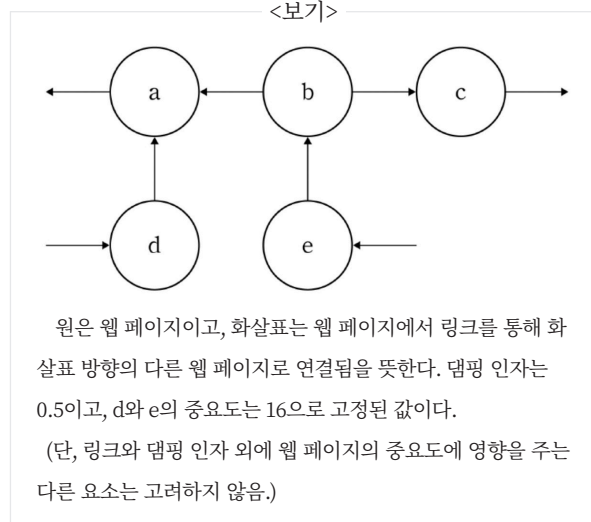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O/X)
- ②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댄핑 인자가 커진다. (O/X)
- ③ 링크 분석 기법은 웹 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 페이지의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O/X)
- ④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 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의 합이다. (O/X)
- 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O/X)

2. ㉠, ㉡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 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여 ㉠을 높인다. (O/X)
- ②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 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O/X)
- ③ 알파벳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 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O/X)
- ④ 다른 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웹 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 ㉡을 높인다. (O/X)
- ⑤ 다른 웹 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을 높인다. (O/X)

3. <보기>는 웹 페이지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의 중요도는 16이다. (O/X)
- ②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O/X)
-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O/X)
-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 (O/X)
- ⑤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5이다. (O/X)

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넒었다. (O/X)
- ② 그들은 큰 산을 넘어서 마을에 도착했다. (O/X)
- ③ 철새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훨훨 날아갔다. (O/X)
- ④ 선수들은 가까스로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 (O/X)
- ⑤ 갑자기 냄비에서 물이 넘어서 좀 당황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4학년도 수능 [1~4] - 기술 (중)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 나타내기 어렵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모르면 사전 찾아봐

- ① ㉠ : 형성(形成)하기 (O/X)
- ② ㉢ : 누락(漏落)되어 (O/X)
- ③ ㉡ : 도래(到來)한다 (O/X)
- ④ ㉣ : 투과(透過)하는 (O/X)
- ⑤ ㉤ : 소원(疏遠)하여 (O/X)

2.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O/X)
- ②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O/X)
- ③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O/X)
- ④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O/X)
- 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O/X)

3. 뒷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O/X)
- ②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O/X)
- ③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O/X)
- ④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O/X)
- 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O/X)

4. ㉣과 관련하여 뒷글의 A 기법과 <보기>의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 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 ①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O/X)
- ②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O/X)
- ③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O/X)
- ④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 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O/X)
- ⑤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6학년도 수능 A형 [1~3] - 기술 (하)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약한 광신호를 측정 가능한 크기의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 애벌랜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 효율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애벌랜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다.

한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흡수층과 애벌랜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에 따라 검출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이 다르다. 예를 들어 실리콘은 300~1,100 nm*, 저마늄은 800~1,600 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 nm :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각 선지가 적절함/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준다. (O/X)
- ②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O/X)
- ③ 입사된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필수적이다. (O/X)
- ④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100 nm 파장의 빛을 검출할 때 사용 가능하다. (O/X)
- 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애벌랜치 영역을 통과하여 양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O/X)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속도가 증가한다. (O/X)
- ② ㉠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 데 필수적이다. (O/X)
- ③ ㉠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양공 쌍의 수는 양자 효율을 결정한다. (O/X)
- ④ ㉠에서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 (O/X)
- ⑤ 흡수층에서 ㉠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O/X)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예비 실험 : 일정한 세기를 가지는 800 nm 파장의 빛을 길이가 1 m인 광통신 케이블의 한쪽 끝에 입사시키고, 다른 쪽 끝에 실리콘으로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설치하여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때 100 nA의 전류가 측정되었고 증배 계수는 40이었다. 작동 온도는 0°C, 역방향 전압은 110 V였다.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1,000 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

◦ 본 실험 : 동일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가지고 작동 조건을 하나씩 달리하며 성능을 시험한다. 이때 나머지 작동 조건은 예비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① 역방향 전압을 100 V로 바꾼다면 증배 계수는 40보다 작아지겠군. (O/X)
- ② 역방향 전압을 120 V로 바꾼다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겠군. (O/X)
- ③ 작동 온도를 20°C로 바꾼다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겠군. (O/X)
-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를 100 m로 바꾼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 nA보다 작아지겠군. (O/X)
- ⑤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0 nm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 nA보다 작아지겠군. (O/X)

04 단원의 마무리

1. 문제 풀이 방법 : 문제를 풀기 전에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사고를 거쳐야 한다.

- 1) 내 주제 파악 :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기준 : (1), (2), (3)
- 2) 문제 유형 판단 : 사실 판단: '내용 일치' 문제로, 지문과 (4)해서 푼다.
적절성 판단 : '추론', '보기', '조건' 문제로 (5)해서 풀어야 한다.
- 3) 읽을 범위 설정 내가 어디까지 읽을 것인가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글을 읽어내야 한다. 기준 : 독자의 배경지식, 지문의 정보의 양, 지문의 길이, 범위형 문제

2. 선지 분석 방법 : 선지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꼭 해야한다.

- 1) 선지는 반드시 (1) 읽기
- 2) '선지' 푸는 방법: paraphrasing된 선지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2), (3), (4), (5), (6)
- 3) 보기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대응해야 한다.

1. 문제 풀이 방법 1.시간 / 2.난이도 유형 / 3.일대일 대응 / 4.적절한지 생각 / 5.끊어 읽기

2. 선지 분석 방법 1.끊어 / 2.없는 내용 / 3.잘못된 내용 / 4.주체 바꾸기 / 5.내용 뒤섞기 / 6.선후, 인과관계



Part 2.

문학

Chapter 1.

문학으로의 첫걸음

- 01 문학의 본질
- 02 문학의 3관점
- 03 단원의 마무리



01 문학의 본질

• 문학이 어려운 이유 1 •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문학을 못할까요?

애들아, 너희들은 영어를 공부해봤니?



그럼요! 초등학교때부터 했는 걸요.

그러면 외국인어랑 프리토킹이 가능해?



.....

너희가 여태껏 공부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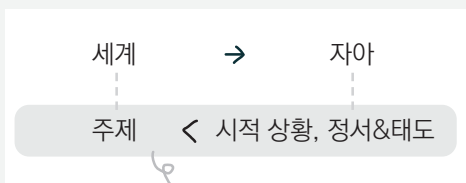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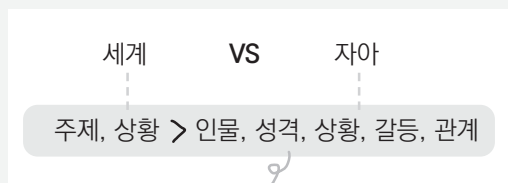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

1 문학의 본질

시



소설



2 '시어의 의미'를 통해 파악

'인물, 성격, 갈등, 관계'를 통해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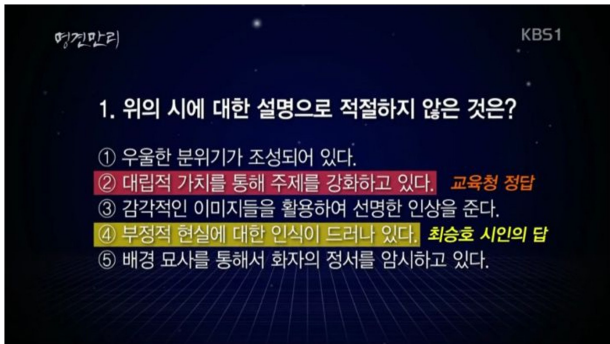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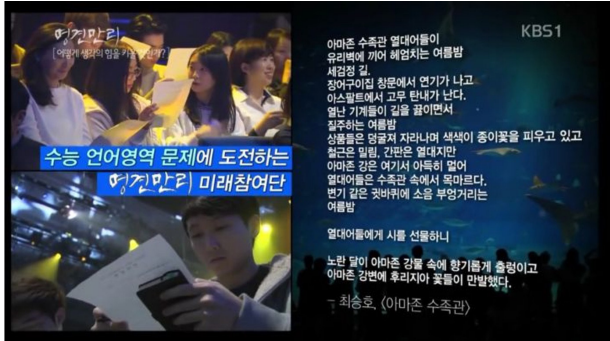
3

문학의 3요소

유기성, 스키마, 배경지식



• **문학이 어려운 이유 2** • **생각해볼거리 : 시에는 답이 있을까?**



선생님, 시에 답이 어디있어요?
보니까 시인도 본인 시가 수능에 나오니까 틀리던데요?

'시(문학)'에는 답이 없지만 '시험'에는 답이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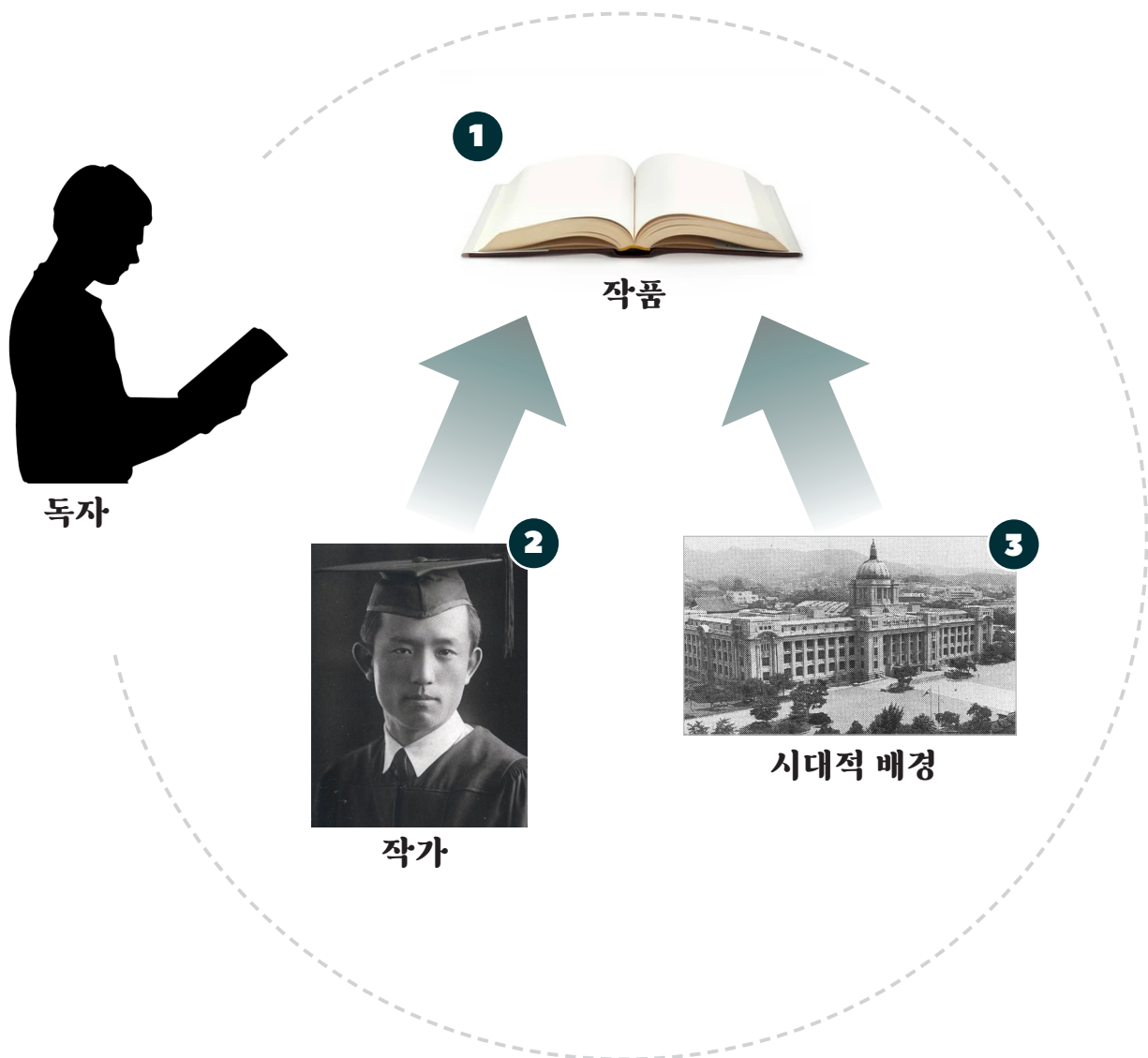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능에서 '시(문학)'에서는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춘 해석의 '정당성'을
물어보는 것이거든!



여기에 어떤 관점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캐치한다.



02 문학의 3관점

내재론적 관점

- 내재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 '시'만 보고 판단하자! 자아와 세계에 대한 설명

이게 뭘로 보여?



옥타비오 캄푸스, forever always

외재론적 관점

- '시' 밖에 있는 것도 생각해보자 → 시대현실, 작가

ex)

《삼국사기》(三國史記)는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며, 삼국 시대의 각국의 흥망과 변천을 기술한 정사체의 역사서이다.



하지만 외재론적 관점을 등원해본다면?



비판점	내용
시대 현실	1. 신라 위주의 서술 신라에 치우친 내용, 고구려와 백제의 기록 부족, 고조선·가야·동예·옥저·삼한(마한, 변한, 진한)·발해 등의 역사가 빠져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비판한다.
작가	2. 작가의 출신 반영 신라의 왕과 귀족들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있으며, 통일 과정에서의 신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실과 관련지어 《삼국사기》가 신라계 문벌 귀족의 신라 계승 의식 표출이라고 보기도 한다.
독자	3. 사대주의적 사서 신채호의 저서 《조선사연구초》 중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 사건〉(묘청의 난)에서 시작된 비판이다. 신채호는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립을 자주와 사대의 대립으로 보아 개경파의 김부식이 승리함으로써 사대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작가

23학년도 6월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시대 상황

24학년도 수능

<보기>

김원전 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내재적 관점

24학년도 6월

<보기>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적용 연습

24학년도 수능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 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등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얹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O/X)
- ㉡ ‘두리기등’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O/X)
- ㉢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O/X)
- ㉣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O/X)
- ㉤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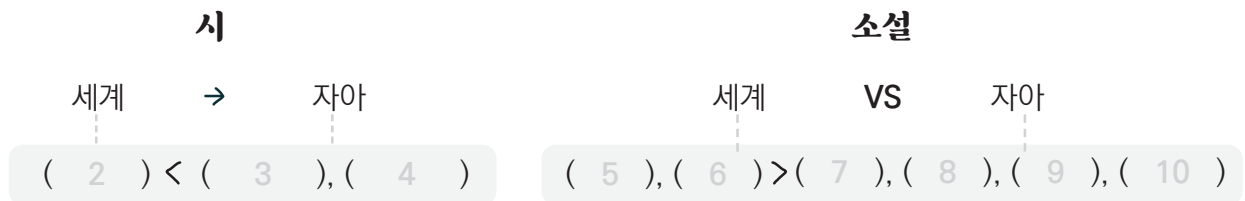
03 단원의 마무리

문학이 어려운 이유 1.

우리는 이제부터 해석된 문학이 아닌 (1)을 공부할 거야.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

① 문학의 본질



② 시는 (12)를 통해 '주제', '시적상황' '정서&태도' 등을 파악한다.
 소설은 ' (13) ' '성격' '갈등' '관계'을 통해 '주제', '상황' 등을 파악한다.

③ 시어의 의미 파악은 (14)를 고려해서 한다.
 인물 파악은 (15)를 고려해서 한다.

문학이 어려운 이유 2.

작품 내부의 논리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1)이라 하고
 (4), (3) 등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것을 외재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문학이 어려운 이유 1. 1.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 / 2. 주제 / 3. 시적 상황 / 4. 정서&태도 / 5. 주제 / 6. 상황 / 7. 인물 / 8. 성격 / 9. 상황 / 10. 갈등 / 11. 관계 / 12. 시어의 의미 / 13. 인물 / 14. 문학의 3요소 / 15. 문학의 3요소

문학이 어려운 이유 2. 1. 내재론적 관점 / 2. 시대현실 / 3. 작가

Chapter 2.

시문학

- 01 문제 유형 분석
- 02 시의 논리와 해석
- 03 개념어 공부
- 04 단원의 마무리



01 문제 유형 분석

2024학년도 수능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견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김종길, 「문」-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러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었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A]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B]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C]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도반 : 함께 도를 닦는 벗.

(다)

나는 이흥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잇는 것은 병이 아니
다. 너는 잇지 않기를 바라느냐? 잇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잇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잇는 것이 도리
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잇어도 좋을 것을 잇
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사람
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잇어서는 안 되는 것
을 잇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
그 말이 옳을까?”

천한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잇어도 좋을 것은
잇지 못하고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릅
다움을 잇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잇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잇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잇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잇지 못하고, 집안
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잇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잇
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잇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잇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
으려는 마음을 잇지 못한다.

그래서 잇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잇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잇어버리며, 부모를
알고서는 슬픔을 잇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
을 잇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잇고, 나아가고 물
러날 때 예의를 잇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잇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잇는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잇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잇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잇고, 몸에서 행동
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잇는다. 내적인 것을 잇기 때문에 외적
인 것을 잇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적인 것을 더더욱 잇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잇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
들이 잇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잇지 못해 재앙
을 내린다. 그러므로 잇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잇어서
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
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잇어도 좋을 것은 잇고 자신의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지 않는다.”

-유한준, 「잇음을 논함」-

● 표현상의 특징 ●

1.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 시적 상황 ●

2.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다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 시어의 의미 ●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⑤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제 & 정서, 태도

5.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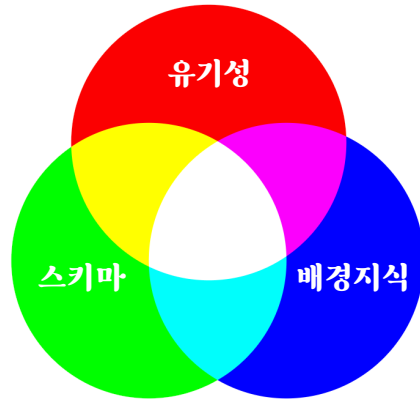
<보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 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 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02 시의 논리와 해석

문학의 3요소



1. 유기성

- 1단계** 제목, 작가부터 보기
- 2단계** 제목과 관련된 것을 Keyword로 설정
- 3단계** Keyword에 대한 설명과 연결짓기

- * 시에서의 암묵적인 약속
- 1. 시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역접'이 없으면 '순접'이다.

2. 스키마

- 같은 말 반대 말 도형치기
- 시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 정리하기
- 나의 배경지식을 활용한다

- * 시에서 중요한 것은 '시어의 의미', '상황', '주제', '정서'이다.

3. 배경지식

-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추가적으로 '똘들이기 워크북' 강의를 들으면서 배경지식을 하나 하나씩 쌓아가자!

부연 설명

***시적 상황** :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해있는 형편

ex) 사랑, 이별, 사별, 부재, 기다림, 걱정, 고민, 시련, 가난, 절망,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모순된 사회, 자연 감상(=강호한정), 철학적 고민

***정서, 태도**: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

• 정서

ex) 기쁨, 희망, 소망, 동경, 사랑, 즐거움, 안도감, 경외감, 애상, 슬픔, 절망, 한, 체념, 갈등, 외로움, 노여움, 안타까움.

• 태도

ex) 예찬, 반성, 성찰, 관조, 달관, 순응, 깨달음, 구도, 냉소, 자조, 풍자, 해학, 의지, 그리움, 연민, 긍정적 태도, 긍정적 전망, 자연 친화적 태도, 회고, 회의, 내적 갈등

이들을 파악하여 주제를 파악한다.

*주제 종류

- 사랑
- 이별
- 그리움
- 죽음
- 가난
- '고향'에 대한 향수
-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 자연 예찬
- 삶에 대한 반성
- 민중의식
-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 참여 및 저항 : 일제 강점기, 독재정권
- 현실 극복의 의지
-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
- 철학적 주제 : 인간적 삶에 대한 고뇌 및 깨달음
- 문학적 아름다움

외우는게 아니다! 이런 종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



<눈길>

고은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大地)의 고백(告白).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寂寞)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2024학년도 수능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등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 문은 상기 달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짝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걸린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달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렇게면 수양의 늘어진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면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A]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B]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
이었을 것이다

[C]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1. (가) ~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O/X)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O/X)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O/X)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O/X)
- ⑤ (가), (나)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O/X)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O/X)
- ② ‘두리기등’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O/X)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O/X)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짝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O/X)
- ⑤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O/X)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O/X)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남’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O/X)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O/X)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O/X)

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대상에 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O/X)
-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O/X)
-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O/X)
-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O/X)
-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O/X)

5.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나)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 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O/X)
- ②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O/X)
- ③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4학년도 9월

(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 ㉠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내려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훑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흔(月暈).

- 박용래, 「월흔」-

* 허방다리 :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나)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닛 담고
㉤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있었다

- 김영랑, 「연 1」-

* 아슴풀하다 : '아슴푸레하다'의 방언.

* 조매롭고 : '조마롭다'의 방언.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 아실아실 : '아슬아슬'의 방언

1. (가) ~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O/X)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O/X)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O/X)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O/X)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낮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O/X)
-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다. (O/X)
-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난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다. (O/X)
- ④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O/X)
- ⑤ '발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풀하
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O/X)
- ② 2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이 '바람 일
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O/X)
- ③ 3연에서 '울다'의 반복과 4연에서 '눈물이 고이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O/X)
- ④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냇'은 '붉은 발자욱'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O/X)
- ⑤ 1연과 4연의 '내 어린 날'은 2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O/X)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O/X)
- ② ㉡: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O/X)
- ③ ㉢: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④ ㉣: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O/X)
- ⑤ ㉣: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O/X)

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
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
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 속 같은 마을'은 알
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
하고 있군. (O/X)
-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
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
고 있군. (O/X)
- ③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이
루어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4학년도 6월

(가)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붙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뱀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뱀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입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나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임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아 되는 날까지
그 솟아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와 ㉠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
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
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
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
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
가 되었다. ㉢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 오규원, 「봄」 -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
여 준다. (O/X)
-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
를 강조한다. (O/X)
-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섹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
한다. (O/X)
-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O/X)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O/X)

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O/X)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O/X)
- ③ 대나무에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O/X)
- ④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O/X)
- 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O/X)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O/X)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O/X)
-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O/X)
-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O/X)

4. <보기>를 참고하여 ㉠ ~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① ㉠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O/X)
- ② ㉡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O/X)
- ③ ㉠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O/X)
- ④ ㉡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O/X)
- ⑤ ㉠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3학년도 수능

(가)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수염을 드리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덩굴을 이룬 **넒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져 아낌없고 받아서 아쉽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영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 없나니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을 알라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에 있거니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나비가 심방 오고 풍뎡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 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벌이 다시 나고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 살을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

-유치환, 「채전(菜田)」-

(나)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A]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B]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C]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D]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E]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덧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F]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나희덕, 「음지의 꽃」-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②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 제재를 바라보는 비판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O/X)
- ③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O/X)
- ④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 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⑤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중심 제재와의 정서적 거리를 부각하고 있다. (O/X)

2. ㉠ ~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채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② ㉡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③ ㉢에서 부정 명령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O/X)
- ④ ㉣에서 사물을 인격화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O/X)
- ⑤ ㉤에서 관념을 시각화하여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O/X)

3. [A] ~ [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O/X)
- ②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O/X)
-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O/X)
- ④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O/X)
-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 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군. (O/X)
- ②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드러내는 경계로,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제시되어 있군. (O/X)
- ③ (가)의 '년출'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군. (O/X)
- ④ (가)의 '그늘'은 만물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배경으로서의,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군. (O/X)
- ⑤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우움을 갖게 하는,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되어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3학년도 9월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연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들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훌 훌 훌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씩아— 한종일내—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A]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B]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C]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D]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E]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F]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X)
-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O/X)
-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다. (O/X)
-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O/X)
-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O/X)

2.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O/X)
- ②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로 볼 수 있다. (O/X)
- ④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찼첩한 산길’과 ‘머언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용시키고 있다. (O/X)
-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O/X)
-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쌌아’, ‘호르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O/X)
-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O/X)

4. [A] ~ [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O/X)
-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O/X)
-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O/X)
-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O/X)
-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3학년도 6월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 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발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 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노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낼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놓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떻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1.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O/X)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O/X)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O/X)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O/X)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O/X)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O/X)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O/X)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O/X)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O/X)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2학년도 수능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처.

[A]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땃목**을 타고
 둔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일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꿈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려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O/X)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에서는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O/X)

2. <보기>를 참고할 때,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O/X)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O/X)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O/X)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O/X)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O/X)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O/X)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O/X)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O/X)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O/X)

4. '목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라'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O/X)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O/X)
- ③ (가)에서 '목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O/X)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O/X)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O/X)

5. <보기>를 참고하여 (가) ~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O/X)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O/X)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2학년도 9월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아마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열리어 뉘뉘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찡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뻗한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은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지손 : 말이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 죽은 사람의 위패.
- * 뒷밥 :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A]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B]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O/X)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O/X)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O/X)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O/X)
- 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O/X)

2.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O/X)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O/X)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O/X)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O/X)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짙짙 울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O/X)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O/X)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O/X)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O/X)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O/X)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O/X)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O/X)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O/X)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2학년도 6월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지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동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1.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O/X)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O/X)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O/X)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O/X)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O/X)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야’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O/X)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O/X)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O/X)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O/X)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03 개념어 공부

1 소통구조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 화자 : 시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화자 없는 시는 세상에 없다!
- 시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 : '나, 우리'

ex)

<p>참회록</p> <p style="text-align: right;">운동주</p> <p>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p> <p>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p> <p>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p> <p>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p> <p>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p>	<p>밀어(密語)</p> <p style="text-align: right;">서정주</p> <p>순이야, 영이야, 또 돌아간 남아. 굳이 잠긴 잿빛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늘가에 머무른 꽃봉오릴 보아라. 한없는 누에실의 울과 날로 짜 늘인 채일을 두른 듯, 아늑한 하늘가에 뺨 비비며 열려 있는 꽃봉오릴 보아라. 순이야, 영이야, 또 돌아간 남아. 저, 가슴같이 따뜻한 삼월의 하늘가에 인제 바로 숨쉬는 꽃봉오릴 보아라.</p>
<p>고향앞에서</p> <p style="text-align: right;">오장환</p> <p>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p> <p>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p> <p>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p> <p>간간이 잣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p> <p>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p>	

개념 2

- 어조(어투) : 화자의 말투
- 정서에 따른 어조 : 낙천, 분노, 희망, 비애, 영탄, 걱정, 그리움 등
- 청자에 대한 태도에 따른 어조 : 명령, 청유, 의문, 기원(소망), 예찬, 순응 등
-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른 어조 : 냉소, 친화, 비판, 동정, 풍자, 해학 등

개념 3

- 청자 : 화자의 말을 듣는 사람

ex)

ㄱ은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니지유예요. ㄷ선생님 덕분에 ㄹ제가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ㄴ저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세요. ㅂ제 친구들은 재수 많이 한다던데, 선생님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요.

- 의인화된 청자 : 동물, 식물, 무생물을 청자로 삼은 경우

ex)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개념 4

• 말을 건네는 어투(=청자가 있는 경우) : 돈호법, 상대높임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흥부 부부(夫婦)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옷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黃金) 벼 이삭이 문제리,
옷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경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딱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옷어 비추던 거울 면(面)들아.

옷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옷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흥부 부부상」

개념 5

- 대화(대화체) : 화자가 2명 이상 있어서, 서로 말을 주고 받음.
- 독백 :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 방백 : 관객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 극에서 만나요.

아배요 아배요 대화(대화체)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배도 알지려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윤사월 보릿고개
아배도 알지려요.
간고등어 한 손이문
아배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여보게 만술아비
니 정성이 엄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도 감응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 굶은 밤이슬이 온다.
박목월, - 만술아비의 축문 -

산(山)새도 날아와/우짚지 않고, 독백
구름도 떠가곤/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빈 골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이며/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개념 6 거리

- 물리적 거리 : 가깝다, 멀다
단위를 알면 도움이 된다. 특히 고전에서 '리'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돌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빙길 예눗다.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 심리적 거리 : 가깝다, 멀다, 일정거리 유지

1. 가깝다 = 호감
2. 멀다 = 비호감
3. 일정거리 유지(=객관적인 태도=대상과 일정거리 유지=관조) :
정서 표현 없이, 묘사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묘사 : 주관적 묘사, 객관적 묘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곳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 *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득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
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허전 <고공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앞 진 사잇
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
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도록 창문은 모과
(木瓜)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老人)은 홀로 잠이 깨어 출
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
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
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溫氣)
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老人)의 자리맡에 받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흘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흔(月暈).

박용래<월흔>

-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괴리감) : 현실과 이상이 서로 반대되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 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나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또 다른 고향>

화자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냇 담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었는데

- 김영랑, 「연 1」 - (2024학년도 9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O X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 김종길, 「문」 - (2024학년도 수능)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O X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 (2020학년도 9월)

이 시의 화자는 '솔나무'이다.

O X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뭇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 김혜순,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 (2021학년도 9월)

이 시의 화자는 '우리'이다.

O X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 정철, 「성산별곡」 - (2024학년도 9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O X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차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앓았구나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24학년도 수능)

이 시의 화자는 '나'이다.

O X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 이현보, 「어부단가」 - (2023학년도 9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O X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냇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2023학년도 6월)

이 시의 화자는 '임'이다.

O X

시적 상황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 김관식, 「거산호 2」 - (2022학년도 수능)

화자는 자연을 감상하고 있다.

O X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
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
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2017학년도 9월)

화자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O X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얽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눌러 납작하게 날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맹이」 - (2020학년도 6월)

화자는 대상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O X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른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 김광균, 「추일서정」 - (2020학년도 6월)

화자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O X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 파서
활수를 끌어 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 있다

- 김득연, 「지수정가」 - (2023학년도 수능)

화자는 '연못'을 보고 일어나는
감상을 말하고 있다.

O X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 박인로, 「소유정가」 - (2023학년도 9월)

화자는 자연물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O X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 박인로, 「소유정가」 - (2023학년도 9월)

화자는 자연물을 감상하고 있다.

O X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깊고 아이는 발을 가니
뒷 뒹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 황희, 「사시가」 - (2023학년도 6월)

화자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풍류를 즐기고 있다.

O X

정서/태도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 윤동주, 병원 - (2017학년도 9월)

'여자'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얼고.

- 김혜순,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 (2021학년도 9월)

화자는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X**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서 있곤 했다

- 이시영, 마음의 고향2 - 「그 언덕」 - (2021학년도 수능)

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 X**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2023학년도 9월)

자연물로 인해 화자의 정서가 촉발되고 있다. **O X**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랴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모습하랴

- 이황, 「도산십이곡」 - (2023학년도 수능)

화자는 달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X**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정훈, 「탄궁가」 - (2022학년도 수능)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풍류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 X**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 허난설헌, 「규원가」 - (2022학년도 9월)

화자는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영탄적 태도를 보인다. **O X**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 이현보, 「어부단가」 - (2023학년도 9월)

화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X**

어조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 김영랑, 「연 1」 - (2024학년도 수능)

화자는 영탄적 어조를 보이고 있다. **O X**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맹이 위에 얹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맹이」 - (2020학년도 6월)

관조적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X**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2020학년도 6월)

화자는 걱정적인 어조를 보이고 있다. **O X**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김종길, 「문」 - (2024학년도 수능)

상황에 대한 체념적 어조를 보이고 있다. **O X**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둔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 조우인, 「자도사」 - (2023학년도 6월)

화자는 반성적 어조로
과거의 일을 돌아보고 있다. **O X**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 정철, 「성산별곡」 - (2024학년도 9월)

화자는 자연에 대한 예찬적 어조를 보이고 있다. **O X**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텐들 어떠리

- 권호문, 「한거십팔곡」 - (2024학년도 6월)

화자는 단정적 어조로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O X**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2023학년도 9월)

화자는 성찰적 어조로
충효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O X**

청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 김수영, 「사령(死靈)」 - (2021학년도 9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다. O X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2018학년도 6월)

이 시의 청자는 '어머님'이다. O X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류저류 글 읽으셨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2019학년도 수능)

구체적인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O X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옆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2022학년도 9월)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O X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시대 종이 종다
 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
 러만 주소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2024학년도 9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풍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 X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24학년도 수능)

명령형 어미를 통해 청자에게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O X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 유박, 「화암구곡」 - (2024학년도 수능)

청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 O X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싸리골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
 민둥산 고비 고사리 다 늙었지마는
 이 집에 정든 임 그대는 늙지 마세요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정 들이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 「정선 아리랑」 중에서 - (2016학년도 6월)

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O X

말을 건네는 어투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 날로 가자

- 신동엽, 「향아」 - (2023학년도 6월)

화자는 돈호법을 통해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O X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 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2023학년도 9월)

청유형 종결어미를 통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O X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 신경림, 「길」 - (2023학년도 9월)

말을 건네는 어투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2021학년도 6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문맥을 환기한다.

O X

연하(烟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벼를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 이황, 「도산십이곡」 - (2023학년도 수능)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통해 자연과의 합일 의지를 드러낸다.

O X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니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니 말 잊지 말고 웨워터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워 갈 제 적막 공귀(空闕)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차마 못 살네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 작자 미상 - (2016학년도 6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속세에서의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O X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 「정선 아리랑」 중에서 - (2016학년도 6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가 바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O X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 하여 놓고 쌍비목 외결새에 용거복 주물쇠로 수기수기 잠갸터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 작자 미상 - (2016학년도 6월)

화자는 말을 건네는 어투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O X

대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다음 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 더 자야 한단다

- 김종철, 「만나는 법」

대화를 통해 시상이 전개된다.

O X

아빠요 아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빠도 알지러요.
등잔불도 없는 계상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윤사월 보리고개
아빠도 알지러요.
간고등어 한손이른
아빠 소원 풀어 드리련만
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여보게 만술아비
니 정성이 엄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도 감응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는 굶은 밤이슬이 온다.
- 박목월, 「만술아비의 축문」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O X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
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2017학년도 6월)

'산'과의 대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O X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2020학년도 수능)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며 시상이 전개된다.

O X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떡덤편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2014학년도 6월)

대화의 형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X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입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탄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받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 (2014학년도 6월)

대화의 형식을 통해 화자가 예전에 알던 인물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O X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 정철, 「성산별곡」 - (2024학년도 9월)

대화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 가흥(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
으리
- 이황, 「도산십이곡」 - (2023학년도 수능)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X

독백/방백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 조지훈, 「맹세」 - (2024학년도 6월)

독백체를 사용해
화자의 격정적 태도를 표현한다. O X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뉘 담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있었다
- 김영랑, 「연 1」 - (2024학년도 9월)

독백을 통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O X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2018학년도 6월)

화자는 독백체를 통해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O X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2018학년도 9월)

독백체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다. O X

최 행수 축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닭짐 게짐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2022학년도 6월)

독백을 통해 화자의 근심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O X

이런들 어찌하며 저런들 어찌하랴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찌하랴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모습하랴
- 이황, 「도산십이곡」 - (2023학년도 수능)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O X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텐들 어찌리
- 권호문, 「한거십팔곡」 - (2024학년도 6월)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O X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요냐
- 허난설헌, 「규원가」 - (2022학년도 9월)

독백체와 대화체의 교차를 통해
극적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O X

물리적 거리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 나희덕, 「음지의 꽃」 - (2023학년도 수능)

'우리'는 가까운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고 있다. O X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2021학년도 수능)

화자는 '너'와의 물리적 거리를 가지고 있다. O X

먼 산정에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화자는 대상과 물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 O X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서 있
 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 박목월, 「나무」 - (2017학년도 9월)

화자는 '그들'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면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O X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갈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언 - (2014학년도 수능)

'님'에 대한 그리움이
 물리적 거리로 형상화되고 있다. O X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關)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라
 - 이현보, 「어부단가」 - (2010학년도 9월)

'북궐'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좌절감을 보이고 있다. O X

뒤편에 새 다 굵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냇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 황희, 「사시가」 - (2023학년도 6월)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O X

비 시여 서근 집을 누라서 곳쳐 이며
 옷 버서 문혀진 담 누라서 곳쳐 쏘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누라서 힘써 홀고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2016년 수능)

가까운 곳에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존재가 있다. O X

심리적 거리

들짚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맹이 위에 얹힌다

- 오규원, 「하늘과 돌맹이」 - (2020학년도 6월)

시적 대상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

O X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 기형도, 「전문가」 - (2023학년도 6월)

화자는 '그'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O X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 김관식, 「거산호 2」 - (2022학년도 수능)

화자와 '산'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O X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나비가 심방 오고 풍뎡이가 찾아오고 잠
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 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다시 나고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
에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
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

- 유치환, 「채전(菜田)」 - (2023학년도 수능)

화자는 '손님들'과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O X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 윤선도, 「만흥(漫興)」 - (2021학년도 9월)

화자는 '뒀'와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O X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흘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2022학년도 6월)

화자는 자연과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O X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 (2022학년도 9월)

화자는 '잎'과 '짐승'에게 의지하며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O X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떼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허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뭍을 두는고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화자는 '백구'와
심리적 거리를 떨어뜨리고 있다.

O X

묘사

초라한 경력을 욕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2022학년도 6월)

‘불꽃’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O X**

곱아라 곱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2018학년도 6월)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O X**

아랫넷가 굵이치던 물길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별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허리 굽은 논실댁과 그의 딸 여자 영숙이 순임이가
발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넷가에 소고뺨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 (2021학년도 수능)

‘그곳’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O X**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곱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 오장환, 「종가」 - (2022학년도 9월)

화자가 지향하는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O X**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댄들 어떠리
- 권호문, 「한거십팔곡」 - (2024학년도 6월)

영탄적 어조로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O X**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쫓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입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조우인, 「자도사」 - (2023학년도 6월)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O X**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열린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별 만하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24학년도 수능)

배가 출항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위에 노송이 용이 되어 구부러 누웠거늘
운근(雲根)을 베어 내고 작은 정자 붙여 세워
띠 풀로 지붕 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이의 와룡암인가
다시금 살펴보니 필경 위언의 그림의 것이로다
무릉도원을 예 듣고 못 봤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 김득연, 「지수정가」 - (2023학년도 수능)

주변 풍경의 모습을 묘사하며 화자의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낼
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
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애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넷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2023학년도 6월)

화자는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느끼고
'마음밭'이라는 이상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O X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손을 사양하라.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2021학년도 6월)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으로 인한
자아 성찰이 드러난다.

O X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의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
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2019학년도 6월)

화자는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느끼고
'꽃'이 되고자 한다.

O X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2021학년도 9월)

화자는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반성을 보이고 있다.

O X

운근(雲根)을 베어 내고 작은 정자 붙여 세워
띠 풀로 지붕 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이의 와룡암인가
다시금 살펴보니 필경 위언의 그림의 것이로다
무릉도원을 예 듣고 못 봤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 김득연, 「지수정가」 - (2023학년도 수능)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 X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 황희, 「사시가」 - (2023학년도 6월)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으로 인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누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של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호노라

- 이정환, 「비가(悲歌)」 - (2018학년도 수능)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O X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 허난설헌, 「규원가」 - (2022학년도 9월)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O X

Step 3. 스스로 정리하기



03 개념어 공부

2 운율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외형률, 내재율

운율 없는 시는 세상에 없다!

- **외형률** : 겉으로 운율이 드러나는 것
 - 음보율: 끊어 읽기 단위를 일정하게 하는 것. 3음보, 4음보.
 - 음수율: 글자수를 일정하게 하는 것. 7 5조(=3 4 5조), 3 4조. (단 +-1음절)

* 외형률은 문학 장르와 결부되기 때문에 장르별 특징을 암기해야 한다.

- 3음보-7.5조(3 4 5조)-고려가요, 민요
- 4음보- 3 4조 - 시조, 가사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당 두래당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리노라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작자미상 <청산별곡>

접동 /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 와서 읊니다.
 옛날, 우리나라 /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랴 / 오오 불설위*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흠이나 남아 되는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읊아가며 슬피 읊니다.
 -김소월, 「접동새」

저희마다 여름 지어 가암여리 사던 것슬,
 요사이 고공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 사발 크나 야그나 동옷시 죠코 즘나,
 마음을 닦호는 듯 호슈를 새오는 듯,
 무삼 일 감드러 흘긱할긱 하나산다.
 너희네 일 아니코 시절(時節) 좃차 사오나와,
 갖득의 내 세간이 풀리지게 되야난데,
 엇그제 화강도(火强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붓고 먹을 것시 전혀 업다.
 큰나큰 세사를 엇지하여 니로려료.
 김가(金哥) 이가(李哥) 고공들아 새 마음 먹어슬라.
 허전<고공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끊나니.
 이순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 **내재율** : 문장에 잠재적으로 운율이 깃들어 있는 것. 주로 반복을 통해서 나타난다.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트 흙담집, 겨울 헤어름의 집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매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터밭에 나갔다 팔매질당한 다리 병신 오리를 잡는다.
 -최두석, 「낮은 집」

개념 2 반복

- 시어·시구·시행의 반복
- 통사구조의 반복 : 조사와 어미가 유사한 경우
- 대구법 : 통사구조의 반복 + 연달아 나오는 경우

* 꼭 '유사한'인지 '동일한'인지 확인하세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寢)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같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볼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머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외형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2024학년도 수능)

일정한 음보율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낸다. ○ X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 김기림, 「연륜」 - (2022학년도 6월)

비유를 통해 외형률을 드러내고 있다. ○ X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 김혜순,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 (2021학년도 9월)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외형률이 드러나 있다. ○ X

감각의 낮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 김영랑, 「청명」 - (2020학년도 9월)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X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空山) 측루(側廡)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

- 조위, 「만분가」 - (2019학년도 6월)

3음보의 전통적 율격 체제를 따르고 있다. ○ X

피에는 새 다 긁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납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 황희, 「사시가」 - (2023학년도 6월)

일정한 음보율을 지키며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X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료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모름하료

- 이황, 「도산십이곡」 - (2023학년도 수능)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낸다. ○ X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2017학년도 6월)

여음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드러낸다. ○ X

내재율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레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 오규원, 「봄」 - (2024학년도 6월)

시어의 반복을 통해 내재율을 드러내고 있다. **O X**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땀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꾸나

- 신동엽, 「향아」 - (2023학년도 6월)

특정한 시어가 반복되며 내재율을 형성한다. **O X**

지금도 종가 뒤편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뻗한 달 갈퀴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 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2022학년도 9월)

내재율을 통해 시의 운율감을 조성한다. **O X**

수염을 드리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에 텃밭을 이룬 넉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쉽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영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 없나니

- 유치환, 「채전(菜田)」 - (2023학년도 수능)

이 시에서는 운율이 드러나지 않는다. **O X**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먼 산 두메로 핑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종 갈기 솔길 활활 살살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팡팡쌍쌍 박아 승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 작자 미상, 사실시조 - (2024학년도 9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O X**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曾參) 되자더니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2018학년도 9월)

같은 음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낸다. **O X**

청천(靑天)에 떠서 올고 가는 외기리기 날지 말고 니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니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위 갈 제 적막 공규(空闕)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저 님 그려 추마 못 살네라 호고 부디 한 말을 전후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밧비 7웁는 길이오매 전홀동 말동 후여라

- 작자 미상, 사실시조 - (2016학년도 6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O X**

어이 못 오턴다 무슨 일로 못 오턴다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 하여 놓고 쌍비목 외결새에 용거복 주물쇠로 수기수기 잠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턴다

훈 돌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라

- 작자 미상, 사실시조 - (2016학년도 6월)

비슷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O X**

반복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수풀이 호르르
 벌레가 호르르르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짓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 김영랑, 「청명」 - (2020학년도 9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나타낸다. **O X**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 김수영, 「사령(死靈)」 - (2021학년도 9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나타낸다. **O X**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떠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2019년 수능)

특정한 시행의 반복으로 운율을 조성한다. **O X**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닳던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 박재삼, 「추억에서」 - (2019학년도 9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드러낸다. **O X**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하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2019학년도 6월)

여음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표현한다. **O X**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갯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각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한다. **O X**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 김광욱, 「울리유곡(栗里遺曲)」 - (2022학년도 6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드러낸다. **O X**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 윤선도, 「만흥(漫興)」 - (2021학년도 9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낸다. **O X**

통사 구조의 반복

황홀한 음지의 꽃이어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2023학년도 수능)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한다.

O X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지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2018학년도 6월)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한다.

O X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
써 스스로를 족할 줄을 알라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
의 화합에 있거니

- 유치환, 「채전(菜田)」 - (2023학년도 수능)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
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
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 오규원, 「봄」 - (2024학년도 6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조성한다.

O X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 위백규, 「농가(農歌)」 - (2016학년도 6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한다.

O X

다시금 살펴보니 필경 위언의 그림의 것이로다
무릉도원을 예 듣고 못 봤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 김득연, 「지수정가」 - (2023학년도 수능)

통사 구조의 반복이 드러난다.

O X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 유박, 「화암구곡」 - (2024학년도 수능)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O X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 조우인, 「자도사」 - (2023학년도 6월)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나타낸다.

O X

대구법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 기형도, 「전문가」 - (2023학년도 6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 X**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 김종길, 「문」 - (2024학년도 수능)

대구의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나타낸다. **O X**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2020학년도 수능)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드러낸다. **O X**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2024학년도 수능)

대구를 통해 운율감을 조성한다. **O X**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顏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 정훈, 「탄궁가(嘆窮歌)」 - (2016학년도 9월)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O X**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냐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 권호문, 「한거십팔곡」 - (2024학년도 6월)

대구를 통해 부드러운 운율감을 형성한다. **O X**

칩칩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요
뽀뽀한 소나무는 전후의 울타리로드

- 김득연, 「지수정가」 - (2023학년도 수능)

대구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을 감상하고 있다. **O X**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 정철, 「성산별곡」 - (2024학년도 9월)

대구적 표현을 통해
대비되는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O X**

Step 3. 스스로 정리하기



03 개념어 공부

3 이미지

Step 1. 개념 강의

개념 1 이미지

- **이미지(Image)=심상(心像)** :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양이나 느낌
ex) 닭가슴살, 헬스장, 사랑

개념 2 감각적 이미지, 추상적 이미지

- **감각적 이미지** :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경우
=구체적=객관적 이미지
ex) 수박, 군인
- **추상적 이미지** :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경우
=관념적 이미지
ex) 사랑, 국가
- **추상(관념)의 구체화** :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구체적)으로 전이(轉移)하여 표현한 것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
이다.

곽재구 <은행나무>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문정희 <질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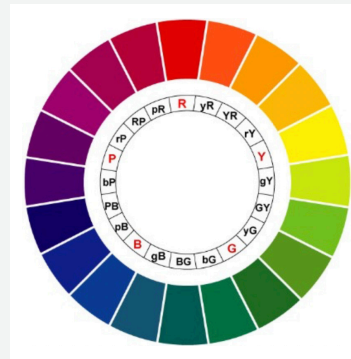
개념 3 색채 이미지

- **색채 이미지** :
색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 암기의 영역이다.
ex) 낙엽, 불꽃, 노을, 장미꽃, 녹양방초(綠楊芳草)
cf. 색채어: 색을 지칭하는 말
ex) 빨주노초파남보



낙엽

20색상환



개념 4 수직적 이미지, 수평적 이미지

- 수직적 이미지 : 좌 우로 뻗어있는 이미지
- 수평적 이미지 : 위 아래로 뻗어있는 이미지
ex) 천심절벽 섰난 아래 일대 장강 흘러간다.

개념 5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 상승 이미지 :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
ex) 하늘 위로 올라가는 노고지리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 하는가
- 하강 이미지 : 아래로 내려가는 이미지
ex) 폭포는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진다.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개념 6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 동적 이미지(=역동적 이미지) : 움직이는 이미지
- 정적 이미지 : 정지해 있는 이미지
ex)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빈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개념 7 공감각적 이미지

- 공감각적 이미지 : 말이 안되면서, 감각적 이미지의 종류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cf. 복합 감각
ex)
- 눈 덮인 철길은 더욱 싸늘하였다. Vs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 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개념 8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

• 흑백 대비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을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오세영 <자화상2>

• 명암의 대비

ex)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어오른다.

• 냉온 대비

ex)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부비는 것이다.

• 색채의 선명한 대조 : 보색대비X, 색채어 1개 이상 있으면서 다른 계열의 색이 있는 경우.

ex)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

감각적 이미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2021학년도 6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O X**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2022학년도 수능)

청각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한다. **O X**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2021학년도 6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O X**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
 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
 었다.

- 김종길, 「문」 - (2024학년도 수능)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고조시키고 있다. **O X**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찌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황희, 「사시가」 - (2023학년도 6월)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가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O X**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 박인로, 「소유정가」 - (2023학년도 9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 주세붕, 「오륜가」 - (2018학년도 6월)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험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물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 - (2022학년도 수능)

화자의 서러움을 청각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O X**

추상적 이미지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2020학년도 수능)

추상적 관념에 대한 성찰보다
구체적 대상 묘사가 중심으로 드러난다.

O X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적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산길’이라는 추상적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O X

봄은 자유다. 자 바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
이가 되었다.

- 오규원, 「봄」 - (2024학년도 6월)

추상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O X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
날로 가자

- 신동엽, 「향아」 - (2023학년도 6월)

‘옛날’이라는 추상적 이미지를 지향하고 있다.

O X

그때에 이별 별(別) 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 년 대원수로다
깨치리로다 깨치리로다 박랑사 중 쓰고 남은 첩퇴로
천하장사 항우 주어 이별 두 자를 깨치리로다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2018학년도 9월)

관념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O X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냐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 권호문, 「한겨십팔곡」 - (2024학년도 6월)

추상적 관념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O X

송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울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2017학년도 수능)

관념적 공간에 대한 지향이 드러난다.

O X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득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24학년도 수능)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추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O X

색채 이미지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 김영랑, 「연 1」 - (2024학년도 9월)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O X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
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2023학년도 6월)

색채어를 통해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O X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넌
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
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치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2023학년도 6월)

다양한 색채어를 통해 이상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 X

수수알이 팡팡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아랫넷가 굽이치던 물길에 옆구리를 들이받아
별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 (2021학년도 수능)

색채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O X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24학년도 수능)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드러낸다.

O X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 권호문, 「한거십팔곡」 - (2024학년도 6월)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다.

O X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 이현보, 「어부단가」 - (2023학년도 9월)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탈속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O X

곳 피여 너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뱃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 정극인, 「상춘곡」 - (2020학년도 9월)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풍류적 생활상을 강조하고 있다.

O X

상승 이미지

은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2015학년도 9월)

상승 이미지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X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구나.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2021학년도 6월)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O X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 김기택, 「새」 - (2020학년도 수능)

상승 이미지로
‘새’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O X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2018학년도 수능)

상승 이미지를 통해
‘혈망봉’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O X

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무늬껏 솟아올라
그을 돌 불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리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 조위, 「만분가」 - (2019학년도 6월)

상승 이미지를 통해 임에게 달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O X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봐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헌사도 헌사할사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상승 이미지를 통해 자연현상에서
그리움의 대상을 연상하고 있다. O X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졌구나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 안민영, 「매화사」 - (2014학년도 9월)

상승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부재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O X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갯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눅힐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나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상승 이미지를 통해
‘혈망봉’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O X

하강 이미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 김기림, 「연륜」 - (2022학년도 6월)

하강 이미지로 '서른 나문 해'를 묘사하고 있다. **O X**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2019학년도 6월)

하강 이미지를 통해 '사내'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O X**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2018학년도 수능)

하강 이미지를 통해 '계집애'가 처한 현실을 묘사한다. **O X**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2022학년도 6월)

하강 이미지로 이상향을 드러내고 있다. **O X**

서산에 돌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발이 우거졌던고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 위백규, 「농가」 - (2022학년도 수능)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강조한다. **O X**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 정철, 「성산별곡」 - (2024학년도 9월)

하강 이미지를 통해 어지러운 풍속을 교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 X**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 박인로, 「소유정가」 - (2023학년도 9월)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교차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O X**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양대(陽臺)에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2015학년도 수능)

하강 이미지를 통해 임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을 제시하고 있다. **O X**

정적 이미지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칩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밎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2017학년도 6월)

정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O X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등긋이 차고 넘치노나.

쫄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 정지용, 「달」 - (2018학년도 9월)

정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결핍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갯 속 같은 마을. 풀깎,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 박용래, 「월훈」 - (2024학년도 9월)

정적 이미지를 통해 작품 분위기를 형성한다.

O X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 김관식, 「거산호 2」 - (2022학년도 수능)

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대상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다.

O X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24학년도 6월)

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O X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잡을 데 없으시면 삼단같이 좋은 머리를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2018학년도 9월)

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O X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 이현보, 「어부단가」 - (2023학년도 9월)

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세속적 가치를 잊고
자연에 귀의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O X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淸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 김시습, 「유객(有客)」 - (2022학년도 6월)

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X

동적 이미지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 김광균, 「추일서정」 - (2020학년도 6월)

동적 이미지를 통해
생기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2019학년도 수능)

역동적인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O X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폰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 배한봉, 「우포늪 왁새」 - (2019학년도 6월)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의 교차를 통해
시상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O X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며
강물 위에 짙짙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 (2020학년도 9월)

동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O X

만이천봉을 넉넉(歷歷)히 허여 하니
봉마다 멧쳐 있고 곳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동적 이미지를 통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O X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 이현보, 「어부단가」 - (2023학년도 9월)

자연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O X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옮겨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쭈 하나니

- 작자 미상 - (2022학년도 9월)

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O X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뚝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윈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24학년도 수능)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O X

공감각적 이미지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2021학년도 6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O X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2018학년도 9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O X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김광균, 「와사등」 - (2015학년도 6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O X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 김광균, 「추일서정」 - (2020학년도 6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 X

대비

떠엄 떠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 이육사, 「초가」 - (2022학년도 수능)

색채 대비를 통해 시상을 고조시킨다. ○ X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2024학년도 수능)

명암 대비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X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 김종길, 「문」 - (2024학년도 수능)

색채 대비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 X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 전봉건, 「사랑」 - (2016학년도 9월)

빛과 어둠의 대비가 드러난다. ○ X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 이현보, 「어부단가」, <제 2수> - (2023학년도 9월)

초장과 중장이 서로 대비되어 화자가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음을 표현한다. ○ X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2022학년도 6월)

화자가 돌아온 공간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된다. ○ X

잠간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2023학년도 9월)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와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면서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불만감을
표출한다. ○ X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루실사
인간 만수(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두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후시도다
- 윤선도, 「만흥(漫興)」 - (2021학년도 9월)

'인간 만수(人間萬事)'와 '강산(江山)'의
대비를 통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X

추상의 구체화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수염을 드리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덤불을 이룬 넉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 유치환, 「채전(菜田)」 - (2022학년도 수능)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다. **O X**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연 생각에 잠겨 왔더니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2023학년도 9월)

청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O X**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이 되는 날까지
그 솟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 조지훈, 「맹세」 - (2024학년도 6월)

추상의 구체화를 통해 화자의 굳건한 의지를 드러낸다. **O X**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2019학년도 6월)

추상적 관념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O X**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돌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더리
긴허쑤 아즐가 긴허쑤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더리
즈믄 히를 아즐가 즘믄 히를 외오곰 녀신돌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2019학년도 6월)

구체적 대상을 통해 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O X**

훈(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고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 조위, 「만분가」 - (2019학년도 6월)

화자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뿌리'와 '가지'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O X**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은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2022학년도 6월)

관념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감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O X**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득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24학년도 수능)

화자의 불안한 심리가 '물결'로 시각화되어 나타난다. **O X**

Step 3. 스스로 정리하기



03 개념어 공부

4 비유와 상징

Step 1. 개념 강의

개념 1 비유

딱 3개만 외우자



- **직유** : 언어 매개를 통해 직접 비유
ex) ~처럼, 같은, 인양, 듯이
- **은유** : 언어 매개 없이 은근히 비유
ex) 내 마음은 호수요 (김동명-내 마음은) 원관념: 내 마음 / 보조관념: 호수
침대는 과학입니다 원관념: 침대 / 보조관념: 과학
- **의인(활유법 포함)** :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는 것
ex)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1. 직유법(直喩法, simile)

2. 은유법(隱喩法, metaphor)

2.1. 암시적 은유(暗示的隱喩)

3. 대유법(代喩法)

3.1 환유법(換喩法)

3.2 제유법(提喩法)

3.3 환칭법(換稱法)

4. 풍유법(諷喩法)

5. 의유법(擬喩法)

5.1. 활유법(活喩法)

5.2. 의인법(擬人法)

5.3. 의성법(擬聲法)

5.4. 의태법(擬態法)

6. 중의법(重義法, double entendre)

7. 약유법(略喩法, trope)

8. 기타 비유

8.1. 오어법(誤語法)

8.2. 사유(死喩)

개념 ② 상징

환원될 수 있는 것. 비유와 구별하지 마라!

- **제유법, 환유법**
- **개인적 상징** : 시인이 만들어낸 상징
- **관습적 상징** : 역사적, 관행적으로 굳어진 상징. 암기의 영역 (특히 고전시가).
ex) 십자가 → 기독교, 비둘기 → 평화

개념 ② 상징

- **감정이입** : 시적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넣는 '표현기법'.
시적 대상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한다. 주로 의인법이 있는 경우.
- **객관적 상관물** : 화자의 감정을 환기 하는 '대상',
즉, 감정이입이 된 '대상', 화자의 감정 및 상황과 대비되는 '대상'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엿부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네어 사창(紗窓) 여윈
잠을 살뜰리도 깨오는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 이는 너 뿐인가 하노라.
<귀뚜리 저 귀뚜리>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강가에
혼자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이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정철 <속미인곡>

직유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 김영랑, 「청명」 - (2020학년도 9월)

직유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O X**

깊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김광균, 「추일서정」 - (2020학년도 6월)

직유법을 통해
'넥타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O X**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 이육사, 「초가」 - (2022학년도 수능)

직유법을 통해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O X**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
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 오장환, 「종가」 - (2022학년도 9월)

직유를 통해 '지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냐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 권호문, 「한겨십팔곡」 - (2024학년도 6월)

직유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O X**

일곡은 어디미오 관암에 히비췌다
평무(平蕪)에 니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노 양 보노라
- 이이, 「고산구곡가」 - (2020학년도 9월)

직유를 통해 화자의
자연친화적 태도가 드러난다. **O X**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너 내어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직유를 통해 화자의 탈속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 X**

어와 이 청경(淸景) 감시 이실 거시련들
적막히 다든 문에 내 분으로 드러오라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2020학년도 수능)

직유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에 느끼는
자족감을 표현한다. **O X**

은유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슬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 이육사, 「초가」 - (2022학년도 수능)

은유를 통해 부끄러움의 정서를 드러낸다. **O X**

수수려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 신동엽, 「향아」 - (2023학년도 6월)

은유를 통해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O X**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 김영랑, 「청명」 - (2020학년도 9월)

'이슬'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O X**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021학년도 6월)

'나무'를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X**

실가티 플터 이서 베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은유적 표현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O X**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 허난설헌, 「규원가」 - (2022학년도 9월)

은유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O X**

침침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요

뻑뻑한 소나무는 전후의 울타리로다

구곡 상하대는 층층이 둘러 있고

삼경(三逕) 송국죽(松菊竹)은 줄지어 벌여 있다

- 김득연, 「지수정가」 - (2023학년도 수능)

은유를 통해 자신이 감상한 자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한다. **O X**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녀 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화룡소'를 '노룡'에 은유하며 풍경에 대한
화자의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O X**

의인

고요하고 너그러운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 김관식, 「거산호 2」 - (2022학년도 수능)

의인화를 통해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O X**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 고재종, 「초록 바람의 전언」 - (2020학년도 9월)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O X**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나비가 심방 오고 풍뎡이가 찾아오고 잠
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 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별이 다시 나고

- 유치환, 「채전(菜田)」 - (2023학년도 수능)

사물을 의인화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O X**

수풀이 흐르르 별레가 흐르르르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찾아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 김영랑, 「청명」 - (2023학년도 9월)

의인화된 화자가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 X**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었디어서 말씀을 여쭙오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24학년도 수능)

의인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다. **O X**

봄마다 맏쳐 있고 곳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인간상을 드러내고 있다. **O X**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다를소나

- 정극인, 「상춘곡」 - (2020학년도 9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풍류적 상황을 드러낸다. **O X**

창(窓) 밧긔 십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긔득 냉담(冷淡)헌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돌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2021학년도 수능)

자연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그리움을 임에게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O X**

상징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 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당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낼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치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2023학년도 6월)

이 시에서 '향'은 순수한 존재를 상징한다. O X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2021학년도 수능)

이 시에서 '눈'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을 상징한다. O X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2022학년도 수능)

이 시에서 '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인간상을 상징한다. O X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2020학년도 수능)

이 시에서 '새'는 자유를 상징한다. O X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 주세붕, 「오륜가」 - (2018학년도 6월)

'젓'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O X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 이현보, 「어부단가」 - (2023학년도 9월)

'십장 홍진'은
 속세를 상징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O X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꺾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2022학년도 6월)

'살구꽃'은 임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나타난다. O X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늪들은 은논다 혼다마논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 윤선도, 「만흥(漫興)」 - (2021학년도 9월)

'뛰집'은 속세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O X

감정이입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을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 김광균, 「와사등」 - (2015학년도 6월)

시적 대상에 화자의 심리를 투사하여 드러내고 있다.

O X

허리 굽은 눈실택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발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냇가에 소고뻬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 (2021학년도 수능)

시적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고 있다.

O X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2020학년도 수능)

'바람'에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O X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앞음새 같히여
양지 쪽에 쫓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정지용, 「조찬(朝餐)」 - (2015학년도 수능)

화자의 애상적 감정이 '새'에 투영되어 있다.

O X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 권호문, 「한거십팔곡」 - (2024학년도 6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O X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 허난설헌, 「규원가」 - (2022학년도 9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답답함을 나타낸다.

O X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2022학년도 6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가 느끼는 안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O X

황혼의 돌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 정철, 「사미인곡」 - (2021학년도 수능)

'돌'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O X

객관적 상관물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 김영랑, 「연 1」 - (2024학년도 수능)

'실날'에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O X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시적 상황에 화자의 감정이 투사되어 있다. O X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맹이 위에 앉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맹이」 - (2020학년도 6월)

화자는 자신의 만족감을 자연물에 투사하여 드러내고 있다. O X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 기형도, 「전문가」 - (2022학년도 수능)

화자는 '유리를 깬 아이'에게 자신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다. O X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려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 정훈, 「탄궁가」 - (2022학년도 수능)

'쥐'에 감정을 투영하며 화자의 곤궁한 상황을 드러낸다. O X

피에는 새 다 굶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낚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 황희, 「사시가」 - (2023학년도 6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며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O X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 이현보, 「어부단가」 - (2023학년도 9월)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여 달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X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넋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2023학년도 6월)

'자규'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O X

Step 3. 스스로 정리하기



03 개념어 공부

5 시상 전개 방식

Step 1. 개념 강의

개념 1 시간

- **시간** : 시공간적 배경에 ☆친 것을 중심으로 보면 된다.
- **시간의 경과** : 전체적으로 시간의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있는 경우
ex) 대표적인 시간의 경과
(1) 밤낮의 변화: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경우.
(2) 계절적 변화: 시의 시간적 배경이 계절 단위로 바뀐다.

하이얀 모색(募色) 속에 피어 있는
산협촌(山峽村)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아란 역등(驛燈)을 달은 마차(馬車)가 한 대
잠기어 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룻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電信柱) 위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김광균 <외인촌>

正月(정월) ㅅ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하는데.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하올로 널셔.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 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燈(등)人불 다
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한 아으 滿春(만춘) 달윗고
지어.
나매 브를 즈슬 디더 나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작자미상 <동동>

개념 2 회상

- **회상** : 현재-(과거)-현재, jump!
주로 갑작스럽게 시작되거나 인물의 대화나 상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물의 성격, 동기, 감정의 변화 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놓고 싶습니다.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개념 3 역순행적 구성

• **역순행적 구성** : 현재-과거 → 현재

독자는 이야기의 결말을 먼저 보고,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차례차례 알아가게 된다. 긴장감을 높이고,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쉼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평도 쉴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

개념 4 공간

• **공간** : 시공간적 배경에 ☆친 것을 중심으로 보면 된다.

화자가 있는 공간이 변화하는지 아니면, 단지 공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인지 시선의 이동이 있는지를 확인 할 것!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들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것은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 보름달은 밝아 어떤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따위야
 아예 어떤네이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신경림 <농무>

cf.

머인 산 청운사(淸雲寺)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
 붉은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 가는 열두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박목월, 「청노루」

개념 6 시선의 이동

1. 화자가 시선을 좌우↔, 위아래↕, 원경,  근경,  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를 전개하는 경우

*원경: 희미하게, 전체적인, 작게

*근경: 분명하게, 부분적인, 크게

2. 선경후정: 화자가 외부 정경을 묘사하다가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옮기는 경우

cf. 묘사: 주관적 묘사, 객관적 묘사

햇살 피어
이윽한 후,

머플머플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들부리
축 축 죽순 돋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얹음새 같히여
양지 쪽에 쫓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정지용 「조찬(朝餐)」

개념 7 대상에 대한 관찰

- 관찰 VS 생각(추측, 판단 등)인지 확인하라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박목월 <산도화>

개념 8 수미상관

- 수미상관=수미쌍관, 수미상응
 - 시의 처음과 끝 부분에 같은 내용의 구절이 반복해서 배치되는 경우
- '반복' O, but '유사'도 OK. 의미는 유사하되, 어순이 바뀌어도 된다. 한 구절 정도만 동일하면 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돌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개념 9 시상 유발

- 시를 쓰게 된 계기. 시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와 관련된 내용.
→ 시의 첫부분을 보자!

개념 10 시상의 전환, 어조의 변화

- 시에서 화자의 정서나 시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 (180도)
ex) 긍정 ↔ 부정, 희망 ↔ 절망, 외로움 ↔ 행복

뫼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뫼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뫼락카노 뫼락카노
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발을 건너는 바람

뫼락카노 뫼락카노 뫼락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발을 건너는 바람

뫼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박목월<이별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풀>

세상은
험난(險難)하고 각박(刻薄)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김종길<설날아침에>

시간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같이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2023학년도 6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O X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2023학년도 9월)

시간의 역순적 구성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O X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
날로 가자수수력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
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
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
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넌
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
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2023학년도 6월)

회상의 형식을 통해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냈다.

O X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흉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으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2018학년도 6월)

과거 회상을 통해 시상이 유발된다.

O X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었다어서 말뚝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24학년도 수능)

화자가 처한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O X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 위백규, 「농가」, <제 7수> - (2022학년도 수능)

초장에 나타난 대상에 대한 시간의 경과가
 종장에서 드러나며, 종장에서 대상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난다.

O X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 이현보, 「어부단가」 - (2023학년도 9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물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O X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 유박, 「화암구곡」, <제6수> - (2024학년도 수능)

초장에서 나타난 시간의 경과로 인한
 인과적 결과가 종장에서 드러난다.

O X

시선의 이동

해수살 피어
이윽한 후,

머흘 머흘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촉촉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같히어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정지용, 「조찬(朝餐)」- (2015학년도 수능)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X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썼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댈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2019학년도 수능)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다. O X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짙짙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아무려면 어쩐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질어가는 오월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심는 날에.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2020학년도 9월)

화자의 시선이 O X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욱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가다.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긔 차고 넘치노나.

쪼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던 녹음, 수목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스럽다.

- 정지용, 「달」- (2018학년도 9월)

시선의 이동에 따라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O X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갯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높홀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개심대 고태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녜녜(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맏쳐 잇고 굿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시선의 이동에 따라
 풍경에 대한 감상을 제시하고 있다.

O X

서산에 돌을벌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 위백규, 「농가」, <제1수> - (2022학년도 수능)

초장에서 원경, 중장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X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 정철, 「성산별곡」 - (2024학년도 9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

O X

맑은 물에 버를 갈고 청산에 섰을 친 후
 서립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 유박, 「화암구곡」 - (2024학년도 수능)

시선의 이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O X

수미상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2021학년도 9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내고 있다.

O X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2020학년도 수능)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형식적 통일성을 유도한다.

O X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 (2016학년도 9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 X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반나뉘,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얼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2021학년도 9월)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 X

시상 유발

이럴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뒤통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2024학년도 수능)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시상을 이끌어낸다. O X

한 줄의 시(詩)는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고
 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 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2018학년도 수능)

자연물을 통해 시상을 유발한다. O X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어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어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2023학년도 수능)

동경의 대상으로부터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O X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닢 담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있었다

- 김영랑, 「연 1」 - (2024학년도 9월)

유년기의 추억과 연관 있는 특정 대상을 통해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O X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 권호문, 「한거십팔곡」, <제3수>- (2024학년도 9월)

<제3수>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시상을 유발한다. O X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 가흥(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
으리

- 이황, 「도산십이곡」, <제6수>- (2023학년도 수능)

<제6수>에서는 계절에 따른 자연물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유발한다. O X

피에는 새 다 굶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납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 황희, 「사시가」, <제4수>- (2023학년도 6월)

<제4수>에서는 속세에 대한 한탄으로
시상을 유발한다. O X

덕(德)이란 곰비에 반죽고 복(福)이란 립비에 반죽고
덕(德)이어 복(福)이라 호놀 나수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자 미상, 「동동」, <서사>- (2017학년도 6월)

<서사>에서는 구체적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면서 시상을 유발한다. O X

시상 전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2022학년도 9월)

‘그러나’를 통해 시상을 전환시키고 있다. O X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흥흥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
이어 날선 봉우리 훌 훌 훌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짜아— 한종일내—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흐르르르 낙화 같이 지
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
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
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2023학년도 9월)

‘이제’를 통해 시상을 전환시키고 있다. O X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혈어진 성터를 해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어느 언덕 꽃땀물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땀물」 - (2016학년도 9월)

시상이 전환되며 화자의 과거에 대한 절망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변화한다.

O X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욱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가다.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동그이 차고 넘치노나.

쫄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된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기노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2018학년도 9월)

시상이 전환되며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반성적 태도로 변화한다.

O X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허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후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뫼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루실사
인간 만수(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두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 윤선도, 「만흥(漫興)」 - (2021학년도 9월)

<제4수>, <제5수>에서 드러난 자연 속의
풍류가 <제6수>에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전환된다.

O X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땀땀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땀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 홍순학, 「연행가」 - (2017학년도 수능)

‘저희들’과의 첫 조우에서 가졌던
기대감이 좌절감으로 전환된다.

O X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가 이별이로다
춘향이가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
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2018학년도 9월)

‘춘향이’의 ‘도련님’에 대한 적극적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한다.

O X

Step 3. 스스로 정리하기



03 개념어 공부

6 강조법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반복

- **반복** : 시어, 시구, 시행,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다.

* 변주 : 반복이 있는 외중에 조금 달라지는 것
변주와 연결될 수도 있다.

개념 ② 연쇄법

ex)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 빨가면 사과 -> 사과는 맛있어

예시를 외우자



개념 ③ 점층법

- **점층법** : 반복 + (내용 추가, 범위, 강도, 정도)가 세지는 것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열 사람을 당하리라. 열은 백을 당하고 백은 천을 당하며, 천은 만을 당하여, 만으로써 천하를 얻으리라.”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김수영 <눈>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상 <날개>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이양하 <신록예찬>

개념 ④ 대조(대비)법

- **대조(대비)법** : 대상의 차이에 주목하도록 하는 수사법
 - **표면적 대조(대비)** : 해 vs 달
 - **이면적 대조(대비)** : 눈 vs 함박눈

개념 ⑤ 대구법

- 통사구조의 반복 + 연달아 나오는 경우

개념 6 과장법

- **과장법** :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말하는 수사법
ex)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만세소리에 지축이 흔들렸다.

개념 7 열거법

- **열거법** : 여러 요소들을 나열하는 것.
ex)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어머니

윤동주 <별 헤는 밤>

‘우리의 국토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이며, 정신입니다

국토예찬 <최남선>

개념 8 영탄법

- **열거법** : 여러 요소들을 나열하는 것.
 - 1) !
 - 2) 감탄사, 감탄형 어미 (~어라, ~노라, ~구나, ~도다 등)
 - 3) 설의법, 돈호법이 있는 경우

* 설의법: 겉으로는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점층법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말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읍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읍니다.

- 박용래, 「월훈」 - (2024학년도 9월)

점층법을 통해

‘귀뚜라미’의 울음 소리를 강조하고 있다.

O X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 이어 내 마음 동동 구름을 타다.

- 박두진, 「향현(香峴)」 - (2017학년도 6월)

점층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O X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2017학년도 9월)

점층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고조시킨다.

O X

들쩍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맹이 위에 얹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맹이」 - (2020학년도 6월)

점층적 표현을 통해 ‘길’의 풍족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X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읍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르신고

- 정철, 「관동별곡」 - (2015학년도 수능)

점층적 표현을 통해 ‘망양정’에 올라간 화자가 느끼는 풍경에 대한 감상을 강조하고 있다.

O X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 이황, 「도산십이곡」 - (2023학년도 수능)

점층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O X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롭과 흥가지라 흥몰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2015학년도 6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며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O X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 박인로, 「소유정가」 - (2023학년도 9월)

점층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감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X

대조(대비)법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려 온 산이 아니냐.

- 김관식, 「거산호 2」 - (2022학년도 수능)

대조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한다. ○ X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2020학년도 6월)

‘돌팔매’와 ‘반원’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 X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가름쟁이 사래 긴 우리 밭 그 건너의 논실 이센 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탕자 울타리가 처진.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 (2021학년도 수능)

대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 X

그러나 지금 우리는불
로 만나려 한다.
별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2017학년도 6월)

‘물’과 ‘불’을 대비시키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X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하니 므스 일 머무노뇨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하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는 가려 정(定)하니 일흥(逸興) 계워 호노라

- 안서우, 「유원십이곡」 - (2020학년도 6월)

‘풍우’와 ‘연하’를 통해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비를 드러내고 있다. ○ X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떼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호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머슴 두는고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2015학년도 6월)

‘갈매기’와 ‘교교백구’의 속성을 대비하며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 X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 이현보, 「어부단가」 - (2023학년도 9월)

‘어부’와 ‘인세’를 대조하며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한다. ○ X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 가흥(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
으리

- 이황, 「도산십이곡」 - (2023학년도 수능)

‘춘풍’과 ‘추야’의 대비를 통해
속세와 화자가 있는 공간을 대조하고 있다. ○ X

대구법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집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2019학년도 수능)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O X**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뒹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2023학년도 수능)

대구를 통해 운율감을 자아낸다. **O X**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 김혜순,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 (2021학년도 9월)

대구의 표현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O X**

싸아— 한중일내—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구
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
나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2023학년도 9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O X**

봄마다 맏쳐 잇고 곳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대구적 표현을 통해 '봉'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O X**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올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 허난설헌, 「규원가」 - (2022학년도 9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근심을 자연물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O X**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 권호문, 「한거십팔곡」 - (2024학년도 6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안빈낙도의 생활상을 표현한다. **O X**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 정철, 「성산별곡」 - (2024학년도 9월)

대구를 통해 화자의 가난한 생활을 한탄하고 있다. **O X**

과장법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 김광균, 「추일서정」 - (2020학년도 6월)

화자의 감정을 과장된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O X**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2021학년도 수능)

과장법을 통해 '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만년(萬年)을 써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 조지훈, 「맹세」 - (2024학년도 6월)

과장된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O X**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2019학년도 6월)

'그'가 '늙은 고수'를 만났을 때의 흥겨움을 과장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O X**

천만리(千萬里) 떠나면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돌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갈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언 - (2014학년도 수능)

과장된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O X**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 이현보, 「어부단가」 - (2023학년도 9월)

과장된 표현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 X**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버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느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황희, 「사시가」 - (2023학년도 6월)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과장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O X**

놓홀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과장된 표현을 활용해 '혈망봉'이 높이 솟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영탄법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2024학년도 6월)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O X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 신경림, 「길」 - (2023학년도 9월)

영탄적 어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O X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르러진
도른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 김광균, 「추일서정」 - (2020학년도 6월)

영탄적 어조로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O X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 김영랑, 「청명」 - (2020학년도 9월)

자연에 대한 영탄적 어조를 보이고 있다.

O X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 허난설헌, 「규원가」 - (2022학년도 9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O X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정훈, 「탄궁가」 - (2022학년도 수능)

영탄적 표현을 활용해 자연을 즐기는
풍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 X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현사토 현사할샤

- 정철, 「관동별곡」 - (2021학년도 6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풍경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O X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2019학년도 수능)

화자가 본 기이한 풍경을 영탄적 표현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O X

Step 3. 스스로 정리하기



03 개념어 공부

7 변화법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역설법

- **역설법** : 모순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 두개의 명제가 서로 상충되는 수사법.
ex)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아, 남은 갖지마는 나는 남은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개념 ② 반어법

- **반어법** :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수사법.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
ex)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개념 ③ 설의법

- **설의법** :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음.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
ex) 삼공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개념 ④ 도치법

- **도치법** : '정상적인 어순'을 바꾸어 뜻을 강조하는 수사법
= S (M) O (M) V

* 정상적인 어순이 무엇인가?

개념 ⑤ 해학

- **해학** : 웃음을 유발하면서 비판적인 의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
문제는 웃음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안 웃기다는 것에 있다.
부장님 개그에 웃어주 듯, 웃음 코드를 배워보자:
(1)언어유희 (2) 과장된 행동 (3) 우스꽝스러운 외양 묘사 (4) 어리숙한 인물 (5)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해보자.

역설법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2009학년도 수능)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O X

황홀한 음지의 꽃이어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2023학년도 수능)

역설적 표현을 통해 '너'의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O X

.....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

- 유치환, 「채전(菜田)」 - (2023학년도 수능)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O X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뚫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2019학년도 수능)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O X

간장이 다 썩어 뉘조차 그쳤으니
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 조우인, 「자도사」 - (2023학년도 6월)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O X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 권호문, 「한거십팔곡」 - (2024학년도 6월)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연친화적 태도가 나타난다. O X

하늘 삼기실 제 곳 無心(무심)홀가마는
엇다흔 時運(시운)이 일락배락 후얏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들음도 그지업다

- 정철, 「성산별곡」 - (2024학년도 9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세사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O X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털스(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 작자 미상, 「정석가」 -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 임과 이 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O X

반어법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2018학년도 수능)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O X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신경림, 「농무」 - (2014학년도 9월)

화자의 감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 X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돌아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 (2021학년도 수능)

반어적 표현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O X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
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2022학년도 9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O X

삭삭기 세월에 별해 나는
삭삭기 세월에 별해 나는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후신 님물 여히오와지이다.

- 작자 미상, 「정석가」 -

님을 '여히오와지이다'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O X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갓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2020학년도 9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연 경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O X

칠곡은 어디미오 풍암에 추색(秋色) 토타
청상(淸霜)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한암(寒巖)에 혼주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 이이, 「고산구곡가」 - (2020학년도 9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 O X

설의법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
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2019학년도 6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O X

마음 가난하거나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나랴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솟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입은 듣는가.

- 조지훈, 「맹세」 - (2024학년도 6월)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 X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 기형도, 「전문가」 - (2023학년도 6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O X

이럴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2024학년도 수능)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O X

계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잇고
호두포 엔 구벽에 아적들이 미러오니
돛든비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푸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랴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2020학년도 수능)

설의적 표현을 통해
불합리한 시대상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O X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다를소나

- 정극인, 「상춘곡」 - (2020학년도 9월)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설의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O X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황희, 「사시가」 - (2023학년도 6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낸다. O X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쫓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조우인, 「자도사」 - (2023학년도 6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O X

도치법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2015학년도 6월)

도치된 문장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조한다. **O X**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
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2018학년도 6월)

도치된 문장을 통해 시적 대상을 강조한다. **O X**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021학년도 6월)

문장 구조의 도치를 통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O X**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 김기림, 「연륜」 - (2022학년도 6월)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O X**

Step 3. 스스로 정리하기



04 단원의 마무리

01. 문제 유형 분석

시에서 나오는 문제는 대개 (1), (2), (3), (4), (5)이다.

02. 시의 논리와 해석

문학의 3요소중 유가성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것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1)이고, 2단계는 (2)하는 것이며, 3단계는 (3)이다.

스키마는 같은 말 반대 말 도형치고, 시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며,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시에서 중요한 것은 (4)이다.

배경지식은 틈들이기 워크북을 통해서 하나 하나씩 쌓아가자!

01. 문제 유형 분석 1.표현상의 특징 / 2.시적 상황 / 3.시어의 의미 / 4.주제 / 5.정서&태도

02. 시의 논리와 해석 1. 제목, 작가부터 보기 / 2. 제목과 관련된 것을 keyword로 설정 / 3. keyword에 대한 설명과 연결짓기 / 4. 시상 추정

03. 개념어 공부

1. 소통 구조

1. 화자는 시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화자 없는 시는 세상에 (4) 시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는 (2), (3)가 있다.

2. 어조는 화자의 말투로서 (4)에 따른 어조는 낙천, 분노, 희망, 비애, 영탄, 걱정, 그리움 등이 있고, (5)에 대한 태도에 따른 어조는 명령, 청유, 의문, 기원, 소망, 예찬, 순응 등이 있으며, (6)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른 어조는 냉소, 친화, 비판, 동정, 풍자, 해학 등이 있다.

3. 청자란 화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7)는 동물, (8), (9)을 청자로 삼은 경우이다.

말을 건네는 어투는 (10), (11), (12)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화(대화체)는 화자가 (13)있어서, 서로 말을 (14)는 경우를 뜻한다. 반면, 독백은 스스로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한다.

4. 거리는 (15)와 (16)로 나뉜다. 물리적 거리는 (17)와 (18)가 있고, 심리적 거리는 (19), (20) (21)로 나뉜다. 일정거리 유지는 객관적인 태도와 같은 말이고, (22)라고도 한다.

(23)없이 묘사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은 (24)이라고도 하며, 현실과 이상이 서로 반대되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소통 구조

1. 없다/2. 나/3. 우리/4. 정서/5. 청자/6. 대상/7. 의인화된 청자/8. 식물/9. 무생물/10. 청자가 있는 경우/11. 돈호법/12. 상대높임법/13. 2명 이상/14. 주고 받는/15. 물리적 거리/16. 심리적 거리/17. 가깝다/18. 멀다/19. 가깝다/20. 멀다/21. 일정거리 유지/22. 관조/23. 정서 표현/24. 괴리감

2. 운율

1. 운율 없는 시는 세상에 (1). 운율은 규칙이 눈으로 보여서 겉으로 운율이 드러나는 (2)과 규칙이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3)로 나뉜다.

외형률은 (4)과 음수율로 나뉘는데, 음보율은 (5), (6)가 있고, (7)은 (8)와 (9)로 나뉜다. 단 (11)

*외형률은 문학 장르와 결부되기 때문에 장르별 특징을 암기해야 한다. 3음보-(12)-(13), (14). (15)- 3 4조 - (16), (17)

2. 반복에는 (18)·(19)·(20)의 반복 (21)의 반복이 있다. 통사구조의 반복은 (22)와 (23)가 유사한 경우를 일컫는다.

(24)은: 통사구조의 반복 + (25)나오는 경우이다.
반복이 나올 때에는 꼭 '유사한'인지 '동일한'인지 확인하자!

2. 운율

1. 없다/ 2. 외형률/ 3. 내재율/ 4. 음보율/ 5. 3음보/ 6. 4음보/ 7. 음수율/ 8. 7 5조/ 9. 3 4조/ 10. +-1음절/ 11. 7.5조/ 12. 고려가요/ 13. 민요/ 14. 4음보/ 15. 3 4조/ 16. 시조/ 17. 가사/ 18. 시어/ 19. 시구/ 20. 시행/ 21. 통사구조/ 22. 조사/ 23. 어미/ 24. 대구법/ 25. 연달아

3. 이미지

이미지는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양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1)는 (2)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경우로, 구체적, 객관적 이미지라고도 한다.

(3)는 (4)으로 느낄 수 없는 경우로, 관념적 이미지라고도 한다.

추상(관념)의 구체화는 추상적인 (5)을 (6)으로 전이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색채 이미지는 색을 (7) 하는 대상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며, 암기의 영역이다. 한편 색채어는 (8)을 지칭하는 말이다.

수직적 이미지, 수평적이미지: 너무 쉬워

상승이미지, 하강이미지: 너무 쉬워

동적 이미지는 같은 말로 (9)라고도 한다., 정적이미지는 정지해 있는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10), (11)가 (12)개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복합 감각은 감각적 이미지가 2개 이상이 나열된 경우에 지나지 않아 말이 (13).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에는 흑백대비, 명암의 대비, 냉온 대비, 색채의 선명한 대조 등이 있다.

3. 이미지

1. 감각적 이미지/ 2. 오감/ 3. 추상적 이미지/ 4. 오감/ 5. 관념/ 6. 감각적/ 7. 떠올리게/ 8. 색/ 9. 역동적 이미지/ 10. 말이 안되면서/ 11. 감각적 이미지의 종류/ 12. 2/ 13. 된다

4. 비유와 상징

1. 비유는 (1), (2), (3)으로 나뉜다.

직유는 (4)를 통해 직접 비유하는 것이고, 은유는 언어 매개 (5)은근히 비유하는 것이며, 의인은 (6)과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사람이 아닌 것을 (7)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2. 상징은 (8)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 시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적 상징을 이해하기 어려워서이며, 관습적 상징은 암기해야 한다.

3. 감정이입은 시적 대상에 (9)을 넣는 (10)으로, 시적 대상이 마치 화자처럼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한다. 주로 (11)이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한편,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환기 하는 (12), 즉, 감정이입이 된 ‘대상’, 화자의 감정 및 상황과 대비되는 ‘대상’을 일컫는다.

4. 비유와 상징

1. 직유/ 2. 은유/ 3. 의인/ 4. 언어 매개/ 5. 없이/ 6. 활유법/ 7. 사람/ 8. 비유/ 9. 화자의 감정/ 10. 표현기법/ 11. 의인법/ 12. ‘대상’/

5. 시상 전개 방식

1. 시간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시간의 (1)를 따질 수 있는 경우에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시간의 경과로는 (2)의 변화, (3)적 변화가 있다.

2. 회상은 현재-(과거)-현재로 (4) 주로 (5) 되거나 (6)나 (7)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역순행적 구성은 현재-(과거-)현재)로 이어져 독자는 이야기의 (8)을 먼저 보고, 그 결과에 이르게 된 (9)을 차례차례 알아가게 된다.

3. 공간은 (10) 공간이 변화하는지 아니면, 단지 공간에 대한 (11)이 있는 것인지 (12)이 있는지를 확인 할 것!

4. 시선의 이동은 화자가 시선을 좌-)<-우, 위-)<-아래, 원경-)<-근경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 시를 전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중 선경후정은 화자가 (13)을 묘사하다가 자신의 (14)으로 시선을 옮기는 경우를 뜻한다.

5. 관찰과 생각(추측, 판단 등)은 다르다.

6. 수미상관은 시의 (15)과 (16) 부분에 같은 내용의 구절이 반복해서 배치되는 경우로 반복은 당연히 O, but (17)도 OK. 의미는 유사하되, 어순이 바뀌어도 된다. (18) 정도만 동일하면 된다.

7. 시상 유발은 시를 쓰게 된 (19)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20)을 보자! 시상의 전환은, 어조 변화라고도 하며 시에서 화자의 정서나 시의 분위기가 (21) 바뀌는 경우를 의미한다.

5. 시상 전개 방식

1. 선후 관계/ 2. 밤낮/ 3. 계절/ 4. jump!/ 5. 갑작스럽게 시작/ 6. 인물의 대화/ 7. 상황/ 8. 결말/ 9. 과정/ 10. 화자가 있는/ 11. 설명/ 12. 시선의 이동/ 13. 외부 정경/ 14. 내면/ 15. 처음/ 16. 끝/ 17. ' 유사'/ 18. 한 구절/ 19. 계기/ 20. 첫부분/ 21. 180도/

6. 강조법

1. 반복은 시어, 시구, 시행,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다. (1)와 연결될 수도 있다.
2. 연쇄법은 예시를 외우자 ex)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 빨가면 사과 -> 사과는 맛있어
3. 점층법은 (2)이 있으면서 내용 추가가 있고, (3)가 확대 되고, (4), (5)가 세지는 것을 의미한다.
4. 대조법은 대상의 차이에 주목하도록 하는 수사법으로서 표면적 대조가 있어도 되고, 이면적 대조가 있어도 된다.
5. 대구법은 통사구조의 반복 + (6) 나오는 경우
6. 과장법은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말하는 수사법이다.
7. 열거법은 여러 요소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8. 영탄법은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수사법으로, (7), (8), (9), (10)이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6. 강조법

1. 변주/ 2. 반복/ 3. 범위/ 4. 강도/ 5. 정도/ 6. 연달아/ 7. 감탄사/ 8. 감탄형 어미/ 9. 설의법/ 10. 돈호법/

7. 변화법

1. 역설법은 모순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두 개의 (1)가 서로 (2)되는 수사법이다.
2. 반어법 : (3)와 반대로 표현하는 수사법으로, (4)에 대한 이해 필요하다. 하지만 어려우니 반어법이 있는 작품을 (5)하자.
3. 설의법: (6)의 형식을 띠지만 대답을 요구하지는 (7) 경우를 말한다.
4. 도치법은 '정상적인 어순'을 바꾸어 뜻을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정상적인 어순이 무엇인가?
5. 해학은 웃음을 유발하면서 비판적인 의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웃음 코드를 배워보자:
(8), (9), (10), (11),
(12)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해보자.

7. 변화법

1. 명제/ 2. 상충/ 3. 의도/ 4. 상황/ 5. 암기/ 6. 의문문/ 7. 앓는/ 8. 언어유희/ 9. 과장된 행동/ 10. 우스꽝스러운 외양 묘사/ 11. 어리숙한 인물/ 12. 반복/

Chapter 3.

소설 문학

- 01 문제 유형 분석
- 02 소설의 논리와 해석
- 03 개념어 공부
- 04 단원의 마무리



2024학년도 수능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마악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득이 어머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 “애최에 니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송업구....., 온, 글썸, 그만 허구 들어가야. 니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머니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체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밖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체가 시초를 낸 게니까 ——”

하고, 뽀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 “아, 그 배지 못한 행랑것허구, 씹이 무슨 씹이나?”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개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욕지 거리를 허구 그러다니.....”

췌, 췌, 췌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췌, 그렇구 말구요. 씹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늘 보구 침 뱉기지. 그 욕이 다아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소리가가 때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두 제엔장헐.....!’

㉣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겼어어어?”

“문 좀 여세요. 아,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득이한테 저의 아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머니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아아니, 그래, 애아빤이 미우면 으떻게는 못 해서, 그 더러운 뒷간 속에다 글썸 가뒀야만 헌단 말예요? 그래 노인인 심사를 그렇게 부러야 옳단 말예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 가며,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뒀?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 난 꼭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쇠 쳤지. 온, 알구야 왜 미쳤단 구 잠그겠수?”

발명을 하였으나,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야 알구서 한 것이지. 그래 자물쇠 칠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못 들었던 말예요? 듣구두 모른 체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하고, 갑득이 어머니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쳐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득이 어머니는 집주름집마누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뒤어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 박태원, 「골목 안」 -

* 불단집: 집 밖에도 전등을 단, 살림이 넉넉한 집.

• 줄거리 •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 ②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이 드러난다.
- ③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양금을 씻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 서술상의 특징 •

2.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둬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심표의 연이어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 ① ㉠: 말줄임표 이후 심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 말을 전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 인물의 생각에 대해 심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 감탄사 이후 심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 인물의 성격 •

3.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 ②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⑤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4.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탄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 ②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 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2024학년도 수능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몸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누가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흉적은 목을 늘어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설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㉔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빠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독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㉕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웁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㉖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뵈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오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㉗ **내 병이 조금 나아오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㉘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리르느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짝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오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혈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 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작자 미상, 「김원전」-

• 서술상의 특징 •

1.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 인물의 성격 •

2.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와 ㉣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 ④ ㉡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인물의 성격, 시공간적 배경 •

3. ㉠과 관련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 주제 •

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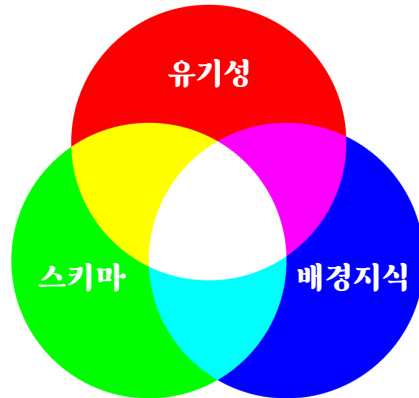
<보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①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잡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동을 베어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02 소설의 논리와 해석

문학의 3요소



1. 유기성

유기성을 활용한다.

•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이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여 줄거리를 해석해 나가야 한다.

1. '등장 인물'들에 동그라미를 친다.
2. 2번 이상 나온 인물들은 관계를 고려하여 '가계도'를 그린다.
3.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한다.
4.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주요 소재'들을 파악한다.
5. '갈등'을 파악한다.
6. '시공간적 배경'이 나올 때 마다 별표☆친다
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와 '줄거리'를 파악한다.

2. 스키마

- 같은 말(편) 반대 말(편) 도형치기
- 유기성을 활용해 소설의 '주제'와 '줄거리'(기승전결 등), '구조'(시공간적 배경의 변화, 액자식구조 등)를 파악한다.

3. 배경지식

-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추가적으로 '똘들이기 워크북' 강의를 들으면서 배경지식을 하나 하나씩 쌓아가자!

2024학년도 수능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마악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순이 어머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 “애최에 니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송업구....., 온, 글썸, 그만 허구 들어가야. 니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순이 어머니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체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체가 시초를 낸 게니까 ——”

하고, 뽀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 “아, 그 배지 못한 행랑것허구, 씹이 무슨 씹이나?”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개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욱지 거리를 허구 그러다니.....”

췌, 췌, 췌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쥬, 그렇구 말구요. 씹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눌 보구 침 뱉기지. 그 욱이 다아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소리가 때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두 제엔장헐.....!’

㉣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겼어어어?”
“문 좀 여세요요. 아,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득이한테 저의 아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순이 어머니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아아니, 그래, 애아빤이 미우면 으떻게는 못 해서, 그 더러운 뒷간 속에다 글썸 가뒤야만 헌단 말예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러야 울단 말예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 가며,

㉤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뒤?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 난 꼭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쇠 쳤지. 온, 알구야 왜 미쳤더구 잠그겠수?”

발명을 하였으나,

㉥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야 알구서 한 것이지. 그래 자물쇠 칠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못 들었던 말예요? 듣구두 모른 체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하고, 갑순이 어머니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러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쳐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순이 어머니는 집주름집마누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뒤어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 박태원, 「골목 안」 -

* 불단집 : 집 밖에도 전등을 단, 살림이 넉넉한 집.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O/X)
- ②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이 드러난다. (O/X)
- ③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O/X)
-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O/X)
-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양금을 씻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O/X)
- ②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O/X)
-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O/X)
-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O/X)
- ⑤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O/X)

3.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탄한 이유는 아내가 갑독이 어머니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O/X)
- ②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독이 어머니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 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O/X)
-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O/X)
-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O/X)
-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둬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쉽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 ① ㉠: 말줄임표 이후 쉽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O/X)
- ②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O/X)
- ③ ㉢: 말을 전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O/X)
- ④ ㉣: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쉽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O/X)
- ⑤ ㉤: 감탄사 이후 쉽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4학년도 9월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동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통명스러워졌다. ㉠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 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 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 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뻐다. 남달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 궁상이 지겨워 맨날 똥하던 언니였다.

(중략)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여 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핏색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히죽히죽** 웃어 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 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 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자작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헛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의 김 반장 행동을 끄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있었을까. 그날 밤 머리의 어딘가를 세계 다쳐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 상실증인가 뭐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뽁뽁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의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의 의젓한 것이었다. ㉤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 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 주고 난 뒤 비치파라솔 밑의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 씨에게로 갔다. 보나 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 있는 종잇조각 중의 하나일 것이었다. ㉥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 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 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 씨 꼴이 한심했다.**

“㉠ 이거, 또 시예요?”

“㉢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 씨가 핏색한 얼굴을 쳐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 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 이제 다 나왔어요?”

“㉣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왔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 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앉았다.

“㉦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단전만 피우고 있었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몽달 씨는 김 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해 주고 있다. (O/X)
- ㉡ 김 반장은 선옥을 좋아했으나, 선옥이 서울로 가자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O/X)
- ㉢ ‘나’는 김 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김 반장이 빈둥거리며 실 없는 행동을 해서 당황했다. (O/X)
- ㉣ 선옥은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O/X)
- ㉤ ‘나’는 몽달 씨를 친구라 여겼으나, 몽달 씨가 김 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다. (O/X)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는 상대를 못마땅해하는 발언이지만, ㉤를 고려하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X)
- ㉡ ㉢와 ㉣의 시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인물이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O/X)
- ㉢ ㉤는 ㉣를 듣고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O/X)
- ㉣ ㉥는 ㉢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 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O/X)
- ㉤ ㉥는 ㉥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상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형제슈퍼**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깔깔거렸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O/X)
- ② 김 반장이 '나'를 통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O/X)
- ③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 주고 있다. (O/X)
- ④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 씨의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O/X)
- ⑤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김 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O/X)

4. <보기>를 바탕으로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 ① ㉠ :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 인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O/X)
- ② ㉡ :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보여 주고,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O/X)
- ③ ㉢ :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O/X)
- ④ ㉣ :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O/X)
- ⑤ ㉤ :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4학년도 6월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 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 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은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㉔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 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A]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 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㉕ 싫 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 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백 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농 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변칙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금씩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 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싫어도 웃 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 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㉖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에게 둘러며, 잔금은 제 가 장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 가는 용 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기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 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㉗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 다. 종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 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 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 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기하였던지도 모를 일 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서 것을 느끼며 ㉘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 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종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 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 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 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중략)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 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 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㉙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B]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햇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 노인은 물을 보기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요를 독여서 병상을 돌우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 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 린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 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 놓았다.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㉚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 로 훑듯이 둘러 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 린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폭포같이 들이 쏟고 또 떠서 는 들이 쏟기를 계속하였다. 만수 노인은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드리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견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 아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 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밖에 없었다.

- 최명익, 「무성격자」 -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O/X)
- ㉒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O/X)
- ㉓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 (O/X)
- ㉔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O/X)
- ㉕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O/X)
- ② ㉡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O/X)
- ③ ㉢은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O/X)
- ④ ㉠은 아버지와 용팔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O/X)
- ⑤ ㉢은 아버지가 보여 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O/X)

3. [A], [B]를 고려하여 ㉠과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용팔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O/X)
- ② ㉠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O/X)
- ③ ㉠은 정일의 '신경 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은 아버지가 '꺼멧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O/X)
- ④ ㉠은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O/X)
- ⑤ ㉠은 용팔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 ① 산관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산관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O/X)
- ②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O/X)
- ③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O/X)
- ④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O/X)
- ⑤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3학년도 수능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 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A]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 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B]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교 다릿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볼 만큼 되었다.

[C]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에 불려 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넌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의 친정 어머니를 남겨 두신 채, 신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이었다.

[D] 동네 뒤편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쪽으로는 흰모래 둥근 자갈밭을 데불은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 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 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그저 움막처럼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엮은 뒤, 풍우나 피하자는 시늉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

이라고 웃으셨다는 아버지.
“처음에는 저게 자랄까 싶었다. 그러던 게 이듬해는 키를 넘드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곁에 손수건만 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낀다.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덮는 잎사귀,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어귀 천변에까지 들리는 성싶었다.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E] “사흘 됐나? 그에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뵈는 저 산마루에 절, 저기가 영익이 있는 데예요?”

나는 동편 산마루의 깜박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구 중바위산 아니냐. 그 애 공부하는 덴 이 오른쪽이지.....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야. 여기서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동생 영익이는 벌써 이 년째 그 산속의 절에서 사법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에게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르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그때 영익이의 말끝에 맺힌 숨소리는 ‘흠’ 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은 것만 같았다.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우선 대문이 변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는 데다가 오래되고 낡아서 녹이 슨 철제였다. 그것은 잘 닫히지도 않아 비긋하니 틀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다는 편이 옳았다. 그나마 손바닥만 한 것을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 놓았고, 방들은 오밀조밀 붙어있어 개수만 여럿일 뿐, 좁고 어두웠다.

그중에 한 방은 아예 전혀 **채광 통풍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것도 원래는 **창문**이었는데, 아마 바로 옆에 가게를 이어 내느라고 **막아 버린** 모양이었다. 그 가게란 양품점으로, 레이스가 많이 달린 네 글리제와 여자용 속옷, 스타킹 따위를 고무 인형에 입혀 세워 놓은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양품점들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는 양장점, 제과소, 음식점, 식료품 잡화상들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마찰음**, 무엇이 부딪쳐 떨어지는 소리, 어느 악기점에선가 쿵, 쿵, 울려 오는 스피커 소리..... 끼익, 하며 숨넘어가는 자동차 소리.

한마디로 그 집은, 아스팔트의 바둑판, 환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에 금방이라도 쓸려 버릴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중간에 웅승 그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쩐지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

- 최명희, 「쓰러지는 빛」-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약’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O/X)
- ②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 한다. (O/X)
- ③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O/X)
- ④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드는 곳이다. (O/X)
- ⑤ ‘천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변화한 동네이다. (O/X)

2. [A] ~ [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이만큼에 서서’와 ‘바라보면’을 보면,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② [B]: 호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O/X)
- ③ [C]: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O/X)
- ④ [D]: ‘동네였을 것이다’를 보면,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⑤ [E]: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X)

3. 윗글의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다. (O/X)
- ②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O/X)
- ③ ‘어머니’가 결혼 후에 심고 정성을 다해 키워 내어 무성해진 애착의 결실이다. (O/X)
- ④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특징에 부합한 별명을 자기 마을에 붙일 때 적용한 단어이다. (O/X)
- ⑤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생각에 마을 곳곳에 심은 상징적 기념물이다. (O/X)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집의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천변’ 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 온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O/X)
- ②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 (O/X)
- ③ ‘서걱거리는 소리’와 ‘불규칙한 마찰음’에서 드러나는 집 주변 환경의 차이는, 두 집에 대해 ‘나’가 느끼는 친밀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군. (O/X)
- ④ ‘창문’을 ‘막아 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O/X)
- ⑤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다고 한 것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3학년도 9월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쭈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들을 쭈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였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의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할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닿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뽀뽀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했다. 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

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쪼끄만 **날개**가 돌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 빗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흠, 이놈이 나 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컷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레닌 : 러시아의 혁명가.

1. 밑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O/X)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O/X)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O/X)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O/X)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O/X)

2.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O/X)
-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O/X)
-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O/X)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O/X)
-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O/X)
-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O/X)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O/X)
-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O/X)
-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O/X)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겨드랑이에 돌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O/X)
- ② ‘파마늘’이 돌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O/X)
-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O/X)
-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O/X)
- ⑤ ‘날개’가 ‘깃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3학년도 6월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니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설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설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핵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레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말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레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늬이 살아나구, 살 늬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바라..... 증증 따근하게 데와. 날두 산산 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B] ××경찰서의 경계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 더 호화판이였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중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던**란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뺏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D]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늬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때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뺏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였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퐁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뵈답니다.”

그러고는 ㉣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 었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 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였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야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엠피(MP) : 미군 현병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1.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O/X)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O/X)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O/X)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O/X)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O/X)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O/X)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O/X)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O/X)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O/X)

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O/X)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O/X)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O/X)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준다. (O/X)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A] ~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O/X)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O/X)
-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O/X)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O/X)
-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2학년도 수능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근 아니면 올림픽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빠르긴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 한 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쑤하던이야기를 똑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피죄죄한 물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으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꽂무니에 꿰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옷웃 자락을 슬쩍들어 ㉠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것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짤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다니다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맹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

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यो.”

김달채 씨는 엉겁결에 잠바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꿰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에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담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체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O/X)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O/X)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O/X)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뒷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O/X)
- ② 피죄죄한 몰골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 준다. (O/X)
- ③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O/X)
- ④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 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O/X)
- ⑤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안도감을 느낀다. (O/X)

3.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달채는 ㉠을 그 생김새로 인해 ㉡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O/X)
- ② 김달채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 (O/X)
- ③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O/X)
- ④ 김달채는 ㉡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을 ㉡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O/X)
- ⑤ ‘사복 차림의 청년’은 ㉡에 익숙하여 ㉠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O/X)

4.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O/X)
-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O/X)
-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O/X)
- ④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O/X)
-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2학년도 9월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에는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뱃그늘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연히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이 썰물에 조개나 켈 뿐 한가하다.

사흘 째 되던 날,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 박 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다.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착하고 앉았다. 윤 노인이 먼저 입을 뗐다.

“저 구름밭 좀 보라나?”

“음!”

구름밭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 오르고 있었다.

윤 노인이 또,

“하하하 저 물빛 봐!”

박 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파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틀림없었다.

이번에는 박 노인이 뻔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기 떼를 찾아갔는데 울음도 쪽이면 못 같라고...”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 왔다.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결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울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깜깜한 칠야, ㉢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물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 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러는 동안에 날이 섰다.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 가고 파도도 낮아졌다. 선 날에 보는 ㉤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A] 이날 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윤 노인이었다. 그의 머느리 말에 의하면 돌각 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담 밑까지 들이밀자 윤 노인은 머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담 밖까지 나오다가 무슨 일로 선지 머느리는 먼저 가라고 하고 윤 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든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별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그러나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더 큰 어두운수심에 잠겼다. 이를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 주었다.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들이 지났다. 울음에도 지쳤다.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 설마 죽었을라고. —

[B]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해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살아야 했다. 해순이도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곤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 멀치 철이건만 후리*도 없었다. 후리막은 집 뚜껑을 송

└ 두리째 날려 버린 그대로 손볼 엄두를 내지 않았다.

- 오영수, 「갯마을」 -

* 후리 : 그물의 한 종류.

1.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O/X)
- ②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다. (O/X)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O/X)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개성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O/X)
- ⑤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O/X)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노인’은 우연히 만나 ㉠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O/X)
- ② ‘두 노인’은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을 환기한다. (O/X)
- ③ ‘두 노인’은 ㉠으로 인해 서로 다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O/X)
- ④ ‘두 노인’은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다. (O/X)
- ⑤ ‘두 노인’은 ㉠으로 인해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O/X)

3. <보기>를 참고하여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들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해당하는군. (O/X)
- ②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게 하는 매개물이군. (O/X)
- ③ ‘바다’는 아낙네들에게 시련을 주지만 생활의 방편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군. (O/X)
- ④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해순의 의지를 보여 주는 행동이군. (O/X)
- ⑤ ‘돛배’는 아낙네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대상이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2학년도 6월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네깐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①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차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② **더구나** 이리루 들어오시자 머리를 **까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뵈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③ **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 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④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고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

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⑥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었던 과거의 ⑦ 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쳤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A]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O/X)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O/X)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O/X)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O/X)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O/X)

2.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 ~ ㉞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O/X)
- ②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O/X)
- ③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O/X)
- ④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V표현이다. (O/X)
- ⑤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O/X)

3. ㉠, ㉞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 기여한다. (O/X)
- ② ㉠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O/X) ③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O/X)
- ④ '저'가 ㉠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㉞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O/X)
- ⑤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㉞에서 ㉠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O/X)

4.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 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O/X)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차'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O/X)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O/X)
-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O/X)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되겠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4학년도 수능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몸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누가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흉적은 목을 늘어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설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을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㉔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빠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독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㉕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웁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㉖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뵈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배풀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오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㉓ 내 병이 조금 나아오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㉔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며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짝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 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작자 미상, 「김원전」-

1.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O/X)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O/X)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O/X)
 - ④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O/X)
 -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O/X)



2. ㉠과 관련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O/X)
-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도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O/X)
-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O/X)
-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O/X)
-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살'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O/X)

3.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② ㉢와 ㉣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 (O/X)
- ③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O/X)
- ④ ㉢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O/X)
- ⑤ ㉢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①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O/X)
-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O/X)
-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O/X)
-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에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O/X)
-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동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O/X)

2024학년도 9월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A]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금번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였다.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낮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젓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지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니 답답하나이다.”

하고 할머니께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B] “낭자에게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묘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장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나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하는가?**”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죄되,
 “**㉢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육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학선

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없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낱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 도문 :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1. '춘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O/X)
-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 준다. (O/X)
- ③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O/X)
- ④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동생을 막아선다. (O/X)
- ⑤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O/X)

2.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다. (O/X)
- ②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O/X)
- ③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O/X)
- ④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한다. (O/X)
- ⑤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며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O/X)
- ② ㉡: 손주들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O/X)
- ③ ㉢: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O/X)
- ④ ㉣: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O/X)
- ⑤ ㉤: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O/X)
-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O/X)
-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숙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O/X)
-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O/X)
-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지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4학년도 6월

십여 일이 지날 무렵 노비 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낭군께선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없이 서터니,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하옵니다.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김생이 슬퍼하며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하니 막동이 한참 생각하고 말했다.

“소인이 낭군을 위해 마루의 ㉠ 계책을 올릴 테니, 낭군께선 애태을 일이 없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낭군께선 급히 주효(酒肴)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바로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셔서 손님을 전별(餞別)하려는 듯 하십시오. 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고 이놈을 불러 손님을 모셔 오라 하시면,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한 식경 후에 돌아와 ‘손님이 오십니다.’라 하지요. 낭군께서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날이 저물 때쯤 돌아와, ‘손님께서 오늘은 송별객이 많아 심히 취해 갈 수 없으니 내일 꼭 가겠노라 하셨습니다.’라 하지요. 이때 낭군께선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그 주효를 먹게 하고,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면, 처음엔 고맙게 여길 것이요,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할 것이며, 세 번째는 필히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생각할 것이며, 의문이 생기면 하시고 싶은 바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흥금을 털고 말하신다면 일은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생은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말했다.

“내 일이 잘 되겠구나!”

생은 그 계책에 따라 즉시 주효를 갖추어서 곧바로 그 집에 가 전별 자리를 마련하였다.

(중략)

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낮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厚意)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과연 모일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남자를 보았다네. 나이는 대략 십오륙 세에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백릉버선에 자색 신을 신었지. 진주 비녀를 꽂고 새하얀 옥 반지를 끼고, 흥화문 앞길을 지나가고 있었다네.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을 이기지 못해 뒤따랐는데, 마지막에 이른 곳이 곧 할멈의 집이었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미하여 만사가 흐릿하며, 오로지 그 남자만 생각했다네.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 깨나 잊히지 않아 상심하며 애태우길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 할멈이 나를 보고 낮빛이 파리하다 했는데 왜 그랬겠나?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다며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노파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애처로워했으나 생이 마음에 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서 말했다.

“그런 애가 있습죠.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고 자(字)는 난향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한가?”

“이 애는 회산군 덕 시비에요.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자색(姿色)이 고운 것은 낭군께서 이미 보셨으니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고운 마음이며 암전한 몸가짐은 양반집 규수와 다를 게 없지요. 게다가 음률과 문장을 알아 나리께서 어찌 빼여기시

고 장차 소실(小室)로 맞으려 하셨지만,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 그렇게 못 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지난번 그 애가 울 수 있었던 것은 한식 때를 맞아 그 애가 어미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려고 부인에게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때마침 나리께서 외출하신 터에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낭군께서 어찌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낭군께서 다시 만나시기는 참으로 어렵습죠. 참으로 어려워요!”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노파가 안타까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 방법이 있습죠. 단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께 영영에게 반나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낭군께선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 작자 미상, 「상사동기」 -

1.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O/X)
- ㉡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 (O/X)
- ㉢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O/X)
- ㉣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 준다. (O/X)
- ㉤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O/X)

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막동은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O/X)
- ㉡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O/X)
- ㉢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인 것을 깨달았다. (O/X)
- ㉣ 노파는 생의 사연을 애처롭게 여기고 자신이 영영에 대해 아는 바를 알려 주었다. (O/X)
- ㉤ 생은 천상의 일에 빗대어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O/X)
- ② ㉠과 ㉡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O/X)
- ③ ㉠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은 생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O/X)
- ④ ㉠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O/X)
- ⑤ ㉠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고, ㉡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 ①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군. (O/X)
- ②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군. (O/X)
- ③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르는 것에서,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군. (O/X)
- ④ 영영이 회산군 댁 시비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O/X)
- ⑤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3학년도 수능

혼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매 하인들이 기뻐했다.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옥영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길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최척 부부는 후사를 염려하여 ㉠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함께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다음 해 갑오년 ㉡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너희 정성이 가상해 기이한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옥영은 ㉢ **그달에** 바로 잉태해 열 달 뒤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夢釋)이라고 지었다.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며, ㉣ **매양 꽃 피는 아침과 달 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 일찍이 날씨가 맑은 ㉤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이에 최척은 옥영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거리며 퍼져 나갔다. 옥영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경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옥영은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 찾을 수 없네.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

[중략 줄거리]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다.

최척은 동방이 밝아 오자,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 말로** 물었다.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십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양국의 **벳사람들이** 저жат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조위한, 「최척전」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를 삽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②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③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하고 있다. (O/X)
- ④ 감작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O/X)
- ⑤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 주어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뱃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놀라워했다. (O/X)
- ② ‘최척’은 강독을 내려가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O/X)
- ③ ‘최척’은 옥영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옥영이 시를 읊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 (O/X)
- ④ ‘옥영’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옥영이 시 집은 후 최척의 집안은 점차 부유해졌다. (O/X)
- ⑤ ‘친척들’은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옥영의 행실을 칭찬했다. (O/X)

3.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은 ㉠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이다. (O/X)
- ② ㉢과 ㉢은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됨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O/X)
- ③ ㉢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은 ㉢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O/X)
- ④ ㉢은 ㉠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 주는, ㉢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O/X)
- ⑤ ㉢과 ㉢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이다. (O/X)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최척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를 나타나게 하거나, 예언의 실현을 보여 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하거나,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의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

- ① 옥영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옥영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O/X)
- ② 몽석의 꿈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내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군. (O/X)
- ③ 최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장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O/X)
- ④ 옥영이 들은 ‘피리 소리’는, 옥영이 최척을 떠올리게 하여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O/X)
- ⑤ 최척과 옥영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O/X)

2023학년도 9월

이때 예부 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정 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 종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 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데, ㉠ 마침 정 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황제 만조백관더러 묻기를,
 “정 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왈,
 “정 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르웁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 있는 줄 아나이다.”

황제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아뢰길,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별로 다스리오리까?”
 황제 듣지 않고 절강에 귀양을 정하시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 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 크게 울며,
 “내 일찍 국은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하고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 통도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 워하더라.
 사관이 재촉 왈,
 “㉡ 황명이 급하오니 수이 행장 차리소서.”
 정 상서가 일변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외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하고 즉시 발행할새,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정 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절강 만호가 판사를 깨닫이 하고 정 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차설. 정 상서 적거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흉연 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영결하니 절강 만호 슬퍼 놀라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께 기별하니라.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 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 문득 시비 고하되,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하거늘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 정 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하니 시비 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 오듯 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장원 급제한 뒤 복적을 물리친다.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훈자인 장연과 혼인한다.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연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 지경에 이르러 한복더러 묻기를,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수십 리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듣고 나는 듯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새 진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풀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진량이 다만 살려 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르고 무사 진량의 머리를 드리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황제께 ㉤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장연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귀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각로 평복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차설. 장연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뵈옵고 전후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 왈,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오.” 장연의 다른 부인들 인 원 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 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O/X)
- ② ‘중관’은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O/X)
- ③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O/X)
- ④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O/X)
- ⑤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진량에게는 정 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긴다. (O/X)
- ② ㉡으로 정 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O/X)
- ③ ㉢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 (O/X)
- ④ ㉡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O/X)
- ⑤ ㉣으로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O/X)

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X)
- ② ㉠은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X)
- ③ ㉣은 호왕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X)
- ④ ㉣은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O/X)
- ⑤ ㉠과 ㉣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O/X)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O/X)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O/X)
- ④ ‘장연 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O/X)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함/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3학년도 6월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난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드.”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알,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었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알,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알,

“㉡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간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알,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봐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 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매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가?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알,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금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알,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려? 네 굴이 내 얼굴이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패악을 떨려 하느냐?”

상서 알,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알,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붙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알,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렸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등 사람이 웃으며 알,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여젓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별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O/X)
-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O/X)
-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O/X)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O/X)

2. 뒷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O/X)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O/X)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O/X)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O/X)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O/X)

3.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O/X)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O/X)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O/X)
-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O/X)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O/X)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O/X)
- ③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O/X)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O/X)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O/X)

2022학년도 수능

이때 태보 궐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 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A]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물랐으니 무슨 낫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고하사,
 “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응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 백성이 구름 뒤편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B] “인명이오면 재천이옵거늘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 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궐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옵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겹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뱉어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촌**에 개 짓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

는지라.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힘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뒤편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 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뒤라서 붙들랴.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 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벗을 적시고, 금수로 벗을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O/X)
-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꿴다. (O/X)
- ③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O/X)
- ④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O/X)
-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O/X)
-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중전이 거처해야 하는 곳이다. (O/X)
-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O/X)
- ④ ‘과찰’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O/X)
- ⑤ ‘십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O/X)

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O/X)
- ②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O/X)
-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O/X)
- ④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O/X)
- ⑤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다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O/X)
- ② 국운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O/X)
-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O/X)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O/X)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2학년도 9월

[앞부분의 줄거리] 제주도에 간 배 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배 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㉔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 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물었다.

“㉕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무슨 말이람나? 양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엄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 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소.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바빠 가시라구! 요 사이 세력이 빨갛줄 같은 배 비장도 궤 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

배 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 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잣말로 자탄을 하겠다.

“허허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 우리 부모 만류할 제 오지나 말 았다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예 았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 데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마는,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은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붙은 데 붙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말공대를 얼마쯤 울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㉖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이곳 풍속을 모르고.”

“실수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 또 성함은 뉘시 오니까?”

“성명은 차차 아시시오마는, 내가 이곳에 불일이 있어서 왔다가,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오.”

“그러하면 가이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나고,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다.”

“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

“참 딱한 일이올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 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㉗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어! 사공은 왜 찾아?”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

“물로 가는 배여.”

원래 배 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휘이 쉬며,

“히!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붙게,

“여보시오, ㉘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

사공은 목낭청*

의 혼이 씩었던지 그대로 좇아가며,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싣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종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선이오?”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 목낭청 : 자기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집’은 ‘배 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O/X)
- ② ‘배 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 (O/X)
- ③ ‘계집’은 ‘배 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넌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X)
- ④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사공’은 ‘배 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 중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 ㉡ (O/X) ② ㉠, ㉣ (O/X) ③ ㉡, ㉢ (O/X)
- ④ ㉢, ㉤ (O/X) ⑤ ㉣, ㉤ (O/X)

3.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이다. (O/X)
- ② 주인공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되었다. (O/X)
- ③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O/X)
- ④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것이다. (O/X)
- ⑤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 한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 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 ① '양반이' 문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 비장의 행위에서,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O/X)
- ②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한 배 비장의 태도에서,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O/X)
- ③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 비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군. (O/X)
- ④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 비장의 모습에서,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O/X)
- ⑤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한 배 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2학년도 6월

[앞부분의 줄거리] 김 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혼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 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 기생을 면함은 다행하나,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한하고 이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에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헌신하니 감사가 일견 대희하여 칭찬하며 왈,

“가위 여옥기인(如玉其人)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승상 접하(承上接下)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민원(民怨)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필성이 국궁수명(鞠躬受命)*하고 차후로 공사 문첩(文牒)*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 리라 어찌 알리오.

차시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 하루는 ㉢ 공사 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연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예를 드나드나.’

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이방이 갈리었습니까?”

“응,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네 보아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꺼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 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 이미 반년이라.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이때는 추구월(秋九月) 보름 때라. 월색은 명량하여 남창에 비치었고, 공중에 외기러기 웅웅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간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회를 돕는지라. 있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A]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너는 어찌 못 보고.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뜬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낙천(萬古文章白樂天)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량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흥신 갈고 청황모 무심필을 덤뎌 풀어 백릉화 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장우단탄(長吁短歎)에 맥맥히 앉았다가 고개를 돌리어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중략)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떨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려더니,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야몽(晝思夜夢) 꿈이 되어 장주(莊周)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 좇아 중천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피니,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적막 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의 답시(答詩)를 내놓고 보며 울고 울고 보며 전전반측 누웠거늘,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더라.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물론(上下勿論)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 이때 이 감사는 연광도 팔십여 세뿐 아니라, 일도방백(一道方伯)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은(國恩)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더니, 홀연히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가 나이 십팔 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하니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 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우어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거늘, 마음에 괴이하여 가만히 들어가 ㉧ 두루마리를 펼치고 본즉 ‘추풍감별곡’이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 국궁수명 :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며 분부를 받음.

* 공사 문첩 : 관청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의 걱정을 산다. (O/X)
- ②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다. (O/X)
- ③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O/X)
- ④ 송이는 필성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다. (O/X)
- ⑤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챈 감사는, ㉡를 읽으며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된다. (O/X)
- ② ㉠을 작성한 사람에게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다. (O/X)
- ③ ㉠을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에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O/X)
- ④ ㉠을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O/X)
- ⑤ ㉠을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를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O/X)

3. [A]의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O/X)
- ②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O/X)
- ③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상대이다. (O/X)
- ④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송이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게 한다. (O/X)
- ⑤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O/X)

4.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 ① ㉠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 왔던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O/X)
- ② ㉡은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회하고자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게 되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한다. (O/X)
- ③ ㉢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편,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낸다. (O/X)
- ④ ㉣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면서,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O/X)
- ⑤ ㉣은 감사의 사람됨과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 짓게 하는 한편,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 (O/X)

03 개념어 공부

1 장면과 요약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직접제시 vs 간접제시

ex) 은우는 참 착한 아이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항상 사랑받는다.

ex) 어느 하루 매우 무더운 날이었다. 낮 기온이 36도 정도 되었을까?
청량리 광장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은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바로 은우였다.
은우는 한 할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여 그 쪽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우는 할머니가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 직접제시

(=말하기=Telling=요약적 제시, 분석적 제시)

인물의 외양, 행동, 성격, 상황 등을 '서술자가 직접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것.

단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

• 간접제시

(=보여주기=Showing =장면제시=극적 제시):

인물의 외양, 행동, 성격, 상황 등을 '대화와 묘사'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것. 마치 연극을 보는 것 처럼 장면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

직접제시와 간접제시는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다.

즉, 직접제시가 나온다고 간접제시가 없고, 간접제시가 있다고 해서 직접제시가 안나오는 것은 아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범위를 주고 직접/간접 제시가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본다!

개념 ② 속도감

• 직접제시 : 속도 ↑ , 간접제시 : 속도 ↓

• 간결체 : 속도 ↑ , 만연체 : 속도 ↓

개념 ③ 성격 제시 방법

- **성격** : 인물의 고유한 특성 :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인물의 MBTI같은 '성향' 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외양', '동기', '가치관', '갈등에 대한 대처', '성장과 변화', '인물의 삶의 배경',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인물에 대한 정보는 모두 성격이다.
- **입체적 인물** : 인물의 성격이 변화한 경우
- **성격 직접제시**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경우
- **성격 간접제시** :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성격을 파악하게 하는 경우

다음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뻥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독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새끼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을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훌쩍 일어나 팔짱팔짱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황순원 <소나기>

홍부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이라. 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쏘냐?

작자미상 <홍부전>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사 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약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 가면 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향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불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개념 1 직접제시 vs 간접제시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 최명희, 「쓰러지는 빛」 - (2023학년도 수능)

‘영익이’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O X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 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었다. 그의 자만(自慢)은 그것뿐만 아니었다. 그는 경기도 출생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똑똑한 체를 하였다.

- 이기영, 「고향」 - (2024학년도 수능)

‘안승학’의 인물상이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O X

“이쁜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2019학년도 수능)

‘이쁜이’의 어머니가 상황에 대해 갖는 애상적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O X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 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 최명익, 「무성격자」 - (2024학년도 6월)

‘정일’이 가진 ‘용팔’에 대한 적개심이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O X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주자, 자못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묻자,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 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 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요.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2021학년도 수능)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나업’의 인격적 성격을 알 수 있다.

O X

황제 듣지 않고 절강에 귀양을 정하시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 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 크게 울며, “내 일찍 국운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요.”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2023학년도 9월)

‘정 상서’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O X

이때 예부 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정 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 중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 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2023학년도 9월)

‘진량’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X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2023학년도 6월)

‘여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질투심이 많은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 X

개념 2 속도감

그러나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이를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 주었다.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들이 지났다. 울음에도 지쳤다.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 설마 죽었을라고. —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 오영수, 「갯마을」 - (2022학년도 9월)

간결한 문장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X

있었을까. 그날 밤 머리의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 상실증인가 뭐라고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뻑뻑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의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의 의젓한 것이었다.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2024학년도 9월)

사건의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상황의 긴박감을 강조하고 있다. ○ X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 (2020학년도 9월)

사건에 대한 인물의 심리 묘사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O X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드는 파리처럼 우욱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었다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2021학년도 6월)

간결한 서술을 통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 X

이때는 추구월(秋九月) 보름 때라. 월색은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었고, 공중에 외기러기 웅웅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간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2022학년도 6월)

‘송이’의 행동이 속도감 있게 제시되며 상황의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O X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심에 정녕 부친인 줄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라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
심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에 두 눈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심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희번덕, 짹짹’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못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개벽이라.

- 작자 미상, 「심청전」 - (2021학년도 9월)

이야기 전개 속도감을 늦추며 비현실적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O X

남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
 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낮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젓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니 답답하
 나이다.”
 하고 할머니께 빌며,
 “할머니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
 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2024학년도 9월)

‘편지’를 받고 분노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속도감 있게 나타낸다.

O X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서찰을 본즉 태부인
 의 서찰이라. 기빠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
 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
 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
 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작자 미상, 「정수정전」 - (2023학년도 9월)

‘정수정’의 상황이 전환되는 것을
속도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O X

개념 3 성격 제시 방법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러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쥔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콧 질리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
 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
 모를 고스란히 건디고 있었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 (2020학년도 9월)

‘피문오 씨’의 행패를 건디는 것을 통해
‘지옥’의 성급한 성격을 알 수 있다.

O X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
 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
 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
 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
 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
 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
 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2023학년도 6월)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
‘자기’의 겸손한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O X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 (2022학년도 수능)

‘김달채 씨’가 평소 용감한 성격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O X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허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도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었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 홍성원, 「무사와 약사」 - (2022학년도 6월)

사건의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상황의 긴박감을 강조하고 있다. O X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윤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2020학년도 수능)

결과 속이 다른 ‘세형’의 성격이 서술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O X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몸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누가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흉적은 목을 늘여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설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 작자 미상, 「김원전」 - (2024학년도 수능)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아귀’의 압도적 무력과 무자비한 성격이 드러난다. O X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노파가 안타까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죠. 단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께 영영에게
 반나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낭군께선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
 소!”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작자 미상, 「상사동기」- (2024학년도 6월)

‘생’과 ‘노파’의 성격 차이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O X

혼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
 매 하인들이 기뻐했다.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
 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옥영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길
 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
 성을 다하고,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
 를 두루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
 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 조위한, 「최척전」- (2023학년도 수능)

유교적 가치관에 충실한 ‘옥영’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O X

Step 3. 스스로 정리하기



2 시점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내면 심리 묘사, 내적 독백, 의식의 흐름 기법

1. **내면 심리 묘사** : 인물의 머릿속 생각이나 느낌을 서술하는 경우
2. **내적 독백** : 인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여과없이' 제시하는 경우
3. **의식의 흐름 기법** : 인물의 의식이 정리 없이 뒤죽박죽으로 섞이면서 나타나는 경우.
'내적 독백'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비논리적인 서사가 나타나고, 시공간이 뒤죽박죽이 된다.

✱

어렵지? 그냥 외우자, 딱 4개!

- 이상 <날개>,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최인훈 <광장>, 오상원 <유예>

ex)

내면 심리 묘사

주인공은 눈앞의 선택에 대해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할 경우의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생각들을 천천히 저울질하며,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내적 독백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아니, 괜찮아야만 해.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냐, 실패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성공해야만 해.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지만...” 주인공의 머릿속은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불안과 기대, 결단력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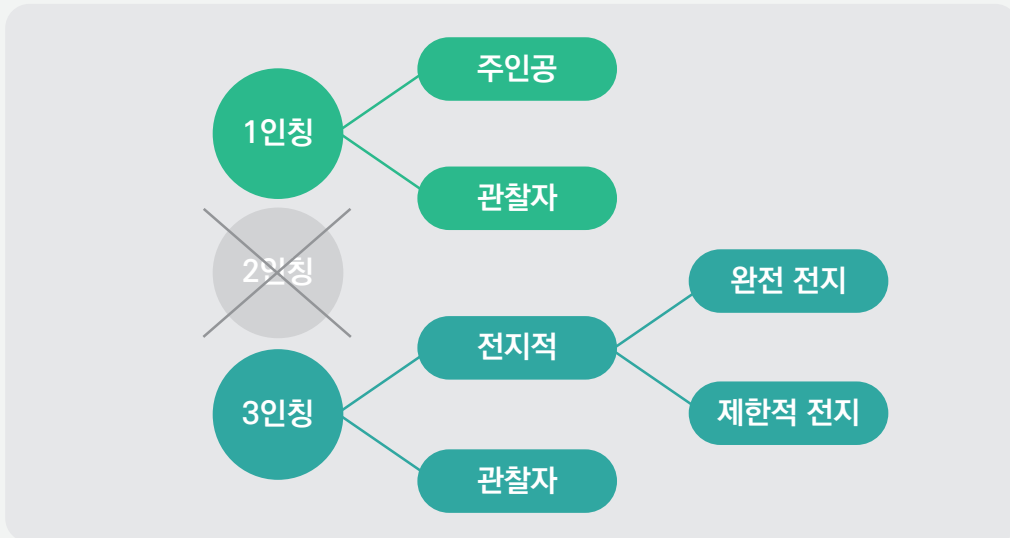
의식의 흐름 기법

1. 도전, 그리고 실패? 아니, 성공의 달콤함, 아니면... 비가 내리는 소리, 창문 너머로... 실패, 그 무거운 말. 하지만 빛, 어디선가... 희망, 두려움, 비의 리듬, 시계소리, 흐릿한 기억 속의 웃음... “할 수 있어”라는 말이 먼 곳에 서... 흐릿한 결정, 시간의 흐름 속으로... 주인공의 마음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으며, 그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혼란스럽게 얽혀 있었다.

2. 눈이 함빡 쌓인 흰 독길이다. 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흰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यो. 것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 뿐, 아무 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투른,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아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렵듯이 들려 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희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 것도 아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오상원 <유예>

개념 2 시점 정리



1. 기준

- 나 있는지 vs 없는지
- 주인공 vs 관찰자
- 주관적 vs 객관적
- 내면심리 아는지 vs 모르는지
- 초점화자가 있는지 vs 없는지

ex)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휴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뭇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복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나?”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복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녀들 체면 깎았나.”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최일남 <흐르는 복>

다음 페이지에 계속

개념 2 시점 정리

2. 시점 전환(변환)

1인칭 내에서의 변화, 1인칭-)<-3인칭

주로 병렬식 구조, 액자식 구성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병렬식 구조와 액자식 구조 자체가 잘 없다.

ex)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엇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갯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되,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싸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얹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꽃히더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땀돌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중략]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 황석영, 「가객」 -

개념 3 서술자 개입 ≡ 서술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1.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But, ‘내면 심리 묘사’는 서술자의 개입이 아니다.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김만중 <사씨남정기>

다음 페이지에 계속

개념 3 서술자 개입 ≡ 서술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2.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거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경우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귀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귀더러 왈,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귀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옮겨를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장자귀 왈,
“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權道)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작자미상, <서동지전>

3. 서술자의 의견이나 추측이 있는 경우

이른 아침이어서 집 안의 바깥채가 떠들썩하겠건만 안채, 행랑채 할 것 없이 모두 호기심에 들떠서 벌써부터 담장 너머 구경군들 속에 섞여 버린 모양인지 쥐 죽은듯 조용했다.

참으로 박정한 세상이다. 남의 경사나 기쁜 일을 구경하고 즐긴다면 모르겠지만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구경해서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벌써 선한 마음이 아니다. 하기는 오정문 밖 장터에서 죄인의 목을 벤다면 먼 촌에서 도시락까지 싸들고 구경을 온다니 그 무지물각한 마음의 선악을 구태여 따져서 무엇하라.

홍석중, <황진이>

4. 서술자가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는 경우

벗섬을 저 나르는 구천의 다리 뒤에 숨어서 살금살금 걸어오던 자그마한 계집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앙증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의 나이는 다섯 살. **장차는 어찌 될지**, 현재로서는 최치수의 하나뿐인 혈육이었다. 서희는 어머니인 별당 아씨를 닮았다고들 했으며 할머니 모습도 있다 했다. 안전하지 못한 것은 나이 탓이라 하고 기상이 강한 것은 할머니 편이 기질이라 했다. 서희를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있던 봉순이 건너오려 하는데 서희는 맴돌아 구천 이 앞으로 달아나며 끼룩끼룩 웃는다. [중략]

그 웃음은 도리어 서희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서희로부터 시선을 돌린 치수는 서안 위에 펼쳐 놓은 책의 갈피를 넘긴다. 허약한 체질에 비하면 뼈마디는 굵은 편이었다. 그러나 가엾을 만큼 여위고 창백한 그의 손이 책갈피를 누르면서 눈은 글자를 더듬어 내려간다. 손뿐인가, 뜰아래 물기 없는 목련의 앙상한 가지처럼, 그러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비참한 느낌이기보다는 도리어 상대에게 견딜 수 없는, 숨 막혀서 견딜 수 없어 결국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강한 분위기를 그는 내어 뽐고 있었다. 어떤 일에도 감동되지 않을 눈빛, 철저하게 스스로를 거부하는 눈빛, 눈빛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뼈만 남은 몸 전체가 거부로써 남을 학대하는 분위기의 응결이었다.

일단 방에 들어온 뒤에는, 나기도 좋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서희는 일어설 수 없다. **숨소리를 죽이며, 그래서 가냘픈 가슴이 더 뛰고 양어깨로 숨을 실 수밖에 없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것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박경리, <토지>

5. 각설, 차설 등 서술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때였다. 영신의 신변을 노상 주목하고 다니던 순사가 나와서 다짜고짜,
“주임이 당신을 보는데, 내일 아침까지 주재소로 출두를 하시오.”

하고 한마디를 이르고는 말대답을 들을 사이도 없이 자전거를 되짚어타고 가 버렸다.

‘무슨 일로 호출을 할까?’

‘강습소 기부금은 오백 원까지 모집을 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가?’

영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영신과 주재소 주임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나 그 밖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출한 요령만 따서 말하면,

‘첫째는 예배당이 좁고 후락해서 위험하니 아동을 팔십 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더 받지 말라는 것과, 둘째는 기부금을 내라고 돌아다니며, 너무 강제 비슷이 청하면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것을 단단히 주의시키는 것이었다.

심훈, <상록수>

개념 1 내면 심리 묘사, 내적 독백, 의식의 흐름 기법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앓아 갔던 아틀리에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2021학년도 수능)

청각을 통해 유발된 '나'의 권태로운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O X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놓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농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금씩 도장을 뒤흔대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 최명익, 「무성격자」 - (2024학년도 6월)

'정일이'의 내적 독백을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생동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O X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의 친정 어머니를 남겨 두신 채, 신형 후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이었다.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쪽으로는 흰모래 둥근 자갈밭을 데불은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 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그저 움막처럼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엮은 뒤, 풍우나 피하자는 시늉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 최명희, 「쓰러지는 빛」 - (2023학년도 수능)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O X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영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싹 다가앉았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2024학년도 9월)

내적 독백을 통해 '몽달 씨'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 X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 조위한, 「최척전」 - (2023학년도 수능)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의 기쁨을 인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X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최척 부부는 후사를 염려하여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함께 반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다음 해 갑오년 정월 초하루에도 반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반복사의 부처로다. 너희 정성이 가상해 기이한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옥영은 그달에 바로 잉태해 열 달 뒤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夢釋)이라고 지었다.

- 조위한, 「최척전」 - (2023학년도 수능)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꿈’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한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O X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땀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땀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크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 작자 미상, 「장끼전」 - (2020학년도 9월)

내적 독백을 통해 ‘장끼’가 ‘서대주’를 찾아간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O X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2023학년도 6월)

내적 독백을 통해 ‘여씨’와 ‘석씨’ 간의 신뢰 관계가 드러난다. O X

개념 2 시점 정리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라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쥔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확 질리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 (2020학년도 9월)

서술자가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인물의 갈등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O X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길길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투명스러워졌다.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2024학년도 9월)

서술자가 1인칭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 X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것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 (2019학년도 9월)

서술 시점을 전환하여 장면에 몰입감을 준다. O X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거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쭈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거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을 쭈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2023학년도 9월)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O X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2023학년도 6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O X

흔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매 하인들이 기뻐했다.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옥영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길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 조위한, 「최척전」 - (2023학년도 수능)

3인칭 전지적 시점을 통해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의 모습이 나타난다. O X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수십 리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들고 나는 듯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새 진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꿰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진량이 다만 살려 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진량의 머리를 드리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2023학년도 9월)

전지적 시점을 통해 ‘진량’을 처형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이때 태보 꺾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물렸으니 무슨 낮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2022학년도 수능)

시점의 전환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O X

개념 3 서술자 개입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크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2023학년도 6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O X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홀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령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 박태원, 「천변풍경」- (2019학년도 수능)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O X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헛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 노인은 물을 보기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요를 독여서 병상을 돌우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 드렸다.

- 최명익, 「무성격자」- (2024학년도 6월)

서술자가 개입하여 '노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O X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 왔다.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결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그들의 경형에는 트림이 없었다.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째깍한 칠야,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물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 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점으로 모여들었다. 이리저리 동안에 날이 섰다.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 가고 파도도 낮아졌다. 샌 날에 보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 오영수, 「갯마을」- (2022학년도 9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O X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겹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록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2022학년도 수능)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O X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뒤편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 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2022학년도 수능)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장사'에 대한 인물의 슬픔이 제시된다.

O X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 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2023학년도 6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O X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즉,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2021학년도 6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우치'의 기이한 도술에 대한 평가가 제시된다.

O X

Step 3. 스스로 정리하기



3 문체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간결체, 만연체

1. **간결체** : 문장의 길이가 짧음.
2. **만연체** : 문장의 길이가 길. 한 문장이 2~3줄 이상

* 간결체가 있다고 만연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둘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 하계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 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 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전차도 전차러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설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려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박태원 <천변풍경>

개념 ② 묘사

- **객관적 묘사** :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경우. 흔히 감각적 묘사를 활용한다.
- **주관적 묘사** : 주관이나 감정 등을 개입해 묘사한 경우. 흔히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다.
- **비유적 묘사** : 비유를 활용한 묘사
- **감각적 묘사** :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한다.
- **환상적 묘사(전기성)** : 비현실적인 장면을 묘사한다.
- **섬세한 묘사** : 감각적 묘사가 있는 경우 으레 맞다.

개념 3 격식체, 비속어, 사투리

1. **격식체** : 저속하지 않은 말투 - 종결어미로 파약 (하십시오, 하오, 하계, 해라체)
2. **비속어** : 격이 낮고 속된 표현 - 종결어미로 파약.
현장감, 생동감 부여. 경우에 따라 친밀감, 반감 등을 자아낼 수도 있다.
3. **사투리** :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 어느정도 익숙해져야 한다.
현장감, 생동감 부여. 경우에 따라 친밀감, 반감 등을 자아낼 수도 있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라오.”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장 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에게 물러 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불효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작자미상, <유충렬전>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켜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봐라!”

박경리<토지>

“게서 뭇 허냐?”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탕지거리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멋 있는 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냐?”
“무슨 불? 허어 참, 그러게 장가를 가라구.”
“.....”
“도깨비불 좋아하네..... 저게? 술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 소리는 안 헐 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러? 저건 서울서 온 낚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여. 명색 문화 인이라면서 밤낚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먼.”

이문구 <관촌수필>

개념 4 해학, 풍자

1. **해학** : 웃음을 유발하면서 비판적인 의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웃음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안 웃기다는 것에 있다.

부장님 개그에 웃어주 듯, 웃음 코드를 배워보자.

(1)언어유희 (2)과장된 행동 (3)우스꽝스러운 외양 묘사 (4)어리숙한 인물 (5)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해보자.

2. **풍자**: 현실의 부정적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독자가 그러한 현실에 냉소하게 하는 문학 양식

(1) 우회적 기법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땡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땡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덕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덕이오?”

작자미상 <가치전>

(2) 대상을 비꼬고 비아냥 대는 것

놀부 심사를 볼작시면 초상난 데 춤추기, 불붙는 데 부채질하기, 해산한 데 개 잡기, 장애가면 억매(抑賣) 흥정하기, 집에서 몹쓸 노릇하기, 우는 아해 불기 치기, 갓난 아해 똥 먹이기, 무죄한 놈 빵 치기, 빗값에 계집 빼앗기, 늙은 영감 덜미 잡기, 아해 뺨 계집 배 차기, 우물 밑에 똥 누기, 오려 눈에 물 터놓기, 잦힌 밥에 돌 퍼붓기, 패는 곡식 이삭 자르기, 논두렁에 구멍 뚫기, 호박에 말뚝 박기, 곱사장이 엮어 놓고 발꿈치로 탕탕치기, 심사가 모과나무의 아들이라. 이놈의 심술은 이러하되, 집은 부자라 호의호식하는구나.

작자미상 <홍보전>

(3) 부정적 대상이 오히려 잘되는 경우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썩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씩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 달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지푸러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는 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중략]

“그러니, 여보게 미씨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 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 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구삼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일랑 목을 썰어 죽이구, 다른 놈들일랑 뺨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주구. 끓어앉히구 행복 받구. 그리구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다 찾구. 집허구 세간 처부신 것 말끔 다 물리구.....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씨다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머, 지금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면 었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발을 만들어 놓니다, 쑥발을.”

채만식 <미스터 방>

개념 1 간결체, 만연체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곁엔 개가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파라솔·괘짝·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2021학년도 수능)

간결체를 통해 '나'의 눈 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O X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근 아니면 올림픽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 (2022학년도 수능)

간결한 서술을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O X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 돌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 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 양귀자, 「한계령」 - (2019학년도 6월)

호흡이 긴 문장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

O X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공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2021학년도 수능)

임표를 활용해 문장의 길이를 길게 서술하고 있다.

O X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絶島)에 안치되매 더욱 앙양(愴愴)하여* 불측지심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경업이 나아와 주왓,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빠 국문하옵소서.”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 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날이 밝으며 자점을 올려 국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상이 노하여 자점의 삼족을 다 내어,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

-작자 미상, 「임장군전」 - (2019학년도 수능)

‘경업’이 ‘자점’과 합심하여 ‘상’을 음해하려 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O X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랴더니, 금일 이별 어이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나?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년 나을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나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작자 미상, 「춘향전」 - (2018학년도 9월)

이별을 맞이한 ‘도련님’과 ‘춘향’의 정서를 대화를 통해 상황하게 묘사하고 있다.

O X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2018학년도 수능)

‘학사정’의 물이 가진 신비한 효능을 간결하게 드러내고 있다.

O X

화실, 장 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할하여 아버지, 어머니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2020학년도 수능)

간결한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O X

개념 2 묘사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맹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늘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2022학년도 수능)

사건에 대한 환상적 묘사를 통해 사건의 비현실성을 강조한다.

O X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찢찢때때가 간신히 떠 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황만근은 제대로 숨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동네 곳곳의 닭들이 헛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2021학년도 6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묘사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O X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

이라고 웃으셨다는 아버지.

“처음에는 저게 자랄까 싶었던다. 그러던 게 이듬해는 키를 넘드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곁에 손수건만 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낀다.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덮는 잎사귀,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어귀 천변에까지 들리는 성싶었다.

-최명희, 「쓰러지는 빛」-(2023학년도 수능)

비유적 묘사를 통해 ‘오동나무’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O X

가게 안에 복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썸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갈사탕만 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김소진, 「자전거 도둑」-(2020학년도 수능)

‘흑부리 영감’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통해 독자가 상황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O X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짚박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갓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평 눈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날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작자 미상, 「옹고집전」 - (2019학년도 6월)

‘짚옹고집’이 ‘참옹고집’을 수상하게 여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뻗뻗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으되, ‘만고출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뒷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작자 미상, 「조웅전」 - (2020학년도 6월)

비현실적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신비성을 강조하고 있다.

O X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厚意)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과연 모월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남자를 보았다네. 나이는 대략 십오륙 세에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백릉버선에 자색 신을 신었지. 진주 비녀를 꽂고 새하얀 옥 반지를 끼고, 홍화문 앞길을 지나가고 있었다네.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을 이기지 못해 뒤따랐는데, 마지막에 이른 곳이 곧 할멈의 집이었는데. 그 날 이후로 마음이 혼미하여 만사가 흐릿하며, 오로지 그 남자만 생각했다네.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 깨나 잊지 않아 상심하며 애태우길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 할멈이 나를 보고 낮빛이 파리하다 했는데 왜 그랬겠나?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다며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작자 미상, 「상사동기」 - (2024학년도 6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면서

‘남자’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X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쏘냐?”

하거늘 길동이 받아 보니,

“제일은 이 앞에 초부석(樵夫石)이란 돌이 있으되 무게 천 근이라,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이는 무쇠로 철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오백 근이라, 그 철관을 쓰고 이 앞 돌문 삼백 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요, 또한 해인 사라 하는 절이 있으되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요,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길동이 한 번 보고 대소왈,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오?”

하고, 모든 역사를 데리고 초부석 있는 곳에 나아가 혼연히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공중에 던지니, 그 돌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돌을 차니 수십 보 밖에 내려지는지라. 중인이 대경하여 또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철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니, 모든 무리 일시에 고함하여 왈,

“천하장사로다!”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모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 「홍길동전」 - (2019학년도 9월)

‘길동’이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통해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O X

개념 3 격식체, 비속어, 사투리

“저희들이 이렇게 댁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때우고 갔습니다만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벌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렵잖아.....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것이야.....”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 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세 개나 허비했지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네 번째 불을 땡겨서는 실 새 없이 빠끔빠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 풀에 화가 나서 담뱃대를 탁 밀어 내던진다.

- 이기영, 「고향」 - (2021학년도 9월)

‘희준이’는 격식을 차리며 협상을 시도하지만 ‘안승학’은 거절하고 있다.

O X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꺼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나는 꽤않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 뜰 녀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맵히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는 더 맵힐거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하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나라. 이 문디 걸은 놈의 자숙아, 와 밥만 해 놓고 물은 안 떠다 냈나!”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텅실텅실 춤을 추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2021학년도 6월)

격식체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O X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 쫓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있는지조차 흰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이런 민한 중간나래! 암생이처럼 기러케 쫓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뒤편이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뽀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 주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2020학년도 수능)

비속어와 방언을 통해 ‘아버지’의 순간적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O X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투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2022학년도 6월)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O X

이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 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묻는다.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2022학년도 9월)

격식체를 통해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인물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O X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어! 사공은 왜 찾아?”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
 “물로 가는 배여.”
 원래 배 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휘이 쉬며,
 “허!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어법을 고쳐 입맛이 씩 들어붙게,
 “여보시오,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
 사공은 목냥청의 혼이 씩었던지 그대로 쫓아가며,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옵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싣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중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신지요?”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2022학년도 9월)

인물 간의 대화가 비격식체에서 격식체로 전환되면서,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O X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꿇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2020학년도 9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O X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뿔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걸었던 주름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명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 (2018학년도 수능)

‘사 씨’가 겪은 기이한 경험을 ‘유모와 시비’에게 격식체로 전달하고 있다.

O X

개념 4 해학, 풍자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니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핵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데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 헌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높이 살아나구, 살 높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 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봐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 구 허니.”

-채만식, 「미스터 방」- (2023학년도 6월)

자신의 권력을 맹신하는 '미스터 방'을 풍자하고 있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흥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제 죽여 보아라! 화적 놈 불려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뽐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흠뻑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흥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불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얘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박경리, 「토지」- (2020학년도 6월)

해학적 어조를 통해 '흥 씨'의 악인적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테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침지 수동이 아버지가 희준이 이렇게 다섯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그
 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일인가? 식전 댓바람에 내 집애를 이렇게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위엄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보고 말하십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이기영, 고향- (2021학년도 9월)

'김선달이 받는 말'을 통해 '안승학'의 거만한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 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껏하던 이야기를 푹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피죄죄한 물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통무니에 꿰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웃옷 자락을 슬쩍들어 케이스의 끝 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넓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형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것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짬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2022학년도 9월)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 속여 권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그 이튿날에도 조문화의 가인이 소저를 찾아갔더니 빈집만 황량할 뿐 다시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몹시 놀랐고도 의아하여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저 집 소저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 사람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소저고 대저고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 무안만 당하고 돌아가 조문화에게 고했다.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2016학년도 9월)

‘마을 사람’의 언어유희를 통해 ‘조문화의 가인’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O X

이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 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묻는다.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무슨 말이람나? 양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엄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소.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바빠 가시라구!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 비장도 궤 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

-작자 미상, 「배비장전」- (2022학년도 9월)

‘계집’의 말을 통해 예의를 차리지 않은 ‘배 비장’의 품행을 풍자하고 있다.

O X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조위한, 「최척전」- (2023학년도 수능)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O X

이혈룡이 어이가 없어서,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문전걸석하고 다니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괘시한단 말이나? 오랜 친구도 쓸데 없고 결의형제도 쓸데없구나. 내가 네 처지라면 이같이는 괘시하지 않을 거다.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 모친과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하면서 대성통곡하였다.
 이혈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몸쓸 김진희야, 내가 지금 문전의 노자가 없으니 멀고 먼 서울 길을 어찌 돌아가랴.”
 하니, 김 감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하였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작자 미상, 「옥단춘전」- (2016학년도 9월)

‘이혈룡’이 ‘김 감사’를 조롱하며 그의 악인적 면모를 풍자하고 있다.

O X

Step 3. 스스로 정리하기



04 단원의 마무리

01. 문제 유형 분석

소설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은 대개 (1), (2), (3), (4), (5)이다.

02. 소설의 논리와 해석

문학의 3요소 중 유기성을 고려해서 해석할 때,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이다. 인물의 (2)을 파악하여 줄거리를 해석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3)에 동그라미를 친다. 그리고 2번 이상 나온 인물들은 관계를 고려하여 (4)를 그린다. 그리고 대화 및 행동, 서술자의 서술 등에서 (5)을 파악한다. 또한 인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6)를 파악한다. 이로서 인물간의 (7)을 파악한다. 시공간적 배경은 나올 때마다 별표친다. 스키마는 같은 말, 반대 말 도형치고, 유기성을 활용하여 파악한 소설의 (8), (9), (10)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배경지식은 틈들이기 워크북을 통해서 하나 하나씩 쌓아가자!

01. 문제 유형 분석

1. 서술상의 특징 / 2. 시공간적 배경 / 3. 인물의 성격 / 4. 주제 / 5. 줄거리/

02. 소설의 논리와 해석

1. 인물 / 2. 성격 / 3. 등장인물 / 4. 가계도 / 5. 성격 / 6. 주요 소재 / 7. 갈등 / 8. 주제 / 9. 줄거리 / 10. 구조

03. 개념어 공부

장면과 요약

1. 직접 제시 VS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인물의 외양, 행동, 성격, 상황 등을 서술자가 직접 (1)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간접제시는 인물의 외양, 행동, 성격, 상황 등을 (3)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것이다. 장면을 (3)할 수 있다.

2. 속도감

직접제시는 속도가 (4), 간접제시는 속도가 (5)

간결체는 속도가 (6), 만연체는 속도가 (7)

장면과 요약

1. 요약 / 2. 대화와 묘사 / 3. 극대화 / 4. 빠르다 / 5. 느리다 / 6. 빠르다 / 7. 느리다/

시점

내면 심리 묘사는 인물의 머릿속 생각이나 느낌을 서술자가 서술하는 경우이다.
내적 독백은 인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1) 제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2)이 이어져 인물의 의식이 정리 없이 뒤죽박죽으로 섞이면서 나타나는 서술 방법이다.

이상의 (3), 박태원 (4), 최인훈 (5), 오상원 (6)

시점 정리는 (7)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1인칭, 3인칭으로 나뉘고, 1인칭에서는 (8)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서술하는 경우에는 (9)시점, 아닌 경우에는 (10)시점이 된다.

3인칭에서는 서술자가 (11)를 아는지 모르는 지에 따라 (12)과, (13)시점으로 나뉜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도 (14)한 사람의 심리만 아는 경우에는 (15)전지, (16)사람에 대해서 아는 경우에는 (17)전지가 된다. 일반적으로 1인칭보다는 3인칭이 더 객관적이고, 1인칭에서는 주인공보다 관찰자가 더 객관적이고, 3인칭에서는 전지적보다 관찰자가 더 객관적이고, 완전 전지보다는 제한적 전지가 더 객관적이다.

시점 전환은 1인칭 내에서, 혹은 1인칭에서 3인칭,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변화가 잦다. 주로 병렬식 구조나 액자식 구성에서 나타날 수 있다.

서술자 개입은 서술자가 자신의 (18)을 드러내는 경우,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19)하거나 인물에 대한 (20)이 있는 경우, 서술자의 (21)이나 추측이 있는 경우, 서술자가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는 경우, (22) 등 서술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시점

1. 여과 없이 / 2. 내적 독백 / 3. 날개 / 4.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5. 광장 / 6. 유예 / 7. 나,우리 / 8. 갈등 상황 / 9. 주인공 / 10. 관찰자 / 11. 내면심리 / 12. 전지적 작가 시점 / 13. 관찰자 / 14. 초점화자 / 15. 제한적 / 16. 모든 / 17. 완전 / 18. 감정 / 19. 직접 제시 / 20. 평가 / 21. 의견 / 22. 각설 차설/

문체

1. 간결체, 만연체

간결체의 비해 만연체는 문장의 길이가 (1). 한 문장이 (2) 이상이다.

2. 묘사

객관적 묘사는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경우로, 흔히 (1) 묘사를 활용한다.

주관적 묘사는 (2)이나 (3) 등을 개입해 묘사한 경우로 흔히 (4)와 (5)을 활용한다.

비유적 묘사는 (6)를 활용한 묘사이다.

감각적 묘사는 (7)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한다.

환상적 묘사는 (8) 즉 비현실적인 장면 등을 묘사한다.

섬세한 묘사는 으레 맞다.

3. 격식체, 비속어, 사투리

격식체는 저속하지 않은 말투로 (1)로 파악한다. 비속어는 격이 낮고 속된 표현으로 (2)로 파악한다.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친밀감, 반감 등을 자아낼 수도 있다. 한편 사투리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으로 어느정도 익숙해져야 한다.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친밀감, 반감 등을 자아낼 수도 있다.

4. 해학, 풍자

해학은 (1)을 유발하면서 (2)적인 의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웃음 코드를 배워보자. (1) 언어유희 (2) 과장된 행동 (3) 우스꽝스러운 외양 묘사 (4) 어리숙한 인물 (5)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해보자.

풍자는 현실의 부정적 문제를 (3)으로 (4)하면서 독자가 그러한 현실에 냉소하게 하는 문학 양식이다. (1) 우화적 기법이 있거나, (2) 대상을 비꼬고 비아냥 대는 것, (3) 부정적 대상이 오히려 잘되는 경우가 있다.

해학은 (5)을 유발하면서 (6)적인 의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웃음 코드를 배워보자. (1) 언어유희 (2) 과장된 행동 (3) 우스꽝스러운 외양 묘사 (4) 어리숙한 인물 (5)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해보자.

풍자는 현실의 부정적 문제를 (7)으로 (8)하면서 독자가 그러한 현실에 냉소하게 하는 문학 양식이다. (1)우화적 기법이 있거나, (2)대상을 비꼬고 비아냥 대는 것, (3)부정적 대상이 오히려 잘되는 경우가 있다.

시점

1. 길다 / 2. 2~3줄 / 3.감각적 / 4.주관 / 5.감정 / 6.비유 / 7.상징 / 8.비유 / 9.오감 / 10.전기적 요소 / 11.종결어미 / 12.종결어미 / 13.웃음 / 14.비판 / 15.우회적 / 16.비판

Chapter 4.

수필, 희곡, 시나리오

01 수필

02 희곡

03 시나리오

04 실전 연습



01 수필



선생님하고 약속 하나 하고 가자.
수필, 극, 시나리오의 하위호환이다.

1. 수필의 정의 :

수필은 그 뜻대로 ‘붓을 따라서, 붓 가는 대로 써놓은 글’이다.

시나 소설 · 희곡과 같이 어떤 형식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초점으로 모아진

서정이나 사색을 그대로 **산문**으로 표현하는 문학이다.

즉, **그때그때 보고 느끼고 흥미 있는 것을 붓 가는 대로 산문으로 표현한 글**이다.

[출처: 수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수필의 문제 유형 분석 :

서정과 사색 → ‘시’에서 물어보는 것, **산문** → ‘소설’에서 물어보는 것

3. 수필을 읽는 방법 : 시와 소설과 동일

02 희곡

1. 희곡의 정의 :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
2. 희곡의 문제 유형 분석 : 소설과 동일
3. 희곡을 읽는 방법 : 소설과 동일 (소설보다 쉽다)

개념 ① 해설 vs 지시문

- **해설** : 희곡의 맨 처음에 ‘등장인물, 장소, 배경’ 등을 제시하는 부분.

ex) 덴마크 왕성의 한 밤중.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과 삼촌의 배신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 왕궁의 어둠 속에서 그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한다.

- **지시문** : (), 무대 장치나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상태를 상황에 맞게 지시하는 부분

ex) (햄릿, 무대 중앙에 서서, 고뇌에 찬 표정으로) 햄릿: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개념 ② 대사의 종류

1. **독백** : 한 사람이 혼자 하는 말
2. **대화** : 두 명 이상의 등장인물이 서로 주고 받는 말
3. **방백** : 무대 위의 다른 등장인물들은 듣지 못하는 것으로 약속된 말

개념 ③ 실험극(=서사극=낯설게 하기)

전통극은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상의 인물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내재화된 감정의 해소,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치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관객이 극 중 인물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정화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반면, **서사극**의 접근 방식은 이와 상이하다. 서사극은 관객이 극 중 사건이나 인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지양하며, 대신 극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극을 보는 동안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직접적인 관객과의 대화’, ‘자막 사용’, ‘극 중 극’, ‘비현실적 무대 디자인’, ‘비일관적인 연기 스타일’, ‘조명과 음향의 변칙적 사용’,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의 직접적 제시’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이렇듯 브레히트는, 관객이 극에 대한 감정적 몰입을 넘어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극장 밖의 현실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필요한 경우 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극의 경험을 단순한 감정적 해소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과 개입의 기회로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03 시나리오

1. 시나리오의 정의 :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
2. 시나리오의 문제 유형 분석 : 소설과 동일
3. 시나리오를 읽는 방법 : 소설과 동일 (소설보다 쉽다)

개념 1 시나리오 용어 정리

- 1) S#(scene number) : 장면 표시 번호
- 2) F.I(fade in) : 화면이 차츰 밝아지는 것. 용명
- 3) F.O(fade-out) : 화면이 차츰 어두워지는 것. 용암.
- 4) O.L(over-lap) : 화면이 겹치지며 장면이 바뀌는 수법.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도 함.)
- 5) INS(insert) : 화면과 화면 사이에 끼워 넣는 삽입 화면.
- 6) C.U(close-up) : 어떤 한 부분을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찍는 것. 대사
- 7) E(effect) : 효과음.
- 8) D.E(double-exposure) : 한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이 겹쳐져서 이루어진 합성화면. 이중노출.
- 9) DIS(dissolve) : 오버랩과 같음.
- 10) C.I(cut in) :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을 삽입하는 것.
- 11) I.I(Ins in) : 화면 가운데 일점을 중심으로 동글게 확대하여 영사하는 기법.
- 12) I.O(Ins out) : 화면을 점점 작게 줄여 가는 기법.
- 13) W.O(wipe out) : 화면을 닦아 지우듯이 지우면서 다음 화면을 가져오는 기법.
- 14) Nar(narration) : 설명 형식의 대사. 해설
- 15) Naratage : 내레이션과 몽타주의 합성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
- 16) Pan(panning) :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것.
- 17) 신(scene) : 영화의 장면 단위.
- 18) 시퀀스(sequence) : 몇 개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진행의 한 단락(묶음)
- 19) T.U(Track Up) : 피사체를 향해 전진하며 촬영하는 기법.
- 20) 몹신(Mob Scene) : 많은 군중이 나오는 장면.



외우는 건 아니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그 외에도 모르는 게 나오면, 나무위키에 쳐봐

04

실전 연습

2018학년도 9월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 말세야 말세!

이때 경재 제복을 차려 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재: 원 아버지두.....

최 노인: 이놈아 뭐가 우스워?

경재: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설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험!

(중략)

경수: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환이라구요? ㉣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끼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구!

경수: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그래 이놈아 너는 애비도 에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여보 김 첩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복덕방: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무친한 외도토린 줄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깐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음 이놈이 한낮부터 술 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김 첩지! 글썽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복덕방: 그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놈

아 누군 돈이 바람 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그것도 잘 생각해셔야! 음!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글썽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예잇.

최 노인: 아 ㉤ 김 첩지!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어머니: 네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최 노인 썩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이놈아! ㉥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뭇 하러 복덕방은.....

최 노인: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봤나! 아니 내가 뭇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옳아 네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얘깁니까?

최 노인: 네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숙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예? 전세라구요?

㉦ (어머니와 경운은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 노인: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냐?

경수: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최 노인: 아니면 껌질이나?

어머니: ㉧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뭇 하시게요?

최 노인: 글썽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더라 ‘샤뽀뽀’이라든가.....

경운: ‘샤뽀뽀오드*’ 말씀이에요?

최 노인: 그래 ‘샤뽀뽀오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기에 그걸 해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이 익어 가는 판인데 글썽 다 되어 간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뭐가 괜히야?

경운: ㉨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

최 노인: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서다.)

어머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혼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뭇이 된

단 말이야! 뭣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뽐아 헤친다.)

어머니 : ㉠(맨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씨도 말야!

- 차범석, 불모지 -

* 샷플보드(shuffleboard) : 오락의 한 종류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O/X)
- ② 장면의 전환을 통해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O/X)
- ③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④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⑤ 실제 지명의 노출을 통해 극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O/X)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O/X)
- ② ㉡ : '경재'의 말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③ ㉢ : 호칭을 달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 노인'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O/X)
- ④ ㉠ : 두 인물이 '경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O/X)
- ⑤ ㉢ :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O/X)

3. <보기>와 ㉠ ~ ㉢를 관련지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발견'이란 인물이 극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숨겨진 측면을 알아차리는 계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 변모되기도 한다.

- ① '경재'는 ㉠을 통해 '최 노인'이 예전과 달라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내는군. (O/X)
- ② '복덕방'은 ㉡를 통해 '경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지하게 되는군. (O/X)
- ③ '경수'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군. (O/X)
- ④ '최 노인'은 ㉠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군. (O/X)
- ⑤ '최 노인'은 ㉢를 통해 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경운'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군. (O/X)

4. 화초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O/X)
- ② 중심인물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소이다. (O/X)
-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O/X)
- ④ 중심인물이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책하는 장소이다. (O/X)
- 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망해하는 중심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6학년도 수능A

소장수 A :가만 계세요. 만약 내가 이 소를 샀다가두 나중에 탄로가 나면.....

개똥이 : 멧덩구리 같으니라구! 그런 걱정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네가 입을 다치구 있구 내가 입을 딱 찢어 버리구 있으면 누가 알아. 어느 개아들 놈이 안단 말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아예 말어.

이때에 울타리 바깥 행길에 밭에 갔다 오는 말뚱이 나타난다. 말뚱이는 빈 지게를 졌다. 개똥이와 소장수를 보고 무루청한다.*

말뚱이 : (길에서) 개똥이 너 거기서 뭘 해? 그 사람은 누구야?

개똥이 :허긴 뭘 해. 아모것두 아니야. 소에 꼴 주고 있어.....

3장

이때에 또 국서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난다. 소장수와 개똥이는 슬슬 나가 버린다. 말뚱이는 소 옆에 와서 좀 ㉠ **이상한 공기를** 예감한 듯이 살핀다. 이상 없음을 보고 소를 도로 매어 둔다. 마름 앞서고 그 뒤에 국서, 그리고 그 처 헛간으로 들어온다.

마름 :그러면 저 벧섬은 오늘 저녁나절까지 신작로 돌다 리끼에 있는 논임자 곳간으로 저 내어다 두게.

국서 : 네.

마름 : 그러면 한 번 더 일러두고 갈 테니 잘 명심해 두게! 작 년 치 떨어진 게 두 섬 여섯 말, 재작년치 떨어진 게 석 섬 두 말, 도합 닷 섬 여덟 말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와서 갇어진 것을 털면 꼭 닷 섬 일곱 말이 떨어져 있던 말야!

말뚱이 : (옆에서 듣고 섰다가 통명스럽게) 그걸 어째야 한단 말 요?

마름 : 금명간에 다 해다 갇으란 말야! 이놈이 왜 어른 말하는데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 윈 버르장머리 없게.국서 잘 듣게. 대관절 이번 봄부터 내가 몇 번을 타일른 줄 알아? 명년부터서는 새로 농지령이란 게 실시된단구.그런 게 되면 실상 작인들은 살기가 좀 나아져. 그렇지만 그 대신 이번 추수까지에는 여태 묵은 것은 다 맡겨 놔야지. 그렇잖으면 내년에 가서 피차에 귀찮스럽게 된단 말야. 도지가 묵었느니, 떨어졌느니 허구 법정에 내걸더라도 말썽스럽게 되거든!

국서 :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쭙 게 아납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마름 : 지금 와서 그런 소릴 해두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허는 사람이야. 만일 이번에 묵은 것을 못 갖다 갇으면 좋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정없이 딱 잘라서 ㉡ **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 잘 알아 생

각해!

말뚱이 : 아니 빠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 그러구 그게 무슨 말유? 올해가 풍년이래두 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았나 봐요! 막 뒤져 봐요!

국서 :이놈 말뚱아!

마름 : 이 망할 자식 보게. 늙은 사람 앞에 막 샷대질을 허구 이놈이 덤비지! 에잇, 고약한 놈 같으니! (지팡이로 때린다.)

말뚱이 : (악을 쓰고)아버지 좀 낚요. 노.....농지령이란 건 뭐야요? 그저 사람을 골릴려구! 최후 결단을 하면 어쩔 테야요? 어디 할 대루 해 봐요! 흥!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 이지.....

국서 : (말리다가 못해 말뚱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놈, 버릇없어!

마름 : 이런 분할 일이 있나! 그럼 못할 거라구! 두고 봐! 기둥 이라두 빼어 가두 빼어 가구 술이라두 떼어 갈 테니까.흥 저놈의 소는 못 몰고 갈 줄 아나?

(중략)

국서 : (말뚱이더러 노하여) 이놈아 나가거라! 소는 그에 너 놈 때 문에 날려 버리고 말었다! 이 빌어먹을 놈! 왜 아까 마름 헛간에 덤뵈어?

처 : 이놈아, 너는 허는 짓짓이 미련스럽더라. 이 일을 어떡하 나? 이 일을.

말뚱이 : 아니야, 가만 있어. 내 소 팔아먹은 놈은 알어요. 저 그 쇠몽치란 소장수가 어떻게 생겼수?

소장수 B : 짧은 머리 깎은 녀석이지. 좀 뚱뚱허구.

말뚱이 : 뚱뚱허구 머리를 깎구..... 음! 그렇지! 이놈을 내가 죽여 버릴 테야.

국진 : 네가 아니?

말뚱이 :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뚱뚱허구 짧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뭐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소장수 B : 그럼 그건가 봅네다. 아무려면 불 안 땀 굴뚝에서 연기 날려구요. (퇴장)

국서 : 저런! 육싹헐!

처 : 이놈아. 똑똑이 못 본 일이거든 아예 입에 담지 말어라. 왜 그놈을 소도적놈으로 몰라구 그래?

국서 :아냐. 그놈일는지도 몰라. 그놈이 소 팔아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

- 유치진, 소 -

* 무루청하다 : ‘무르춤하다’의 잘못. 뜻밖의 사실에 놀라 뒤로 물러 서려는 듯이 하여 행동을 갑자기 멈추다

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뚝이’는 ‘개똥이’와 ‘국서’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O/X)
- ② ‘국서’와 ‘말뚝이’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도 ‘마름’에 대해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 ③ ‘국서’는 ‘개똥이’의 예전 행동을 근거로 ‘말뚝이’의 판단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O/X)
- ④ ‘말뚝이’는 ‘소장수 B’가 제공한 정보에 의지하여 ‘개똥이’가 ‘소장수 A’에게 소를 넘겼다고 믿고 있다. (O/X)
- ⑤ ‘마름’은 도지 갇기를 독촉하는 자신의 행동이 논임자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국서’ 부자의 불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O/X)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으로 인해 생긴 ‘말뚝이’와 ‘마름’ 간의 불화 때문에 ‘마름’이 ㉡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다. (O/X)
- ② ㉠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 채고 ‘말뚝이’가 ㉡을 대비하면서 조성한 것이다. (O/X)
- ③ ㉠으로 인해 ‘개똥이’는 ‘말뚝이’에 대한 증오심을, ㉡으로 인해 ‘마름’은 ‘국서’ 부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O/X)
- ④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뚝이’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뚝이’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다. (O/X)
- ⑤ ㉠으로 인해 ‘말뚝이’는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라는 말을 듣고 ‘국서’는 ‘마름’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O/X)

3.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는 1935년에 발표된 유치진의 초기 사실주의 극이다. 사실주의 극은 다양한 연극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민다. 소는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용어의 사용,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과 대화 상황의 제시,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사용 등을 통해 당대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나 관습 그리고 농촌 사회에 내재된 갈등 상황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 ① ‘소’, ‘올타리’, ‘빈 지게’, ‘헛간’ 등을 연극적 장치로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 (O/X)
- ② 인물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행동과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말투를 통해 갈등 상황을 실감 나게 제시하고 있다. (O/X)
- ③ ‘마름’의 뒤를 따라가는 ‘국서’의 행동과 ‘국서’에게 지시하는 ‘마름’의 행동을 통해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O/X)
- ④ ‘농지령’, ‘작인’, ‘도지’ 등 농민과 관련된 법령 및 용어를 사용하여 무대 위의 상황이 당대의 농촌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군. (O/X)
- ⑤ ‘늙은 사람 앞에 ~ 고약한 놈 같으니!’,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등의 대사를 통해 계층 간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당대 농촌 사회의 관습을 보여 주는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21학년도 6월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우치 대노 왈,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 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술법이 없으며,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여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궐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공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금에 드문 괴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하늘의 공궐이 오래되어 낡고 험악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칠월 칠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쳐 대령하되 길이십 척 오촌이요, 너비 삼 척 이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중략)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답]**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즉, 화답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 애걸 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

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화답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답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답 왈,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며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우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애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화답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흠여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답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S#1. 궁궐. 낮.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왕: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추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왕: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 했습니다.

전우치: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

왕: 황공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 했습니다.

전우치: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똥똥하구나. 근데... 예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

- 최동훈, 전우치 -

어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툭 쳐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중략)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전우치: 왕은 고개를 들라.

왕: 예?

전우치: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 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화. 궁녀2 손에 들게 한다.

전우치: 어떨까?

왕: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전우치: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입니다.

왕: ...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군들을 보면, ㉡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전우치: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 지는 것도 아니고 거 참.

왕: 감히 도사 놈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나는 궁중 악사들.

전우치: 도사 놈이라? 예... 도사는 무엇이나? ㉢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검이 쇠-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 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설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전우치: 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 같으나? 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한다.

왕: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천냥을 주겠다.

전우치: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 웃음 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1. (가)의 [화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O/X)
- ②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함께 간다. (O/X)
- ③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O/X)
- ④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O/X)
- ⑤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O/X)

3. <보기>를 참고할 때, 뒷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1: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학생 2: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학생 3: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학생 4: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학생 5: 전우치가 재산을 흠어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① ㉠(O/X) ② ㉡(O/X) ③ ㉢(O/X)
- ④ ㉣(O/X) ⑤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O/X)
- ②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O/X)
- ③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O/X)
- ④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O/X)
- 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되었다. (O/X)

4.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O/X)
- ②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O/X)
- ③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O/X)
- ④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 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O/X)
- ⑤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뀌어서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 (O/X)

5.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 ~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 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O/X)
- ②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O/X)
- ③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O/X)
- ④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군. (O/X)
- ⑤ ㉤: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군.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2019학년도 9월

[앞부분 줄거리] 공동 경비 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수혁 병장, 남 성식 일병(수정의 오빠)과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 **S#79. 팔각정 (낮)**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 — 대질 심문을 받고 나온 수혁, 경필 일행이 회담장 앞에서 각각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다. 카메라, 후진하면서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면 보타의 손이 쑥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소피: (영어) (봉투를 받아 들고) 뭐죠?

보타, 대답 대신 관측경을 들여다본다.

보타: (영어) 한국어 처음이었지?

㉡ 보타의 관측경으로, 판문각 앞에서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관찰하는 북한 군인이 보인다.

보타: (영어) (목소리) 그래 ‘아버지’ 나라가 마음에 들던가?

㉢ 판문각 쪽에서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소피의 모습이 잡힌다.

보타의 설명 사이사이, 한국전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과 좌우 투쟁, 종전 후 공산 포로 복송, 반공 포로 석방 및 제3국행 포로의 출발과 도착 장면들이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으로 편집된다.

보타: (영어) (목소리) ㉣ 한국전 당시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두 무리 간엔 치참한 살육이 계속됐어. 종전되고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 남으로의 귀순이냐, 북으로의 귀환이냐... 그 17만 포로 중 76명은 둘 다를 거부했어.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 지.

소피, 놀란 얼굴로 손에 든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 결박당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 그 중 동그라미가 처진 사람 얼굴로 zoom in.

보타: (영어) 표 장군이 매우 썩싸게 움직였더군. 국방부, 외무부, 인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대사관... 며칠 사이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았어. 표 장군으로선 ㉥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었겠지.

소피: (영어) (흥분해서) 3일이면 돼요. 곧 이 병장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가요.

(중략)

㉦ **S#81. 소피의 숙소 (낮)**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싸는 소피. 사진 액자를 가방에 넣으려다 말고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의 소피와 스위스인 엄마 사진. 액자 뒤를 열어 가족사진을 꺼낸다. 접힌 부분을 펴자 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난다.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는 소피.

S#82. 수사본부 (낮)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수혁, 목발을 짚었다. 사진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소피.

소피: (수혁을 돌아보며)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몸도 불편한데.

영문을 모르고 불러 온 수혁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들고 출입구 앞으로 가는 소피, 과녁판에서 다트 화살을 뽑아 든 다음 서류 한 장을 훑아 고정시킨다.

소피: 내일 자정을 기해 나를 제이에스에이 근무에서 해제한다는 명령서예요.

수혁: 들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소피: 그래, 내가 인민군 장교의 딸이란 얘길 듣고 기분이 어땠던가요?

수혁: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 소피,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가 군복 안에 받쳐 입은 터틀넥 스웨터의 목을 젖혀 보인다. 목에 나 있는 피멍 자국.

소피: 난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병장은 깨끗하네요. 이 병장이 오 중사보다 힘이 센가 보지요?

당황하는 수혁, 대답 없다.

소피: 자, 진짜 재미난 쇼는 이제부터예요. 잘 봐요.

수정의 얼굴이 프린트된 출력물을 과녁판에 꽂는 소피. 당황하는 수혁.

소피: 수정 씨를 만나자마자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지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수정의 초상화를 과녁판에 꽂는 소피. 놀라는 수혁.

소피: 정우진이 그린 초상화예요. 그리고 이걸 (찢어져 너덜너덜한 얼굴 없는 사진을 과녁판에 꽂으며) 정우진의 시신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과녁판에 나란히 부착된 ㉔ 석 장의 이미지. 충격받은 표정의 수혁.

소피: ‘사라진 탄환’이 남 일병의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였다면... (얼굴이 찢겨 나간 사진을 가리키며) ‘사라진 얼굴’은 네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수혁, 애써 외면하고 걸어간다

수혁: 그래서요?

㉔ 노란색과 빨간색 디스켓 두 개를 꺼내 보이는 소피.

소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내가 뭘 제출하느냐는 이 병장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 준다면 난 후임자한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수혁: 협박입니까?

소피: 거래죠.

수혁: 영창을 가든 훈장을 받든 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㉔ 진실의 대가로 소령님이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니까?

소피: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에요.

-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

* 부감: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것.

* 줌인: 피사체의 크기를 점점 확대 촬영하는 것

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피’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북으로 귀환한다. (O/X)
- ②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 (O/X)
- ③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소피’를 경계한다. (O/X)
- ④ ‘소피’는 ‘사라진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O/X)
- ⑤ ‘소피’는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한다. (O/X)

2. ㉔ ~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 (O/X)
- ② ㉔은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된다. (O/X)
- ③ ㉔은 ‘소피’가 네 병사의 관계를 짐작하게 된 단서이다. (O/X)
- ④ ㉔은 ‘수혁’이 진실을 밝히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제출될지가 정해질 것이다. (O/X)
- ⑤ ㉔은 ‘수혁’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이다. (O/X)

3.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가정할 때, ㉔ ~ ㉔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㉔과 ㉔은 각각 관측경과 쌍안경으로 상대측을 바라보는 장면을 설정하여 남북한 대치 국면에 있는 S#79 공간의 특수성을 그려야겠어. (O/X)
- ② ㉔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촬영과 달리 사진이나 기록 영상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 주어야겠어. (O/X)
- ③ ㉔은 등그라미 처진 얼굴을 확대 촬영하여 ‘소피’의 아버지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겠어. (O/X)
- ④ ㉔은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야겠어. (O/X)
- ⑤ ㉔은 사건의 맥락이 관객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야겠어. (O/X)



각 선지가 적절한/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뜸들이기 빠른 정답

들어가기 전에

1 ㉓ 2 ㉑ 3 ㉔ 4 ㉔ 5 ㉕ 6 ㉔ 32p

실전연습

1 인문

1 ㉑ 2 ㉓ 3 ㉔ 4 ㉓ 5 ㉓ 6 ㉒ 40p

1 ㉔ 2 ㉔ 3 ㉓ 4 ㉓ 42p

1 ㉒ 2 ㉔ 3 ㉕ 4 ㉕ 44p

2 사회

1 ㉔ 2 ㉕ 3 ㉓ 4 ㉒ 5 ㉒ 6 ㉕ 47p

1 ㉓ 2 ㉕ 3 ㉔ 4 ㉒ 49p

1 ㉕ 2 ㉓ 3 ㉒ 4 ㉒ 51p

3 예술

1 ㉓ 2 ㉑ 3 ㉕ 4 ㉕ 5 ㉓ 6 ㉑ 54p

1 ㉔ 2 ㉑ 3 ㉔ 4 ㉓ 5 ㉒ 6 ㉔ 56p

1 ㉑ 2 ㉕ 3 ㉓ 4 ㉒ 59p

4 논리

1 ㉓ 2 ㉒ 3 ㉓ 4 ㉔ 5 ㉕ 6 ㉕ 62p

1 ㉕ 2 ㉑ 3 ㉕ 4 ㉕ 5 ㉑ 65p

1 ㉕ 2 ㉑ 3 ㉔ 4 ㉔ 67p

5 법률

1 ㉒ 2 ㉔ 3 ㉒ 4 ㉔ 70p

1 ㉓ 2 ㉕ 3 ㉔ 4 ㉑ 72p

1 ㉒ 2 ㉕ 3 ㉔ 4 ㉓ 5 ㉓ 74p

6 경제

1 ㉑ 2 ㉓ 3 ㉔ 4 ㉓ 5 ㉕ 6 ㉕ 77p

1 ㉑ 2 ㉕ 3 ㉕ 4 ㉑ 79p

1 ㉔ 2 ㉓ 3 ㉕ 4 ㉔ 5 ㉕ 81p

7 과학

1 ㉑ 2 ㉒ 3 ㉔ 4 ㉓ 84p

1 ㉕ 2 ㉔ 3 ㉕ 4 ㉒ 85p

1 ㉕ 2 ㉒ 3 ㉔ 87p

8 기술

1 ㉒ 2 ㉕ 3 ㉕ 4 ㉑ 89p

1 ㉒ 2 ㉓ 3 ㉑ 4 ㉕ 90p

1 ㉒ 2 ㉓ 3 ㉓ 91p

문제 유형 분석

1 ㉒ 2 ㉓ 3 ㉑ 4 ㉒ 5 ㉕ 102p

시의 논리와 해석

현대시

1 ㉒ 2 ㉑ 3 ㉓ 4 ㉒ 5 정답없음 108p

1 ㉒ 2 ㉔ 3 ㉔ 4 ㉓ 110p

1 ㉔ 2 ㉒ 3 ㉕ 4 ㉓ 112p

1 ㉑ 2 ㉔ 3 ㉒ 4 ㉓ 114p

1 ㉔ 2 ㉔ 3 ㉕ 4 ㉔ 116p

1 ㉔ 2 ㉑ 118p

1 정답없음 2 ㉓ 3 ㉒ 4 ㉑ 5 정답없음 119p

1 ㉒ 2 ㉔ 3 ㉕ 4 ㉓ 121p

1 ㉕ 2 ㉒ 123p

문제 유형 분석

현대 소설

1 ㉑ 2 ㉒ 3 ㉔ 4 ㉑ 210p

고전 소설

1 ㉒ 2 ㉓ 3 ㉑ 4 ㉕ 212p

소설의 논리와 해석

현대 소설

1 ㉑ 2 ㉔ 3 ㉑ 4 ㉒ 215p

1 ㉑ 2 ㉔ 3 ㉕ 4 ㉔ 217p

1 ㉕ 2 ㉓ 3 ㉔ 4 ㉒ 219p

1 ㉑ 2 ㉕ 3 ㉑ 4 ㉒ 221p

1 ㉕ 2 ㉔ 3 ㉓ 4 ㉓ 223p

1 ㉓ 2 ㉑ 3 ㉓ 4 ㉕ 225p

1 ㉔ 2 ㉓ 3 ㉕ 4 ㉕ 227p

1 ㉑ 2 ㉒ 3 ㉕ 229p

1 ㉒ 2 ㉔ 3 ㉑ 4 ㉕ 230p

고전 소설

1 ㉒ 2 ㉑ 3 ㉓ 4 ㉕ 232p

1 ㉕ 2 ㉒ 3 ㉓ 4 ㉓ 234p

1 ㉑ 2 ㉒ 3 ㉔ 4 ㉕ 236p

1 ㉔ 2 ㉓ 3 ㉓ 4 ㉕ 238p

1 ㉔ 2 ㉒ 3 ㉓ 4 ㉔ 240p

1 ㉔ 2 ㉓ 3 ㉔ 4 ㉕ 242p

1 ㉓ 2 ㉓ 3 ㉒ 4 ㉔ 244p

1 ㉔ 2 ㉔ 3 ㉓ 4 ㉔ 246p

1 ㉑ 2 ㉓ 3 ㉑ 4 ㉓ 248p

희곡

1 ㉕ 2 ㉔ 3 ㉔ 4 ㉕ 292p

1 ㉑ 2 ㉕ 3 ㉕ 294p

시나리오

1 ㉑ 2 ㉒ 3 ㉔ 4 ㉕ 5 ㉔ 296p

1 ㉕ 2 ㉕ 3 ㉕ 299p

이미지 저작권 표기

1. 웃는 사람들이 아바타 세트. 다른 남성과 여성 캐릭터 컬렉션 (작가 jcomp | 출처 Freepik)
"이미지: https://kr.freepik.com/free-vector/smiling-people-avatar-set-different-men-and-women-characters-collection_13663484.htm#query=사람&position=0&from_view=keyword&track=ais&uuiid=b4d007ab-033b-4a99-9b80-dd1cfc0043b9"
2. 학생 무료 아이콘 (작가 Freepik | 출처 Flaticon)
"이미지: https://www.flaticon.com/kr/free-icon/student_257634?term=%ED%95%99%EC%83%9D&page=1&position=2&origin=search&related_id=257634"
3. 선생 무료 아이콘 (작가 rddrt | 출처 Flaticon)
"이미지: https://www.flaticon.com/kr/free-icon/teacher_3471381?term=%EC%84%A0%EC%83%9D%EB%8B%98&page=1&position=36&origin=search&related_id=3471381"
4. 전통문양 > 노리개(1003700)
본 저작물은 "문화포털" 에서 서비스 되는 전통문양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미지: <https://www.culture.go.kr/tradition/traditionalUsePatternView.do?seq=1003700&cPage=1&type=A&type2=&sWord=>"
5. 과학 무료 아이콘 (작가 fanter Kamal | 출처 Flaticon)
"이미지: https://www.flaticon.com/kr/free-icon/science_13074133?term=%EB%A7%9D%EC%9B%90%EA%B2%B-D+%ED%98%84%EB%AF%B8%EA%B2%BD&page=1&position=2&origin=search&related_id=13074133"
6. 학교 무료 아이콘 (작가 Wahya | 출처 Flaticon)
"이미지: https://www.flaticon.com/kr/free-icon/school_13676586?term=%EB%A7%9D%EC%9B%90%EA%B2%B-D+%ED%98%84%EB%AF%B8%EA%B2%BD&page=1&position=3&origin=search&related_id=13676586"

본 교재의 저작권은 한방국어에 있습니다.

한방국어의 사전 허락 없이 본 교재를 복제, 변형하여 판매, 배포, 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21. 한방국어 Co. All rights reserved.

수업 문의 : 010-9759-5798

메일 : wg_eu4337@naver.com

